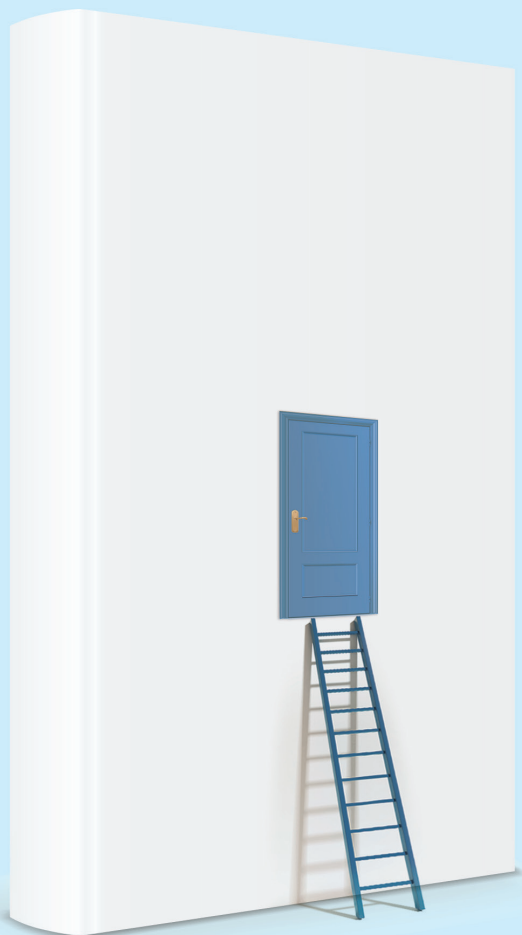


2016

휴가철에 읽기 좋은 책 100선



2016

휴가철에 읽기 좋은 책 100선



국립중앙도서관
National Library of Korea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

(2016) 휴가철에 읽기 좋은 책 : 100선 /
국립중앙도서관 [편]. -- 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2016
p. ; cm

색인수록

ISBN 979-11-5687-276-4 04020 : 비매품

ISBN 978-89-7383-654-3 (세트) 04020

선정 도서[選定圖書]

국립중앙도서관[國立中央圖書館]

029.1-KDC6

028.1-DDC23

CIP2016016316

휴가철에 읽기 좋은 책을 펴내면서

“한 권의 책을 읽음으로써 인생의 전기를 맞은 사람이 너무나 많다.” 미국의 사상가 겸 문학자인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말입니다. 하지만 바쁜 현대인들이 독서를 위해 시간을 내기란 대부분 쉽지 않습니다.

직장인은 휴가를, 학생은 방학을 맞이하는 여름 휴가철은 그나마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복잡한 생각은 잠시 한쪽에 두고 스스로를 채울 수 있는 독서에 몰입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귀중한 시간인 만큼 무엇보다 좋은 책을 골라 읽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여름 휴가철에 편안한 마음으로 읽을 수 있는 일반교양도서 100권을 선정하였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사서들이 지난 1년 동안 매월 엄선한 ‘사서추천도서’ 중 80권과 서평전문가 4분이 추천하는 도서 20권을 묶었습니다. 사서추천도서는 늘 책을 가까이 하는 사서들이 도서관에 새로 들어온 책 가운데 베스트셀러를 제외한 좋은 책을 엄선한 것으로, 이 중 휴가철에 이용자들에게 권하고 싶은 도서를 다시 골랐습니다. 또한 이번에는 책을 항상 마주하는 서평전문가들이 휴가철에 초점을 맞추어 추천한 도서를 함께 실어 더욱 풍성하게 구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간략한 서평과 저자 소개, 책 속에서 뽑은 좋은 문장, 함께 읽으면 좋은 책과 같은 정보가 있어 읽고 싶은 책을 고르는 좋은 길잡이가 되어 줄 것입니다.

설렘과 기대 속에서 시작될 여러분의 여행길에 동반자가 될 만한 책을 ‘휴가철에 읽기 좋은 책’에서 만나서, 더위로 지친 몸과 마음을 휴식과 독서로 시원하게 재충전하시기를 바랍니다.

2016년 7월
국립중앙도서관장

임원진

발간사

03

문학

001	(금요일에 읽는) 가족의 시	10
002	검은 수련	11
003	국경의 도서관	12
004	글쓰는 여자의 공간	13
005	꿈꾸는 시인	14
006	남은 생의 첫날	15
007	말순씨는 나를 남편으로 착각한다	16
008	문학은 노래다	17
009	삶은 어떻게 예술이 되는가	18
010	세계문학여행	19
011	아자젤	20
012	악의	21
013	연적	22
014	이케아 옷장에 갇힌 인도 고행자의 신기한 여행	23
015	입 안에 고인 침묵	24
016	작가의 창	25
017	젯빛음모	26
018	책벌레와 메모광	27

철학

019	관계를 회복하는 용기	28
020	마음의 감기	30
021	생각의 융합	31
022	심리학으로 읽는 그리스 신화	32
023	언제까지나 내성적으로 살겠다	33
024	이끌지 말고 따르게 하라	34
025	(딸에게 필요한) 일곱명의 심리학 친구	35
026	철학 주식회사	36
027	편견	37
028	행복을 인터뷰하다	38

사회·경제

029	가족	39
030	과소유 증후군	40
031	(위대하고 찌질한) 경제학의 슈퍼스타들	42
032	나를 대단하다고 하지 마라	43
033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44
034	빅데이터 인간을 해석하다	46
035	생각공유	47
036	생각은 죽지 않는다	48
037	아침식사의 문화사	49
038	지구와 바꾼 휴대폰	50
039	지구의 밥상	51
040	철부지 사회	52
041	카페인 권하는 사회	53
042	크리에이터 코드	54

자기계발

043	나는 고작 한번 해봤을 뿐이다	55
044	디테일이 강해야 산다	56
045	마음에 지지 않는 용기	57
046	(하루 5분 나를 성장시키는) 메모 습관의 힘	58
047	오래가는 소통	59
048	정리 습관의 힘	60

자연과학

049	뉴턴의 시계	61
050	상상하기 어려운 존재에 관한 책	62
051	새의 감각	63
052	위대한 공존	64

기술과학

053	감정의 식탁	65
054	기적을 일으키는 베개의 힘	66
055	늙는다는 건 우주의 일	67
056	도시에 미학을 입히다	68
057	마음의 미래	69
058	매일 매일의 진화생물학	70
059	미각력	71
060	안녕히 주무셨어요?	72
061	알코올의 역사	73
062	유전자는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	74
063	음식의 언어	75
064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뇌	76
065	자전거의 즐거움	77
066	전자정복	78
067	창조의 탄생	79
068	탄소 문명	80
069	프루프	81

예술

070	3분 영화에세이	82
071	시네마 클래식	83
072	예술가를 꿈꾸는 젊은이에게	84
073	오페라 홀릭	85
074	장우진의 종횡무진 미술 오디세이	86

역사·지리

075	그들을 따라 유럽의 변경을 걸었다	87
076	단어 따라 어원 따라 세계 문화 산책	88
077	바람이 전하는 인디언 이야기	89
078	세계사 브런치	90
079	세상을 바꾼 다섯 가지 상품 이야기	91
080	파스타로 맛보는 후룩후룩 이탈리아 역사	82

서평전문가 추천도서

081	9년 전의 기도	94
082	고맙습니다	95
083	너무 한낮의 연애	96
084	아, 보람 따위 됐으니 야근수당이나 주세요	97
085	일곱 번째 아이	98
086	개를 데리고 다니는 여인	99
087	고독의 매뉴얼	100
088	나혜석, 운명의 캉캉	101
089	유혹의 학교	102
090	탐서의 즐거움	103
091	사피엔스	104
092	세컨드 핸드 타임	105
093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106
094	아름다움의 구원	107
095	우리는 거대한 차이 속에 살고 있다	108
096	개와 늑대의 시간	109
097	모던 씨크 명랑	110
098	바느질하는 여자	111
099	상처받지 않는 삶	112
100	자동차, 시대의 풍경이 되다	113

그 외

2016 휴가철에 읽기 좋은 책 100선 목록	114
서명 찾아보기	118
저자명 찾아보기	120

일러두기

수록범위

-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국립중앙도서관 '사서추천도서'와 《내일신문》의 '사서가 추천하는 오늘의 책'에 실린 서평 도서 80선을 수록하였습니다.
- 서평전문가의 휴가철 추천도서 20선을 수록하였습니다.

배열

- 문학 | 철학 | 사회 · 경제 | 자기계발 | 자연과학 | 기술과학 | 예술 | 역사 · 지리 등 주제 분야별로 나눈 후, 서명 가나다순으로 배열하였습니다. 서평전문가 추천도서는 추천자의 성명 가나다순 아래에서 서명 가나다순으로 배열하였습니다.
- 도서의 표지, 서명, 저자명, 발행처명, 발행년을 소개하고 추천자의 추천 글, 간략한 저자 소개, 함께 읽으면 좋은 책을 3권씩 수록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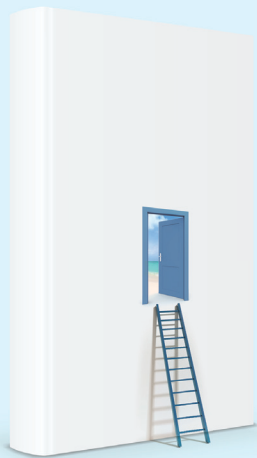
※ 『휴가철에 읽기 좋은 책』은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www.nl.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2016 휴가철에 읽기 좋은 책』은 수록된 이미지를 제외하고 '공공누리'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자유이용허락은 공공기관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이용 허락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공공저작물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http://www.kogt.or.kr/>

국립중앙도서관 사서 추천도서

80선



(금요일에 읽는) 가족의 시



김태훈 지음
arte(아르떼) | 2016

사서의 추천 글

‘불타는 금요일’이 익숙한 시대에, 금요일 저녁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에게 사랑과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담은 시 한 편을 읽어주자는 제안이 신선하다. 기자인 저자가 《조선일보 주말매거진》에 ‘알콩달콩 시’라는 제목으로 연재했던 내용을 보강해서 펴낸 책이다.

총 50편의 시에 해설을 붙였다. 1장은 아버지, 2장은 어머니를 노래한 시를 모았다. 어떤 시를 읽어도 가슴 한 구석이 찡하다. 3장은 부부를 테마로 한 시이다. 4장은 만나지 못할지라도 마음으로 기억하고 있는 가족을 이야기한다. 5장은 가족의 시간을 테마로 했다. 이 장에서는 따뜻하고 행복한 시절만 이야기하지 않는다. 김주대의 「슬픈 속도 - 도둑고양이」, 진은영의 「가족」이란 시를 마주하면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6장에선 가족들 과도 행복을 연습해둘 필요가 있다며 마무리한다.

누군가의 경험이 정제되어 함축적으로 담겨 있는 시를 읽으면서 나의 가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다.

저자 소개

김태훈 1992년 조선일보에 입사해 기자 경력의 대부분을 문화부에서 출판과 문학 담당으로 근무했다. 기획한 책으로 『어느 가슴엔들 시가 꽃피지 않으랴』,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행복하였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가 있다.

책 속 한 문장

“시는 시인의 손을 떠나 읽는 이의 마음에 들어가면서 새로운 생명을 얻습니다. 마중기 시인은 이 시가 사랑 시로 읽히는 것에 대해 “시가 가지는 의미의 다양성이 다이나몬드처럼 시를 빛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 17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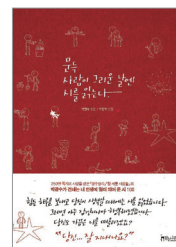
함께 읽으면 좋은 책



하루의 시
황인숙
2016



시를 잊은 그대에게
정재찬
2015



문득 사람이 그리운 날엔
시를 읽는다
박광수
2014

사서의 추천 글

인상주의를 대표하는 화가 클로드 모네(Claude Monet, 1840~1926). 그가 43년간 머물며 다수의 '수련' 연작을 완성한 프랑스 지베르니 마을을 배경으로 이야기가 펼쳐진다. 작지만 아름다운 이 마을에서 어느 날 살인사건이 발생한다. 파리 최고의 안과 의사이자 그림 수집가인 제롬 모르발이 시체로 발견된 것이다. 살인사건은 이 마을에 살고 있는 세 명의 여자와 얽혀있다. 그림에 천부적인 재능을 지닌 소녀, 아름답고 매혹적인 여교사, 그리고 그 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여든이 넘는 미망인, 나이드, 살아온 세대도 다르지만 모두 마을을 떠나길 원하는 이들과 살인사건은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 마을을 떠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한 폭의 멋진 그림을 보듯 아름다운 풍경 속 이야기에 넋을 놓고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생각지 못했던 반전과 맞닥뜨리게 된다. 영화 '식스센스'를 보고 작품을 구상하기 시작했다는 저자는 그 이상의 놀라움을 우리에게 선사한다. 회화, 문학, 미스터리가 절묘하게 조합되어 펼쳐지는 이야기의 매력은 마지막 장을 덮자마자 다시 첫 장을 펼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

저자 소개

미셸 뷔시(Michel Bussi) 1965년 프랑스 외르 주 루비에에서 태어났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추리 소설가이자 정치학자이며 루앙대학교 지리학과 교수이다. 2006년 첫 추리소설 『코드 뤼팽』을 필두로 발표하는 소설마다 많은 상을 받았다. 2012년 『그림자 소녀』를 출간하면서 언론의 주목과 함께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지푸라기 여자
카트린 아를레
2015



그림자 소녀
미셸 뷔시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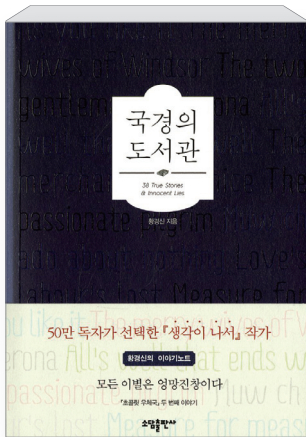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넬레 노이하우스
2011



미셸 뷔시 지음 | 최성웅 옮김
달콤한책 | 2015

책 속 한 문장

“세 명은 완전히 달랐지만 남몰래 같은 소망을 품고 있었다. 그건 이 마을을 떠나는 것이다. 다른 곳도 아닌 아름다운 지베르니를.” **14쪽**



황경신 지음
태일소담 | 2015

사서의 추천 글

기발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쓰여져 드라마로도 제작된 바 있는 황경신 작가의 2004년 작 『초콜릿 우체국』의 두 번째 이야기다. 현실과 환상의 경계에서 감각적이고 따뜻하게 이야기를 풀어낸 전작과 같이 이번에도 서툰여덟 편의 짧지만 인상적인 이야기를 담았다.

‘나’는 자신을 여행 중인 상태로 만들기 위한 사람들을 위해 여행을 대신해주는 사람이다. 거리의 우체통은 혼자고, 시간은 평평 남아돌고, 종일 서있고, 외롭다는 이유로 시를 쓴다. 또 다른 ‘나’는 『미완성 교향곡』을 작곡한 슈베르트를 불러내 함께 맥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눈다. 줄리엣은 독약을 마시기 전 눈을 뜨지 못할 가능성을 생각하며 유언을 남겼다. 셰익스피어는 매년 11월 11일 11시에 ‘국경의 도서관’에서 낭독회를 연다. 이처럼 작가는 사물을 의인화하고, 위인을 현재로 불러내며, 문학 작품 속 주인공을 작품 밖으로 끌어내는 등 특유의 엉뚱하고 재밌는 상상력으로 어른들을 위한 동화 같은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저자 소개

황경신 부산에서 태어나 연세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했다. 『나는 하나의 레몬에서 시작되었다』, 『그림 같은 세상』, 『모두에게 해피엔딩』, 『초콜릿 우체국』, 『세븐틴』, 『그림 같은 신화』, 『생각이 나서』, 『위로의 레시피』, 『눈을 감으면』, 『밤 열한 시』, 『반짝반짝 변주곡』, 『한입 꼬끼리』, 『나는 토끼처럼 귀를 기울이고 당신을 들었다』, 『슬프지만 안녕』 등의 책을 펴냈다.

책 속 한 문장

“도서관으로 가겠다는 마음을 먹자마자 문득 벽이 끝나고 문이 나타난다. 문은 육중하고 침착하게, 단호하고 부드럽게 열린다. 그리고 문 안쪽에,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거대한 도서관의 내부가 갑자기 모습을 드러낸다.”

■ 31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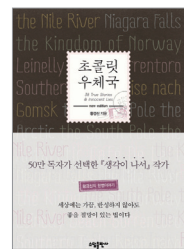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인용 식탁
윤교은
2010



차가운 밤에
에쿠니 가오리
2008



초콜릿 우체국
황경신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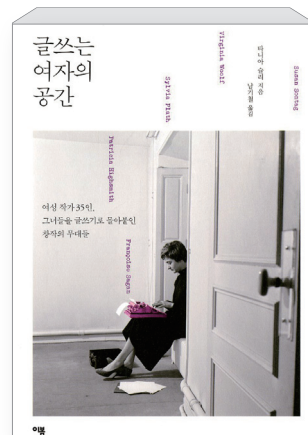
사서의 추천 글

작가에게 글을 쓰는 환경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작가가 사는 곳, 주변 풍경, 작업 공간, 책상 등 글을 쓸 당시의 모든 조건과 상황이 작가에게 영향을 준다. 때로는 영감을 주기도 하고 아예 작품을 탄생시키기도 한다.

부엌 테이블에 자신과 마찬가지로 작가인 두 동생, 에밀리, 앤과 함께 앉아 『제인 에어』를 썼던 ‘샬럿 브론테’, 정원 구석의 목재로 된 오두막 집필실에 홀로 앉아 『자기만의 방』을 썼던 ‘버지니아 울프’, 다리를 다쳐 누운 병상에서 예전에 딸에게 들려주었던 이야기를 글로 옮겨 『빼빼 롱스타킹』을 탄생시킨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등 여성 작가 서른다섯 명의 집필 공간을 엿볼 수 있다. 작가들의 글 쓰는 모습, 그리고 그 배경이 담긴 사진과 그림을 비롯하여 작가의 일기, 편지, 소설, 인터뷰 등은 집필 공간의 분위기를 더욱 생생하게 느끼도록 한다.

저자 소개

타니아 שלי(Tania Schlie) 1961년 독일 함부르크에서 태어나 함부르크와 파리에 문학과 정치학을 공부했다. 출판편집자로 수년간 일했고 현재는 작가, 자유기고가로 활동하고 있다. 2002년 첫 장편소설 『목걸이의 행적』을 발표한 이후 『엘사의 유산』, 『프로방스의 사랑』 등 꾸준히 소설을 써왔다. 동시에 여자를 주제로 한 미술 교양서 『바닷가의 여자들』, 『정원과 여자』, 『레저와 여자』 등을 출간했다.



타니아 שלי 지음 | 남기철 옮김
이봄 | 2016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작가들의 정원
재키 베넷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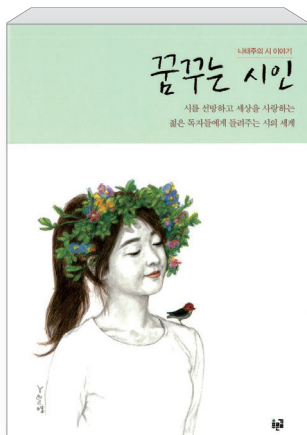
그 작가, 그 공간
최재봉
2013



작가의 방
박래부
2006

책 속 한 문장

“글을 쓰는 장소는 경우에 따라 피난처나 낙원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지옥이 되기도 한다. 어떤 책상에 앉으면 편안함을 느끼며 자신에게 물입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어딘가에선 자기 회의에 빠져 글을 쓰지 못하거나 자기 파괴적인 발작을 일으킬 수도 있다.” ■ 22쪽



나태주 지음
푸른길 | 2015

사서의 추천 글

시에는 사물에서부터 무형의 감정까지 매우 다양한 주제가 다루어지며, 사소하고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순간이 마치 영원처럼 담겨있다. 시는 다른 문학 장르와는 사뭇 다른 감동을 안겨주는 이유다. 정제된 시어들을 읽어가다 보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맑은 울림이 들려온다. 『꿈꾸는 시인』에서 나태주 시인은 이러한 감화력을 지닌 시의 모든 것을 풀어놓는다. 시인으로서 창작 경험과 다양한 시의 세계, 시 감상법에 이르기까지 두루 망라한 시 이야기다.

저자는 시를 창작할 때 다독과 더불어 좋은 마음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얕도 중요하지만, 시를 쓰게 하는 그리움, 사랑, 기다림, 측은지심의 마음이 시를 쓰게 한다는 것이다. 가까이 있는 소소한 것들의 아름다움에 눈뜨고, 소중한 것들을 탐색하며, 모든 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좋은 시로 숙성된다. 책에는 시 창작과 관련된 에세이 외에도 저자의 시, 근·현대작가들의 시, 한시, 하이쿠, 영미시 등 우리가 쉽게 접하지 못했던 명시들이 실려 있다. 시인이 담아내는 '정서의 그림자'가 어린 좋은 시를 감상할 수 있다. 우리는 왜 시를 읽어야 할까. 괴테의 말이다. "좋은 시란 어린이에게는 노래가 되고, 청년에게는 철학이 되고, 노인에게는 인생이 된다."(36쪽)

저자 소개

나태주 1945년 충남 서천에서 출생하였다. 초등학교 교사로 교단에 있으면서 1971년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대숲 아래서」란 작품으로 당선되었다. 그 후 지금까지 여러 권의 시집, 산문집, 동화집, 시화집, 여러 권의 시선집을 내고 2006년에는 시전집을 냈다. 2014년 그의 시 「꽃꽃」을 기념하여 공주에 공주꽃꽃문학관이 개관되고 꽃꽃문학상이 제정·시상되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꽃을 보듯 너를 본다
나태주
2015



나를 흔든 시 한줄
정재숙
2015



다시, 봄
장영희
2014

책 속 한 문장

“유치환, 「낙엽」
너의 추억을 나는 이렇게 쓸
고 있다.” ■ 222쪽

사서의 추천 글

헨리크 입센의 『인형의 집』을 연상시키는 이 소설은 각각의 이유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 세 여자가 여행을 통해 자신의 삶을 찾고 내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그렸다.

평범한 가정주부 마리는 첫사랑 레오와 결혼해 쌍둥이 딸을 낳고 기르며 20여 년을 살아왔다. 처음에는 나날이 성장하는 두 딸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행복했지만 그녀를 인형처럼 대하는 레오의 태도와 학업을 위해 집을 떠난 딸들의 부재는 그동안 잊고 지냈던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계기가 된다. 어릴 적부터 여행을 좋아해 세계 각지의 DVD를 소장하고 있지만 정작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녀는 처음으로 스스로를 위한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한다. 그렇게 떠난 ‘고독 속의 세계 일주’라는 크루즈 여행에서 40년을 사랑하며 함께했지만 진정 서로가 필요한 시기에 어긋나버려 아픔을 겪고 있는 60대 ‘안느’, 현재는 누가 봐도 매력적이지만 뚱뚱했던 과거의 기억으로 사랑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20대 ‘카밀’을 만난다.

프랑스 여성들의 소설 선호도 1위에 선정될 정도로 많은 여성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소설 곳곳에서 발견되는 프랑스 가수 장 자크 골드만의 한 편의 시와 같은 노래 가사가 작품에 매력을 더한다.

저자 소개

비르지니 그리말디(Virginie Grimaldi) 남프랑스 보르도 출신으로, 상업대학을 졸업하고 몇 년간 은행에서 일하다 어려서부터 꿈인 작가가 되기 위해 회사를 그만두고 글쓰기에 매진했다.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에 오른 처녀작 『남은 생의 첫날』로 에크리르 오페미닌 문학상을 수상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사자가 있는 라인 주점
델리아 에프론
2014



와일드
세릴 스트레이드
2012



인형의 집
헨리크 입센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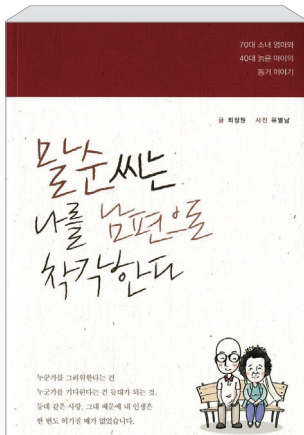
비르지니 그리말디 지음 | 이안 율김
열림원 | 2015

책 속 한 문장

“여행에서 얻은 것에는 그녀 자신도 포함되어 있었다. 딱딱한 껍질 속에 가둬 두었던 ‘마리’가 ‘마리’에 의해 재발견되고, 오래도록 밀쳐 두었던 자기 자신과 재회한 것이다.”

326쪽

말순씨는 나를 남편으로 착각한다



최정원 지음
베프북스 | 2015

사서의 추천 글

‘밤이 너무 캄캄해 슬프구만’이라는 시적인 표현을 하는 70대 소녀 엄마 말순씨와 40대 노총각 ‘늙은 아이’인 저자의 동거 이야기이다.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는 한 번도 어머니와 다툰 적이 없었다는 저자는 권태기에 접어든 부부처럼 어머니와 티격태격하며 13년을 지내왔다. 저자는 ‘말수 줄이기, 절대 잘못을 시인하지 않기, 집에서 술 마시기’ 등으로 남자1호(아버지)처럼 ‘나쁜 남자’ 캐릭터를 연기하면서도 밥 얻어먹을 권리를 잃지 않고, 말순씨는 ‘내 맴이여, 나는 싸가지가 닷 돈어치도 없는 놈이여, 장가 좀 가라.’ 등으로 응수하면서도 밥 먹일 권리를 놓지 않는다. 며칠째 하루 두 시간씩 외출했다 창고로 직행하는 말순씨. 도대체 뭐하고 다니는 거냐는 대화는 말다툼으로 끝나고, 저자는 말순씨의 비밀창고를 뒤져본다. 뜻밖의 물건이 항아리 안에서 숙성되고 있는데…….

눈물이 앞을 가리는 사모곡이라기보다는 어머니와의 일상을 담담하고 유머러스하게 풀어낸 책이다.

저자 소개

최정원 서울예술대학교 문예창작과를 졸업하고 5년 동안 잡지사 기자, 12년 동안 출판사 편집장과 주간으로 지냈다. 다수의 중앙일간지와 잡지에 칼럼을 썼고, 기자아카데미 및 공공기관에서 잡지기획, 출판기획 및 디자인 강의를 했다. 현재 출판기획자, 출판사 기획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책 속 한 문장

“곰곰 내 삶을 돌아보니 없는 게 너무 많았다. 아내도, 자녀도, 애인도, 직장도, 돈도, 명예도, 싸가지도, 심지어 머리카락도 없었다. 온통 없는 것 투성이었다. 서글펐고 울고 싶었다. (중략) 나에게도 있는 게 한 가지 있었다. 40여 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를 지켜주는 딱 한 사람, 바로 말순 씨.” ■ 18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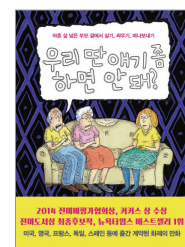
함께 읽으면 좋은 책



바다의 기별
김훈
2008



나는 어머니와 산다
한기호
2015



우리 딸 얘기 좀 하면 안 돼?
라즈 채스트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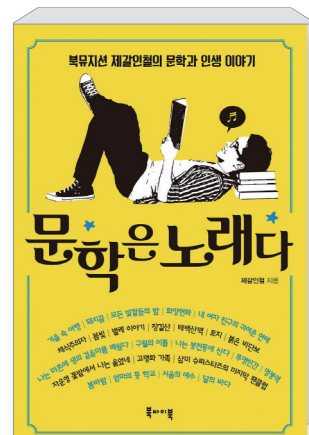
사서의 추천 글

문학을 노래로 만들어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북뮤지션’ 제갈인철의 독서 에세이다. 더불어 26편의 한국문학에 대한 뜨거운 애정 고백이기도 하다. 대학 신입생 시절 우연히 구입한 최인호의 『별들의 고향』을 읽고 문학에 빠져 들었다는 작가는 문학으로 우리 인생을 일으켜 세울 수 있다고 믿는 문학 신봉자다. 직접 경험하거나 들은 일화로 시작해 그와 관련된 작품을 소개하면서 우리 삶에 있어서 문학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를테면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는 미모지상주의 시대에 사랑의 처방전을 내려주고, 『채식주의자』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의 중요성을 알려준다. 『꽃피는 고래』는 상실의 경험을 극복하게 하고, 『고령화 가족』은 모두가 고개 숙인 시대에 유머를 던져 우리를 웃게 한다.

지금의 삶이 힘들어 문학을 멀리하기 쉽지만 우리 인생의 희로애락과 함께하며 힘을 주는 노래처럼 문학도 항상 우리를 향해 손 내밀고 있음을 깨닫게 하는 책이다.

저자 소개

제갈인철 문학이 인생을 구원한다고 믿는 문학 신봉자다. 2007년부터 소설을 노래로 표현하는 작업을 하여 지금까지 150여 곡을 창작했고, 500회 이상의 현장 공연을 통해 사람과 문학의 만남을 주선하고 있다. 직장생활과 공연 활동을 함께 하기에 스스로를 개짱이(개미+배짱이)라 부르며, 노동과 예술이 공존하는 인생을 실천하는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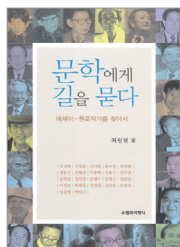


제갈인철 지음
북바이북 | 2015

함께 읽으면 좋은 책



문학의 맛과 향기
이동길, 남상권, 김원준,
김권동
2010



문학에게 길을 묻다
최원현
2008



문학의 숲을 거닐다
장영희
2005

책 속 한 문장

“사람은 이름을 남기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남긴다. 사람이 남기는 이야기, 그게 문학이다. 또한 사람이 남기는 소리, 그게 노래다. 문학이든 노래든 사람들이 살아낸 흔적이고,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존재 의미를 더욱 밝혀준다.” **6쪽**



김형수 지음
아시아 | 2015

사서의 추천 글

저자가 앞서 출간한 『삶은 언제 예술이 되는가』의 후속편이다. 전자가 ‘문학관’을 다뤘다면, 이 책에선 ‘창작관’을 말한다. 제목의 ‘어떻게’라는 단어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실제 창작 과정에서 부딪히는 문제들과 그 해결 방안을 이야기한다.

“글 쓰는 사람들은 담배를 많이 피우는데, 이게 문학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하는 질문을 서두로 창작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 조언한다. 이어서 창작의 첫 출발인 구상단계부터 마지막 집필단계까지 어떻게 작품을 끌고 가야 하는지 비법을 풀어놓는다. 그 다음에는 개괄과 집중, 미학적 성취, 낯설게 하기, 문학적 수사와 같은 작품의 세부 구성 요소들을 살펴보고, 창작이 끝난 뒤의 합평회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알아보면서 책을 마무리한다.

창작의 각 단계를 차근차근 짚어가며 일러주는 요점들은 예비 작가들이 더 좋은 작품을 쓰는 데 큰 보탬이 될 만하다. 더불어 문학작품의 탄생 과정에 관심 있는 일반 독자들에게도 쉬운 강의식 설명으로 창작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매력적인 책이다.

저자 소개

김형수 시인이자 소설가. 시집 『빗방울에 대한 추억』, 장편소설 『나의 트로트 시대』, 『조드-가난한 성자들』, 소설집 『이발소에 두고 온 시』, 평론집 『반응할 것인가 저항할 것인가』, 『삶은 언제 예술이 되는가』, 고은 시인과의 대담집 『두 세기의 달빛』 등의 저서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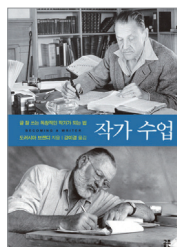
책 속 한 문장

“분명한 사실 중 하나는 독자가 눈물 한 방울을 떨어뜨린 자리는 반드시 작가가 피눈물을 흘렸던 지점이라는 겁니다. 작가가 체험 과정에서 피눈물을 흘렸던 자리가 바로 독자가 감동의 눈물을 떨어뜨린 자리예요.” **6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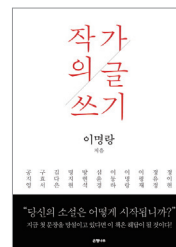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삶은 언제 예술이 되는가
김형수
2014



작가수업
도러시아 브랜드
2010



작가의 글쓰기
이명량
2015

사서의 추천 글

문학작품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작품이 탄생한 시대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막상 작품을 접하면서 그와 관련된 역사까지 확인하고 읽기란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다. 현대 소설을 전공했지만 문학 못지않게 역사에도 관심을 가진 저자는 이 책에서 소설의 간략한 줄거리 소개와 함께 소설의 배경을 살펴보고, 그 배경이 어떻게 소설로 형상화되었는지를 정리하여 독자들이 작품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세계를 여덟 개 지역으로 나누고, 서유럽에서 시작하여 아프리카를 지나 아메리카, 아시아를 거쳐 다시 유럽으로 돌아오는 순서로 스물두 나라 서른네 편의 소설을 다루고 있다. 시간적으로는 17세기 산업혁명에서 20세기 후반까지를 풀어나가며 책의 시작과 끝이 근대의 시작과 끝에 맞물리도록 하였다. 근대 소설의 출발이라 할 수 있는 영국의 『로빈슨 크루소』부터 21세기에 창작된 스웨덴의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까지 각 나라 각 시대의 모습을 반영한 대표적 소설을 통해 당대의 역사를 읽고, 당대의 역사를 통해 소설을 읽어 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김한식 지음
실천문학사 | 2015

저자 소개

김한식 충북 청원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다.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였고, 1997년에는 김명인의 시를 다룬 「여행과 빈집의 시학」으로 《작가세계》 신인평론상을 받았다. 이후 여러 대학의 강사·연구원을 거쳐 현재는 상명대학교 한국어문학과에서 문학을 가르치고 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소설가의 여행법
함정임
2012



소설의 시대
김한식
2010



소설의 발생
이언 와트
2009

책 속 한 문장

“소설을 통한 역사 읽기는 궁극적으로 다양한 인간을 만나는 일이라는 사실을 새삼 확인하게 되었다. 소설 속에서 내가 만난 역사는 사건의 기록이면서 동시에 한 시대를 살아간 다양한 인간성의 흔적이었다.” ■ 4쪽



아이작 아시모프 지음 |
최용준 옮김
열린책들 | 2015

사서의 추천 글

과학소설가 아이작 아시모프가 ‘조지와 아자젤 이야기’로 1980년부터 잡지에 연재한 단편 18편을 모아 발행한 책이다. 작품 속 화자인 조지가 주문을 통해 불러냈다고 주장하는 2센티미터 크기의 악마 아자젤과 조지의 주변 인물들 간에 벌어지는 사건이 주요 내용이다. 조지가 자기 주변 인물의 고민을 아자젤에게 말하고 해결해주길 부탁하면, 아자젤은 늘 툭툭거리면서도 소원을 들어준다. 재미있는 점은 조지가 바랐던 소원이 항상 이루어지지만 그 결과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이 엉뚱한 전개에서 작가의 기발함과 재치를 느낄 수 있다.

각각의 이야기는 아시모프와 조지가 처음과 끝에 대화를 나누고, 조지가 들려주는 아자젤과 관련된 사건이 중심을 이루는 액자 형식의 구성을 취하고 있다. 작가의 기존 소설이 미래와 우주를 배경으로 펼쳐졌다면, 『아자젤』은 당대의 인간 세계를 풍자라는 소스로 유머러스하게 버무려 냈다는 점에서 독특한 성격을 띠는 작품이다.

저자 소개

아이작 아시모프(Isaac Asimov) SF 소설계의 3대 거장으로 불리는 아시모프는 1920년 러시아 페트로비치에서 태어났다. 1992년 작고할 때까지 480여 권의 책을 내는 기념비적인 작가로 활동했다. 가장 유명한 작품으로, 총 일곱 편으로 구성된 『파운데이션』 시리즈를 비롯해 『강철 도시(The Caves of Steel)』, 『벌거벗은 태양(The Naked Sun)』 등의 로봇 시리즈를 들 수 있다.

책 속 한 문장

“아자젤은 키가 겨우 2센티미터이고 자기 세계에서는 그리 중요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그런 이유로 온갖 사소한 방식으로 기꺼이 저를 도우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면 자신이 중요한 존재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으니까요.”

■ 11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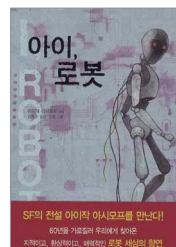
함께 읽으면 좋은 책



파운데이션
아이작 아시모프
2013



영원의 끝
아이작 아시모프
2012



아이, 로봇
아이작 아시모프
2008

사서의 추천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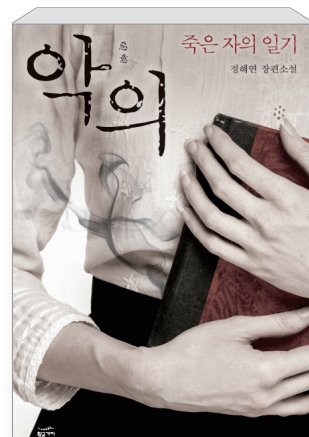
호화로운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한 가정주부가 추락사한다. 현장에 도착한 형사들은 사망자의 집에서 교살당한 또 다른 시신을 발견한다. 시신은 추락사한 주미란의 시어머니. 유일한 유족 강호성은 여당의 간판 정치 스타이다.

이 사건은 말기 암 환자인 주미란이 자신의 뒤에 남겨질 치매 어머니를 안타까워한 나머지 살해 후 자살한 것으로 급히 마무리된다. 베테랑 형사 서동현은 사건종료 후에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몰래 수사를 이어나간다. 주미란의 일기가 서동현에게 전달되고, 수사는 급물살을 타는 듯하다가 좌절된다. ‘어차피 법은, 그를 옳아 댈 수 없다’는 주미란의 일기내용처럼. 권력과 돈이 우선인 세상에서 좌절감을 느끼는 순간, 주미란의 복수라고 생각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추리소설로는 파격적이게도 도입부부터 범인이 누구인지, 살해 이유가 무엇인지 밝힌 채 시작하지만 수사 과정에 따라 유발되는 궁금증으로 흥미롭게 읽을 수 있다. 더럽고 추한 욕망을 가진 자들에 맞서서 정의를 지켜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벌이는 이야기가 반전을 거듭하면서 빠르고 긴장감 있게 전개된다.

저자 소개

정해연 스릴러 장르로는 장편소설 『더블』로 데뷔했고, 중국과 태국에 각각 번역·출간되었다. 2012년 대한민국스토리 공모대전에서 『백일청춘』으로 우수상을 수상했고, 저서로는 『우리 집에 왜 왔니』, 『카논 밤 그리고 봄의 햇살』 등이 있다.



정해연 지음
황금가지 | 2015

함께 읽으면 좋은 책



더블
정해연
2013



7년의 밤
정유정
2011



붉은 손가락
히가시노 게이고
2007

책 속 한 문장

“지켜야 할 세상이 있고 밝혀야 할 진실이 있다. 포기하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316쪽



김호연 지음
나무옆의자 | 2015

사서의 추천 글

『망원동 브라더스』의 저자 김호연의 두 번째 장편소설이다. 한 여자를 사랑했던 두 남자가 죽은 연인의 1주년 기일에 우연히 만나 그녀의 유골함을 들고 여행을 떠난다. 대체 어찌된 사연일까?

매사에 소심하고 비쩍 마른 ‘고민중’과 단순무식하고 건장한 체격의 ‘강병균’. 성격부터 외모까지 달라도 너무 다른 둘이지만 옛 연인을 답답한 납골당이 아닌 더 좋은 곳으로 보내주려는 생각 하나로 의기투합한다. 하지만 대책 없이 뭉친 이들의 여정이 순탄하게 흘러갈 리 없다. 서로 의심하고 경쟁하며 유골함을 혼자 소유하려다 깨뜨리기도 하고, 그녀가 생전에 좋아했던 장소로 보내주려던 계획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번번이 틀어진다. 하지만 티격태격하며 함께 여행하는 과정에서 둘은 점차 서로를 이해하고 묘한 동료 의식마저 갖게 된다. 그리고 죽은 그녀를 위해 ‘공동의 적’과 싸울 때는 최고의 호흡을 보여주며 활약한다. 작가 특유의 재기발랄한 문체로 유쾌한 웃음 속 가슴 찡한 공감을 담은 소설이다.

저자 소개

김호연 시나리오작가, 만화 기획자, 출판 편집자를 거쳐 2013년 장편소설 『망원동 브라더스』로 세계문학상 우수상을 수상하며 소설가로 데뷔했다. 『망원동 브라더스』는 이후 연극으로 무대에 올랐으며 현재 영화로 제작 중이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책 속 한 문장

“우리는 건배했다. 참으로 어리석었던 한 달 전 여정 이후 우리는 다시 뭉쳤다. 그리고 그녀를 위해 우리는 더 어리석어질 자신이 있었다.”

■ 249쪽



망원동 브라더스
김호연
2013



아내가 결혼했다
박현욱
2013



고령화 가족
천명관
2010

이케아 옷장에 갇힌 인도 고행자의 신기한 여행

사서의 추천 글

이 소설은 이케아 매장을 찾은 인도의 고행자 파텔의 이야기다. 파텔은 이케아 침대를 사기 위해 인도에서 프랑스 파리까지 오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다. 하지만 위조지폐 100유로를 지니고 와서 침대만 사고 바로 떠나려던 계획이 엇나가고, 우연히 숨어든 옷장에 갇히면서 기상천외한 여행을 시작하게 된다. 옷장 외에도 여행용 가방, 열기구 등 아주 특별한 운송수단에 몸을 싣고 프랑스,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리비아를 거치며 불법이민자들, 유명 여배우 등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 겪는 사건들이 흥미진진하게 그려진다. 세상은 사기꾼과 험잡꾼 천지이고 거대한 사냥터라고 믿었던 파텔이 여행을 계속하면서 타인과 마음을 나누고, 베푸는 삶의 가치를 아는 사람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흐뭇하다.

이 책은 저자가 실제 국경 담당 경찰로 근무하며 만난 밀입국자의 이야기를 토대로 썼다고 한다. 38세가 될 때까지 무려 31번의 이사를 다니고 DJ, 작곡가, 어학 교사, 통·번역가, 항공기 승무원, 서커스단 소속 마술사, 슬롯머신 청소원 등 여러 직업에 종사했던 저자는 자신이 겪었던 다양한 경험을 책 속 이곳저곳에 재미있게 녹여냈다.

저자 소개

로맹 뤼에르톨라(Romain Puértolas) 1975년 프랑스 남부 몽펠리에에서 태어났다. 스페인계 아버지와 프랑스계 어머니를 두었으며, 스페인 문학, 프랑스 문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데뷔작 『이케아 옷장에 갇힌 인도 고행자의 신기한 여행』은 2014년 질 베른상, 오디오립상, 비브르 리브르상을 수상했다.



로맹 뤼에르톨라 지음 | 양영란 옮김
밝은세상 |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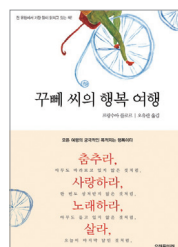
함께 읽으면 좋은 책



미리의 부실물센터
브룩 데이비스
2015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
요나스 요나손
2013



꾸삐 씨의 행복 여행
프랑수아 를로르
2004

책 속 한 문장

“최근 며칠 동안 경험한 여러 만남은 속임수로 남의 돈을 갈취하는 것보다 훨씬 득이 되는 일이 존재함을 그에게 가르쳐 주었다. 그 일이란 바로 남에게 돈을 주고 주변 사람들에게 선함을 베푸는 것이었다.” ■ 255쪽



최윤정 지음
바람의 아이들 | 2015

사서의 추천 글

번역가, 평론가, 출판 편집자, 기획자로 활동하고 있는 저자가 십여 년간 써 모은 글을 묶어낸 산문집이다. 크게 3부로 나누어지는데, 1부에서는 글 쓰고 책 만드는 사람으로서 겪어왔던 희로애락의 순간들, 그리고 충실한 독자로서 좋은 텍스트를 만났을 때의 감동과 설렘을 잔잔하게 썼다.

2부는 춤, 영화, 전시, 콘서트, 공연을 통해 느낀 감정들에 대한 기록이다. ‘좋은 영화를 보고나서 차오르는 말을 뱉어 내지 않으면 다른 것을 내 안에 잘 들이지 못한다’는 저자는 매혹적인 예술 작품에서 받았던 위로를 감정이 흩어지기 전에 글로 잘 기록해 놓았다. 3부에서는 유학차, 업무차 떠났던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묘사했는데, 경계선에 서서 중간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같은 듯 다른 듯한 문화 차이가 흥미롭다.

저자가 문학, 예술, 외국에서 느낀 상념들은 나직하면서도 묵직한 느낌으로 다가온다. 특히, 어린이 청소년 문학에 관심이 있는 독자라면 저자의 직업의식이 묻어나오는 진지한 고민에 깊은 공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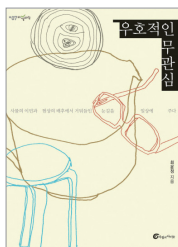
저자 소개

최윤정 연세대학교 불문과를 졸업하고 파리3대학에서 불문학 박사과정을 마쳤다. 저서로는 『책 밖의 어른 책 속의 아이』, 『슬픈 거인』, 『그림책』, 『우호적인 무관심』, 『책 밖의 작가』 등이 있고, 백여 권의 어린이·청소년 문학작품을 번역하였다. 2010년 프랑스 정부로부터 문화예술 공로 훈장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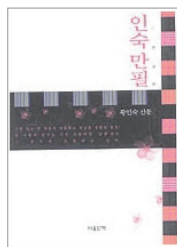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책 속 한 문장

“시가 밥 먹여 주지는 않지만 배고픔을 잊게 해 준다. 그림은 외로움을 달래 준다. 음악은 적막함을 덜어 준다. 그것들은 직업이 아닌 경우에 특별히 더 그렇다.” ■ 166쪽



우호적인 무관심
최윤정
2008



인숙만필
황인숙
2003



아직 설레는 일은 많다
하성란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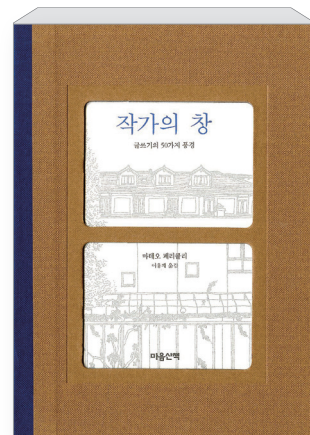
사서의 추천 글

우리는 풍경이 좋은 창가 자리에 앉는 것을 선호한다. 창 너머로 무엇을 보고 있고, 무엇을 보려고 하는 걸까?

저자는 2010년에서 2014년까지 세계 각지에 사는 작가들의 창밖 풍경을 그렸다. 그림에 딸린 글은 해당 작가가 직접 썼고, 이를 《뉴욕타임즈》와 《파리리뷰》에 연재했다. 선으로 묘사된 저자의 스케치와 언어로 묘사된 작가의 글이 어우러져 『작가의 창』이라는 재미있는 프로젝트가 완성되었다.

창밖을 그리 자주 내다보지 않거나, 일부러 창을 등지고 앉아 작업하는 작가도 여럿 있다. 하지만 이런 풍경이 집필에 방해거리만 되는 것은 아니다. 창밖의 모습을 보면서 상상력을 펼치기도 하고, 쓰던 글을 잠깐 멈추고 평화와 고요를 느끼며 안정을 찾기도 한다.

아프리카에서 아시아까지 전 세계 작가 50인의 창밖 풍경을 보면서, 글 쓴이와 그림이의 시선으로 본 풍경에 나의 눈으로 바라본 감상을 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마테오 페리콜리 지음 |
이용재 옮김
마음산책 | 2016

저자 소개

마테오 페리콜리(Matteo Pericoli)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태어나 건축을 전공했다. 건축사무소에서 일하면서, 그리고 쓰고 가르치는 등 건축의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며 활동했다. 현재 토리노 공과대학에서 초빙 교수로 지내며 컬럼비아대학교의 방문프로그램 '문예건축연구소'를 맡아 가르치고 있다. 『창밖 뉴욕』, 『어린이를 위한 런던』, 『사라진 그림』 등의 저서가 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창밖 뉴욕
마테오 페리콜리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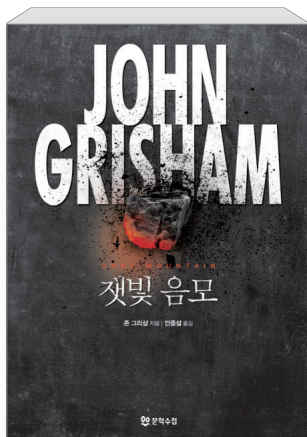
서울의 시간을 그린다
이장희
2013



작가의 집
프란체스카 프레올리 드롤레
2013

책 속 한 문장

“어떤 창문은 몽상을 위한 탈출구지만 어떤 창문은 함께 하는 친구다.” ■ 156쪽



존 그리샴 지음 | 안종설 옮김
문학수첩 | 2015

사서의 추천 글

거액의 연봉과 눈부신 미래가 보장되던 대형로펌의 변호사인 서맨사. 리먼 사태로 금융 위기가 닥치자 하루아침에 정리해고를 당한다. 회사와의 무급 계약관계가 1년 동안 유지되는 ‘일시 해고’라는 것이 배려라면 배려일까? 단, 그나마도 비영리 단체에서 무급 인턴으로 일하는 것이 조건이다. 뉴욕커 서맨사가 버지니아주 브래디의 마운틴 법률 구조 클리닉으로 흘러들어가게 된 이유이다.

서맨사는 이익을 위해서라면 자연과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짓밟고 은폐하는 석탄회사와의 싸움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엮여들어 가게 된다. 합법적인 듯 범법행위를 하는 거대 재벌에 똑같은 방법으로 맞서려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긴장감은 더해진다.

존 그리샴의 소설답게 막대한 자본과 권력을 가진 거대 기업과의 힘겨운 소송과 힘없는 사람들의 작지만 절실한 소송 건들이 교차적으로 서술되며 짜임새 있게 진행된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지는 않지만, 현실감 있고 지루하지 않게 이야기가 이어지므로 책장을 술술 넘길 수 있다.

저자 소개

존 그리샴(John Grisham) 미시시피 법대를 졸업한 뒤 사우스헤븐 법률사무소에서 10년간 근무하며 범죄 변호와 개인 상해 소송을 전담하였고, 주 의회 하원의원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1989년 첫 장편소설 『타임 투 킬』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장편소설 27권, 논픽션 1권, 단편집 1권, 청소년 소설 4권을 출간했으며, 해마다 한 작품씩 꾸준히 발표해오고 있다.

책 속 한 문장

“서맨사, 우리가 모든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아니야. 적은 너무 크고 강하니까. 우리는 한 번에 하나씩, 야금야금 승리를 쌓아가며 우리 의뢰인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는 쪽에 희망을 걸 수밖에 없어.” **257쪽**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속죄나무, 1-2
존 그리샴
2014



링컨 차를 타는 변호사
마이클 코넬리
2015



소수의견
손아람
2010

사서의 추천 글

저자 정민 교수는 미국 하버드 대학교 엔칭연구소에 방문학자로 1년간 머물렀다. 엔칭도서관에서 고서들을 연구하며 떠오른 이런저런 단상들을 묶어 책으로 펴냈다.

미국 도서관의 열람실에서 책을 넘기다가 발견한 작은 사물, 표시, 내용들이 이야기 거리다. 책갈피에 눌린 채 붙어 있는 청나라 때 모기를 발견하고는 다산 선생의 「모기를 증오함 (憎蚊)」이란 시를 떠올리는 생각의 흐름이 자연스러우면서도 재미있다.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의 장서인에 대한 비교나 고서 속 은행잎에 대한 이야기도 흥미롭다.

예로부터 책벌레들은 메모광이기도 했다. 책 속에 꽃혀 있는 메모지나 책의 여백에 적어놓은 메모에서 과거 책 소유자의 깨달음, 통찰, 학술적 맥락 등을 살펴볼 수 있다. 그냥 두면 지워질 것들이 기록과 만나 생생하게 되살아난다.

간결한 글과 쉬운 번역, 이해를 돕는 사진은 고서와 옛글이라는 버거울 수 있는 소재를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저자 소개

정민 한양대 국문과 교수. 연암 박지원의 산문을 꼼꼼히 읽어 『비슷한 것은 가짜다』와 『고전문장론과 연암 박지원』을 펴냈다. 『18세기 조선 지식인의 발견』과 『다산선생 지식경영법』, 『18세기 한중 지식인의 문예공화국』, 『미쳐야 미친다』, 『오직 독서뿐』 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지훈국학상, 월봉저작상, 우호인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18세기 한중 지식인의
문예공화국
정민
2014



쓰레기 고서들의 반란
장유승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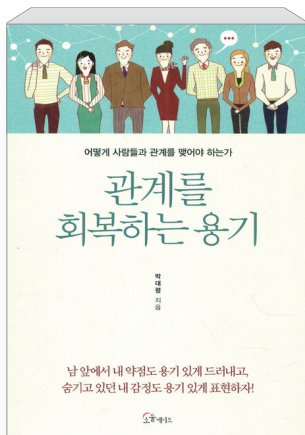
책만 보는 바보
안소영
2005



정민 지음
문학동네 | 2015

책 속 한 문장

“사소한 관찰과 메모에서 공부 시작된다. 조각의 정보가 하나의 체계를 갖춘 정보로 발전하려면 긴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 퍼즐 조각이 꽤 모여 전체 상이 드러날 때까지는 인내와 집중이 요구된다.” ■ 191쪽



박대령 지음
소울메이트 | 2015

사서의 추천 글

흔히 사람들은 자신이 겪고 있는 심리적 스트레스에 대해 걱정한다. 대부분의 스트레스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스트레스의 외부요인 중 하나로 사회적 관계를 든다. 대인관계가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인 셈이다. 이 책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았거나 괴로워했던 이들이 타인과 원활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심리학적 실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마음의 상처를 바라보고 보살피기

저자는 원만한 사회적 관계를 맺기 위하여 자신의 마음의 상처를 바라보고 보살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누군가에게 자신의 아픈 마음을 털어놓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쉬워진다. 대화 과정에서 자신의 사연과 관련된 감정이 솟아오르면서 감정을 충분히 느끼고 그것들을 따라가다 보면 신기하게도 그 감정들이 해소가 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마음도 많이 아파본 사람이 더 여유롭고 삶과 사람에 대한 포용력이 늘어간다.’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 저자는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닌 마라톤’이라고 말한다. 넓은 관점에서 치유의 과정은 성장을 위한 자양분이 될 수 있다. 스스로를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대인관계에서도 적절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고 나를 소외시키지 않으면서도 상대방과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다.

나 자신으로 살아간다는 것

현대 사회는 자기 본성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맞춰 살아가기를 요구한다. 그렇게 살다보면 어느새 나는 사라지고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가면 을 쓴 ‘나’만 남게 된다. 남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살아가는 삶은 결코 행복하지 않다. 오히려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저자는 자존감을 가지고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자신이 원하는 감정과 욕구를 파악하고 하나씩 실천하다보면 온전한 ‘나’를 만날 수 있다.

‘행복한 삶을 단순하게 표현한다면 긴장이 풀어져서 여유로운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이완된 상태에서는 편안함과 즐거움, 만족감이 더 많이 느껴지고 그 순간 우리는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앞에서 생각은 긴장을 유발하고, 여기서 벗어나려면 감각에 머물러야 한다고 설명했는데 사람들이 취미나 여가생활을 하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핵심요소가 이 감각체험이다.’

저자는 관계 회복을 위해 마음 성장을 위한 여가와 취미생활을 권유한다. 이 외에도 자신을 이해하는 법, 다양한 경험으로 마음을 치유하고 새로운 기회를 얻는 법, 자신감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신체이완법과 이미지 트레이닝 등을 소개하면서 원활한 대인 관계를 위한 해법을 제시한다. 자신의 약점도 용기 있게 드러내고 숨기고 있던 감정도 용기 있게 표현하는 것. 그것이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다. 매일 아침, 저자의 말을 떠올리며 내면의 자아와 조우해볼 것을 권해본다.

‘당신은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저자 소개

박대령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에서 임상심리학을 전공했고, 경기도립병원 의정부의료원 정신과에서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수련을 받았으며,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에서 알코올 의존자 재활치료를 담당해 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 일하기도 했다. 그 후 여러 심리상담센터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현재는 사회불안 자조모임인 이아당(이미 아름다운 당신)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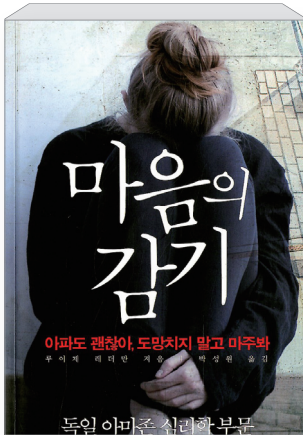
우리, 행복해질 권리
류미나
2015



용서가 있는 삶
딕 티비츠
2015



자존감의 여섯 기둥
너새니얼 브랜든
2015



루이제 레더만 지음 | 박성원 옮김
울리시즈 | 2015

사서의 추천 글

트라우마 전문가인 루이제 레더만이 수년간 환자들과 함께 경험하고 배운 것을 책에 담았다.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지식과 질문, 의혹과 경험에 대한 시험을 토대로 다양한 문제의 치유와 연습법을 제시한다.

일반적인 감기와 마찬가지로 ‘마음의 감기’를 치유하는 데에도 중요한 것은 병에 대한 면역력과 자가 치유력을 기르는 것이다. 저자는 우리가 누구나 ‘마음의 회복력’과 ‘자기치유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한다. 그리고 이런 능력은 후천적인 연습을 통해서 더 강화할 수 있다.

저자는 일상 속에서 자기 생각의 틀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연습법을 실천하여 마음의 평안을 얻도록 주문한다.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떨치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주는 책이다.

저자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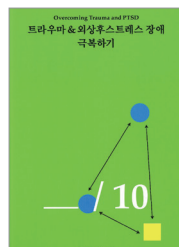
루이제 레더만(Luise Reddemann) 의학박사, 정신과 전문의이다. 특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트라우마 치료 전문가로서 명성이 높다. 1985년부터 2003년까지 독일 빌레펠트 소재 요하네스기독병원 산하 심리치료 및 심신의학 클리닉을 진두지휘하며 트라우마 장애로 고통을 겪는 많은 이들을 치료했다. 첫 저작인 『마음의 감기』는 테스트를 거친 책으로 출간 후 베스트셀러로 사랑받고 있다. 이후 집필한 책 『정신 역학적 트라우마 치료: PITT』, 『존엄: 심리치료에서 잊힌 가치로의 접근』, 『전쟁 후 아이들의 심리치료』 등이 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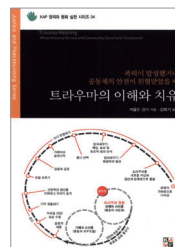
책 속 한 문장

“그늘지지 않은 초연한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가슴속에 고독함을 지녀야 한다.”

■ 219쪽



트라우마 &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극복하기
실라 라자
2015



트라우마의 이해와 치유
캐롤린 요더
2014



트라우마 탈출 8가지 열쇠
바베트 로스차일드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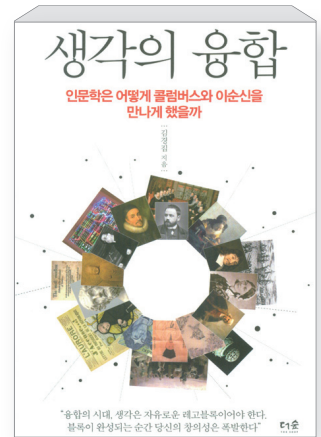
사서의 추천 글

저자는 아들의 서츠에 적힌 '1492MILES'라는 글자에 주목하면서 인문학 여행을 시작한다. '1492'라는 숫자에 반사적으로 콜럼버스의 아메리카대륙 발견을 떠올리며, 1592년 조일전쟁에서 활약한 이순신 장군으로 생각이 옮겨간다. 100년이라는 시간적 간격, 서양과 동양이라는 공간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역사의 순간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된다.

렘브란트와 거스 히딩크와의 교차점, 한국의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과 프랑스 드레퓔스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같은 듯 다른 역사의 장면들 속에서 시간과 공간, 다양한 분야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기존에 알고 있었던 단편적 지식들의 연결고리를 찾는다. 변화하는 세상에서 새로운 미래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문학의 역할이며 '생각의 융합'이라는 저자의 생각이다.

저자 소개

김경집 서강대학교 영문과와 동대학원 철학과를 졸업하고 가톨릭대학교 인간학 교육원에서 인간학과 영성과정을 가르치며 아카데미 인문학의 길을 걸어왔다. 여러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끊임없는 글과 강연은 인문학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접근방식을 전환시키기 위한 그의 작지만 강한 실천방식이다. 『책탐』으로 2010년 한국출판평론상을 수상했고, 『생각의 인프라에 투자하라』, 『눈먼 종교를 위한 인문학』, 『마흔 이후, 이제야 알게 된 것들』 등이 문화관광부 우수도서로 뽑혔다.



김경집 지음
더숲 | 2015

함께 읽으면 좋은 책



궁극의 인문학
전병근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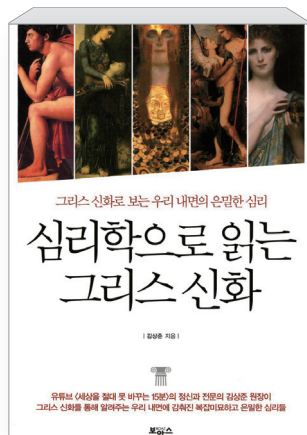
에디톨로지
김정운
2014



융합하면 미래가 보인다
이인식
2014

책 속 한 문장

“인문학이란 ‘내가 묻는 것’에서 출발해서 ‘물었던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그저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얻어 교양을 쌓고 고상해지는 게 전부 아니다. 가뜰이나 우리는 배운 것, 쓰인 것만 따르는 데 익숙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 급급하다. 그건 ‘나의 것’이 아니다.” ■ 470쪽



김상준 지음
보아스 | 2016

사서의 추천 글

이 책은 그리스 신화 속 인물들의 자기변호로 시작한다. 익숙한 내용인 듯싶지만 질문은 도발적이다. 판도라는 정말로 인간에게 절망을 안겨준 나쁜 여자인가? 사랑을 위해 가족을 배신한 메데이아는 정말 희대의 악녀인가? 프시케는 에로스를 못 믿어서 시련을 겪게 된 것일까? 이처럼 다양한 그리스 신화 속 인물의 진실을 파헤치며, 그들의 심리를 분석한다. 그들이 왜 그런 행동을 했고, 오해를 받았는지 심리학적으로 해석하며 흥미를 이끌어낸다. 우월감, 보상심리, 집착, 사랑, 탐욕 등 우리 각자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감정을 들여다본다.

그리스 신화 속 인물들을 거울삼아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조언해준다. 그리스 신화의 신들이 인간과 많이 닮았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은 우리의 공감을 얻을 수 있고 비교의 대상도 된다. 그리스 신화를 통해 우리 안에 숨겨진 마음의 비밀을 엿보고 싶은 독자라면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책이다.

저자 소개

김상준 신경정신과 전문의. 2012년 8월부터 유튜브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이란 강의를 통해 구독자들의 마음을 위로한다. 저서로는 『위로받을 시간』, 『프로이트와 영화를 본다면』 등이 있다.

책 속 한 문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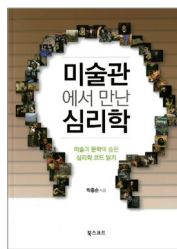
“인간이 자신의 잘못된 점을 돌아보는 시기는 마음이 안정되고 편안할 때가 아니다. 대개 우울하고 불안하거나 인생이 권태로울 때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게 된다.”

■ 51쪽

함께 읽으면 좋은 책



하룻밤에 읽는 그리스 신화
이경덕
2013



미술관에서 만난 심리학
박흥순
2015



처음 시작하는 심리학
조영은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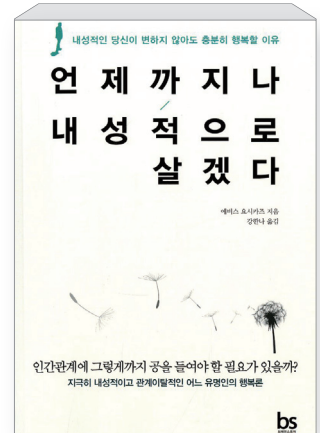
사서의 추천 글

자기소개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한 문장이 있다. ‘저는 외향적인 성격으로 주변사람들과 쉽게 어울릴 수 있으며...’ 그런데 과연 외향적인 것이 좋은 것일까? 당신도 내성적인 성격은 외향적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내성적인 성격의 사람들은 우유부단하고 비사회적이며 열정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작가는 외향적 성향을 강요하는 사회가 나쁘다고 얘기하거나 자기중심적으로 살아도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저 내성적인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며 타인의 시선이나 인간관계에 묶여 ‘자유’라는 인간의 권리를 놓치고 있다고 말한다. 무리 속에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대신 본인의 의지와 생각이 반영된 자유로운 삶, 혼자여도 즐거운 삶을 추구하는 작가의 글을 통해 지금까지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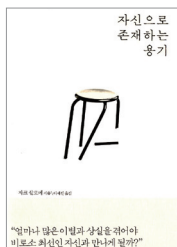
저자 소개

에비스 요시카즈(蛭子能收) 1947년 10월 21일 나가사키현에서 태어났다. 나가사키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간판 그리기, 재활용 종이 교환, 청소용품 배달 등의 일을 하다가 33세라는 늦은 나이에 만화가로 등단한다. 현재 일본에서 배우 및 탤런트로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만화 『에비스 요시카즈 컬렉션』, 에세이 『이런 나조차 일을 하고 있다』, 『서툴지만 잘하는 사랑』, 『솔직한 에비스』 등이 있다.



에비스 요시카즈 지음 |
강한나 옮김
bs(브레인스토어) | 2015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자신으로 존재하는 용기
자크 살로메
2015



아프지 않다는 거짓말
가이 원치
2015



콰이어트
수전 케인
2012

책 속 한 문장

“사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타인과의 차이점에 대응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요즘 시대는 ‘특별한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 다른 사람과 확연히 달라야 한다.’고 하는 어딘지 모를 강박관념 같은 것이 강하게 존재하는 느낌이 든다.” ■ 66쪽



김경일 지음
진성북스 | 2015

사서의 추천 글

우리는 모두 성공하고 싶어 한다. 또한 우리는 누군가의 리더가 될 수 있다. 이 책은 빠르게 변화하는 21세기에 새로운 리더십 개발을 위한 조언서다. 저자는 조직문화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들을 인지심리학의 관점에서 설득력 있고 흥미롭게 다루었다. 더불어 리더와 팔로어의 심리에 대한 다양한 연구 결과를 소개한다. 이상적인 리더의 모습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재미있게 설명한다. 왜 리더는 직원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고, 반대로 직원은 리더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까? 저자는 가장 기본적인 '생각의 원리'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해하지 못해서라고 본다. 끊임없는 소통과 공감을 통해서 직원의 마음을 먼저 얻는 것이 리더의 우선적인 덕목이라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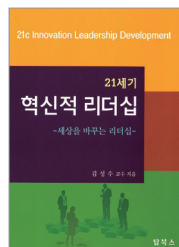
저자 소개

김영일 고려대학교 심리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한 후, 미국 텍사스 주립대학교 University of Texas-Austin 심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인지심리학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아트 마크먼 교수의 지도하에 인간의 판단, 의사결정, 문제해결 그리고 창의성에 관해 연구했다. 2015년 매경 MBA 포럼에서 역대 최고의 강의로도 선정된 바 있다. 저서로는 『지혜의 심리학』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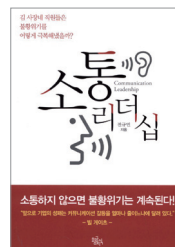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책 속 한 문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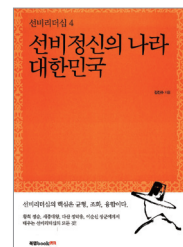
“소중한 사람들과는 일단 수다를 떨어 줘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과는 기쁨과 슬픔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 259쪽



(21세기) 혁신적 리더십
김성수
2015



소통리더십
전규민
2015



선비정신의 나라 대한민국
김진수
2015

일곱명의 심리학 친구

사서의 추천 글

나이는 먹고 덩치는 커졌지만 아직 아무런 준비 없이 세상에 떠밀려 나온 ‘어른아이’들이 많은 시대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 심리적 지원군이 있는 사람은 인생의 실패나 역경 뒤에 오는 좌절과 상실감을 극복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는데 저자는 이런 강력한 힘을 갖게 하는 일곱 친구를 소개하고 있다. 세상을 바라보는 프레임을 만들어주는 엄마, 진정한 독립, 좋아하는 일, 미모가 아닌 자신도 사랑할 줄 아는 스타일, 나와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친구,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나의 감정, 그리고 지금 그대로도 충분히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나 자신이라는 친구이다.

자라면서 충족되지 않는 결핍을 가진 여성이라면 이제라도 이러한 친구들과 사귀어 세상의 외로움과 비난에서도 나를 지켜주는 든든한 심리적 지원군을 만들어 보자.

저자 소개

이정현 1997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세브란스 병원정신과 레지던트 과정을 수료했다. AED(ACADEMY FOREATING DISORDERS:국제공인섭식장애학회) 정회원, 국제EMDR협회 공인 치료사이자 연세대학교 의대 정신과 외래교수로 활동 중이며, 거식증, 폭식증 등 식이장애를 겪고 있는 많은 여성의 고민과 애환을 함께 나누고 있다. 저서로는 『심리학, 열일곱살을 부탁해』 『힐링 루키즈 심리학 외모를 부탁해!』 번역서로는 『우리 아이가 식이장애라면』 『섭식장애를 위한 강화-인지행동치료』가 있다.



이정현 지음
센추리원 | 2015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아버지의 딸
이우경
2015



변하지 않아도 괜찮아,
기운내
도인중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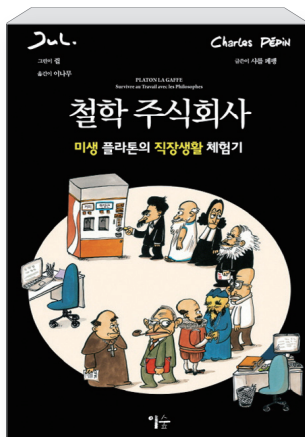


딸에게 보내는 심리학 편지
한성희
2013

책 속 한 문장

“무엇인가 상실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충분이 애도할 시간이다. 시간에 쫓기고 먹고사는 일에 쫓기더라도, 슬프고 애통하고 비통한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고 주위 사람들과 무엇을 나눠야 할지 몰라 두렵더라도 생각해서 안 되는 과정이다.”

■ 268쪽



샤를 페팽 지음 | 철 그림 |
이나무 옮김
이숲 | 2015

사서의 추천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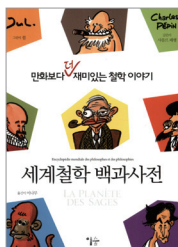
대학 졸업예정자 플라톤이 인턴으로 취직한 《코기톱》은 저명한 철학자들이 직장인으로 변신해 근무를 하고 있는 곳이다. 플라톤은 회사를 견학하면서 다른 철학자들의 업무를 관찰하고 상사들에서 지시를 받으면서 직장생활을 배워간다.

《코기톱》의 직원들은 각자의 사상과 연관된 직위로 근무하고 있다. 영업 1과, 2과 부장인 루소와 볼테르는 업무상 혹은 사상적인 양속으로 서로 다룬다. 보안감시실장 푸코는 직원들을 화장실까지 감시한다. 플라톤이 복사기에 걸린 종이를 빼낼 때 소크라테스는 그의 산파술을 시연하듯이 종이를 말로 달래서 나오게 하라고 조언하고 이를 지켜보던 니체는 복사기를 발로 차서 종이를 빼낸다. 미숙한 플라톤은 하는 일마다 실수를 남발한다. 소크라테스에게 커피대신 독당근을 주기도 하고 마르크스의 전단지를 사채해 버리고 중국과의 중요한 계약서를 망가트린다. 사장인 신은 면담은커녕 목소리조차 듣기 힘든 존재다. 이 책은 직장인이 된 철학자들의 우스꽝스러운 에피소드를 보여주면서 그들의 사상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한다. 여기에 만화가 철의 개성있는 그림이 더해져 독자들이 유쾌한 시트콤을 보듯이 가벼운 마음으로 철학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저자 소개

샤를 페팽(Charles Pépin) 국립 레지옹 도뇌르 고등학교와 파리 정치대학에서 철학을 강의하고 있다. 프랑스 공영 TV 방송에서 〈문화와 종속〉이라는 철학 전문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철학 관련 프로그램 패널로 활동했다. 현재 《전향과 심리학》, 《철학 매거진》 등의 잡지에 글을 연재하고 철학, 형이상학, 윤리학 분야에서 독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저서에 소설 『하강』, 『부정한 여인들』, 철학서 『철학과 함께한 일주일』, 『철학자들의 정신 분석』, 『권력을 소유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아름다움이 우리를 구원할 때』, 『세계철학 백과사전』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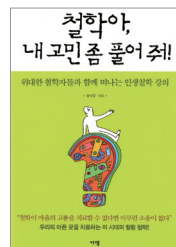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세계철학 백과사전
샤를 페팽
2012



플라톤의 삶의 철학
윤영돈, 최순옥
2015



철학아, 내 고민 좀 풀어줘
황상규
2015

책 속 한 문장

“저는 늘 패배하더라도 옳다고 믿는 바를 위해 싸우는 용기를 높이 평가해 왔으니까요.” ■ 86쪽

사서의 추천 글

이 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어떠한 상황에서 태동했는지를 밝히기 위해 탐구하고 분석하였다. 헝가리 출신의 철학자 아그네스 헬러는 인류학적, 사회적, 심리적, 종교적, 종족, 인종적, 성(性), 계급, 여성 등의 관점에서 본 편견의 조건을 분석대상으로 탐구한다. 전통적인 사회에서 일어났던 것과 전혀 다른 새로운 유형의 사회적 변화가 활발하게 시작한 근대 이르러 왜 ‘편견’이 생겨났는가를 조명한다. 18세기 계몽주의 이후 근대사회의 시장과 분배, 과학기술발달, 정치 등의 근대 구성은 과거와 다르게 사회와 개인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낳고 이는 편견의 탄생 조건이 된다.

철학자 게오르크 가다머는 우리는 모두 편견을 갖고 있으며 편견 없이 살거나 행동할 수 없다고 했다. 편견은 인간 생활의 불가피한 조건이다. 하지만 헬러는 수많은 사회적 정체성들이 편견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나 편견을 이겨 나가는 방법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편견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켜주는 동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되돌아보게 해주는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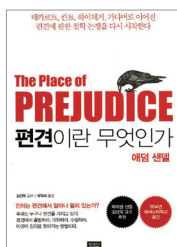


아그네스 헬러 지음 | 서정일 옮김
이론과실천 | 2015

저자 소개

아그네스 헬러(Agnes Heller) 1929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태어났다. 1963년 오스트레일리아 사회학 교수를 역임하고, 1986년부터 한나 아렌트의 후임으로 뉴욕에서 '사회연구를 위한 뉴스쿨'에 재직하였다. 헬러는 독일 함부르크 시에서 수여하는 레싱 상, 2010년 괴테 상, 2011년에는 헝가리 사회당이 수여하는 정치활동상 등을 수상하였다. 저서로는 『역사이론』, 『개인과 공동체』, 『르네상스 인간』, 『정의를 넘어』 등이 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편견이란 무엇인가
아도르노
2015



3명 고물상의 기억
이석수
2013



편견, 생각에 좌표를 찍다
뤼치우루웨이
2011

책 속 한 문장

“사람들이 희구하는 아름다운 사회는 우리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미래이다.” ■ 73쪽



김진세 지음
샘터 | 2015

사서의 추천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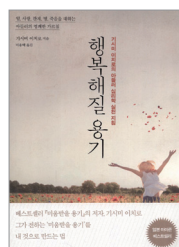
우리는 본능적으로 행복을 추구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 책은 정신과 의사인 저자가 의사 박경철, 개그맨 김미화, 소설가 베르나르 베르베르, 산악인 엄홍길, 가수 이소은 등 15인의 긍정 아이콘들과의 인터뷰를 모았다. 이들이 어떻게 자기 안의 강점들을 찾고 벽을 넘어 별이 되었는지를 제시한다.

인터뷰이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행복의 비결은 긍정의 힘이다. 미국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인 이소은의 긍정의 힘은 설렘이고, 배우 김여진의 균형이 긍정의 힘이라고 말한다. 아나운서 윤영미에게는 실행력이라는 긍정의 힘이고, 소설가 베르나르 베르베르에게는 ‘즐기는 삶’이라는 긍정의 힘이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좌절과 아픔을 다 극복할 수는 없다. 하지만 긍정의 힘은 저마다의 결핍을 극복하고 행복을 향해 나아가도록 해주는 동력이다. 저자는 결핍도 때론 힘이 된다고 말한다. 그것이 긍정의 힘이다. 작은 행복도 더 큰 행복을 만들 수 있는 방도를 알려주면서, 동시에 긍정의 힘에 대한 깊은 공감을 자아내는 책이다.

저자 소개

김진세 글 쓰는 정신과 의사이자 행복을 연구하는 해피올로지스트(Happiologist), 긍정의 심리학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 명사를 만나 ‘행복’을 주제로 인터뷰했다. ‘행복연구소 해피언스’를 통해 행복 찾기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저서는 『심리학 초코릿』, 『스타트 신드롬』, 『애틀티즈』가 있다. 역서로 『뜨겁게 사랑하거나 쿨하게 떠나거나』가 있다. 『이코노믹 리뷰』에 전문가 칼럼 ‘행복은 과학이다’를 연재 중이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행복해질 용기
기시미 이치로
2015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오연호
2015



오늘 행복을 쓰다
김정민
2015

책 속 한 문장

“세상은 비디오 게임이나 만화가 아니다. 노력하지 않는 자와 게으른 자에게 미래는 없다.” ■ 195쪽

사서의 추천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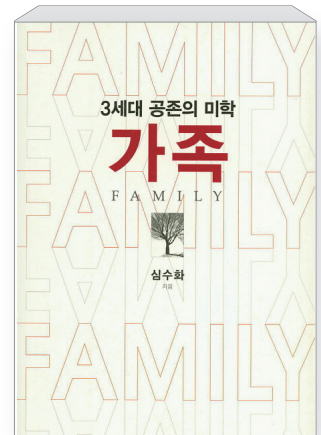
30여 년 넘게 기자생활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변화상을 일선 취재현장에서 몸으로 느끼며 살아온 저자가 가족해체의 근본적인 원인과 현상, 가족통합을 위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인간의 온갖 지혜가 녹아 있는 가족이라는 제도는 앞으로도 영원히 소중하게 지켜나가야 할 보석 중의 보석이다. 그런데 가족이 최근 들어 급속히 무너지고 있다. 산업화로 인한 농촌인구의 도시 집중현상이 심화되면서 1970년대부터 주택난 해결의 새 모델로 자리잡은 아파트의 구조와 자녀 분가 등이 가족해체의 시발점이 되었다. 저자는 이 책에서 가정과 가족의 중요한 축이었으나 지금은 외면당하고 있는 노인(어른)의 위상과 가치, 존재를 되찾는 데서 해결책을 찾고 있다.

저자는 ‘지혜의 보고’이자 ‘인생의 현자’인 노인의 정체성을 확실히 인정해 주고 그들을 제대로 대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면 가족들이 다시 바로서고 우리시대 최대의 난제인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함으로써 활력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한다. 100세 시대를 앞둔 우리에게 가족과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책이다.

저자 소개

심수화 1983년 경남신문 공채 수습기자로 언론계에 입문한 뒤 1988년 연합뉴스(당시 연합뉴스)로 옮겨 부산과 경남에서 경찰, 세관·항만·수산, 법조, 정치, 경제, 행정 등의 분야에서 취재활동을 펼쳤다. 2015년 3월부터 연합뉴스 마케팅 상무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심수화 지음
효민디앤피 | 2015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세상에 이런 가족
김별
2015



(변화하는 사회의)
가족학
한국가족상담교육연구소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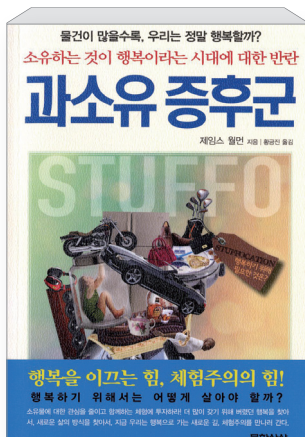


가족이라는 병
시모주 아키코
2015

책 속 한 문장

“세상에는 평생을 ‘답살 부부’로 사는 금실 좋은 부부들은 많다. 그들 부부의 공통점은 각자의 삶과 의견을 함께 고민하고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이다.”

■ 168쪽



제임스 월먼 지음 | 황금진 옮김
문학사상 | 2015

사서의 추천 글

사람들이 흔히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은 돈, 좋은 집, 비싼 자동차, 명품 브랜드 등 물질적인 기준을 먼저 떠올린다.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성공한 삶, 행복한 삶을 산다고 여기는 것이다.

20세기 이후 기술발전으로 과잉생산이 이루어지면서 정부와 기업에서는 소비를 부추겼고, 그 결과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과잉소비시대를 맞이했다. 사람들은 더 많은 물건, 더 좋은 물건들을 소유하는 것이 성공이자 행복이라고 생각했고, 세계 곳곳에 물질만능주의 소비문화가 조성되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충분한 ‘물질’을 가져도 행복하지 않았다. 오히려 공허했고, 우울했다. 왜 그럴까?

저자는 불필요한 물건을 너무 많이 소유하고 있는 상태를 ‘과소유’라 정의하고 과소유에서 나타나는 우울, 스트레스, 불안 등을 ‘과소유 증후군(Stuffocation)’이라고 명명한다. 저자는 2010년 토론토의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사건을 예시로 들며 너무 많은 물건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위협이 된다고 말한다. 이 화재는 담뭍불이 원인이었고 한 시간이면 충분히 진화할 수 있었다. 하지만 불이 난 집의 현관부터 발코니까지 물건이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소방대 진입이 어려웠고, 화재는 8시간이나 지속되어 피해가 커졌다. 너무 많은 물건이 개인에게만 나쁜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사례다.

저자는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과소유 증후군을 극복한 사람들을 보여준다. 이들은 스스로에게 필요 없는 물건을 버리며 단순한 삶을 선택하고, ‘대박’보다는 ‘중박’ 인생을 지향하며 과소유 증후군을 이겨냈다.

스미스, 테미 스트로벨 부부는 많은 물건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물건을 버림으로써 극복했다. 섬유신경통을 앓던 르벨리는 도시에서 산골마을로 이사를 하며 단순한 삶을 선택했다. 가족과 농사를 짓는 등의 단순한 생활을 반복하자 그녀의 지병인 섬유신경통 증상도 줄어들었다. 데이브 로버츠는 대박이 아닌 중박 인생을 추구하며 좀 더 느리고 조용하고 인간적인 삶, 현재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간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물질로 채워진 삶이

아닌 체험 중심의 삶을 꾸려 나가는 것이다. 이들은 물질 소유보다 체험 소유에 더 큰 가치를 두고 물질만능주의에 대항한다.

저자는 체험적 소유가 물질적 소유보다 행복에 기여하는 바가 더 크다고 말한다. 또한 “체험주의는 당신에게,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이롭기 때문에 나는 당신도 체험주의자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라고 하며 체험주의가 과소유 증후군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불필요한 물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이 책을 통해 체험주의자가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 오늘부터라도 불필요한 것을 버리고 체험을 통한 행복을 느껴보도록 하자.

저자 소개

제임스 월먼(James Wallman) 주목받는 저널리스트이며 문화예측 전문가이자 기조 연설가이다. 또한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다. 그는 현재 발생하는 문화 경향을 분석하고, 다가올 미래 문화 경향을 예측하는 글들을 《GQ》, 《뉴욕 타임스》, 《파이낸셜 타임스》 등에 글을 기고했고, 앵솔루트(ABSOLUT), BMW, 버버리(BURBERRY), 나이키(NIKE) 등에서 고문을 맡은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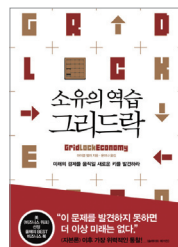
함께 읽으면 좋은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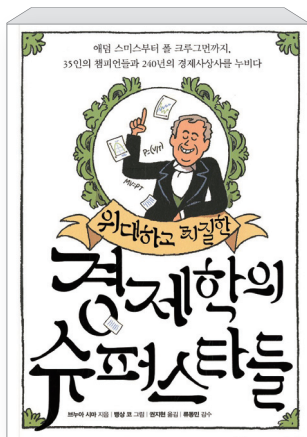
서열중독
유승호
2015



문명, 그 길을 묻다
안희경
2015



소유의 역습 그리드락
마이클 헬러
2009



브누아 시마 지음 | 권지현 옮김
Humanist | 2016

사서의 추천 글

사람들은 ‘경제학자’가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경제학이 그만큼 어렵게 느껴지는 학문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에덤 스미스부터 폴 크루그먼까지 경제학자들의 일생, 이론, 업적, 실수를 만화를 곁들여 재미있게 표현한다. 그들은 경제학의 이론적 업적을 세웠지만, 그 이론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경제학자 제임스 토빈은 금융 투기를 잠식하기 위해 일부 금융 거래에 세금을 매기자고 주장한다. 일명 ‘토빈세’이다. 하지만 그는 토빈세를 걷어서 그 돈을 어디에 쓸지 신경 쓰지 않았고, 정보화로 인해 금융거래를 추적하기 힘들어져 세금을 매기기 어려워진다. 결국 이 세금은 폐지된다. 경제학자들의 이론은 완벽해보이지만, 오류가 있기 마련이다. 책은 경제학자와 그 이론이 위대하지만 한편으론 ‘짜질한’ 면도 있다는 것을 잘 알려준다. 경제학자들도 보통 사람이고 실수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경제학이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들, 경제학에 관심 없는 사람들도 이 책을 통해서 경제학에 흥미를 느끼게 될 것이다.

저자 소개

브누아 시마(Benoist Simmat) 경제 전문 기자. 《누벨 에코노미(Nouvel Économiste)》, 《라제피(L'Agefi)》 등 여러 신문과 잡지에 경제 기사를 썼다. 저서로는 『악마의 와인(In Vino Satanas!)』, 『와인 전쟁(La Guerre Des Vins)』 등이 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세계사에서 경제를 배우다
최연수
2015



교양인을 위한 경제사
참사회경제교육연구소
2014



(세상에서 제일 쉬운)
만화 경제학
조립식, 조윤형
2013

책 속 한 문장

“그래서 21세기에도 슈퍼 경제학자들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 15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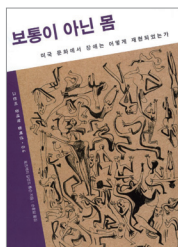
사서의 추천 글

이 책은 뇌성마비로 태어난 해릴린 루소가 자신과 세상의 편견을 극복하며 성장하는 삶의 이야기를 솔직하고 담백하게 담았다. 제멋대로 움직이는 신체장애로 끊임없이 부딪치는 현실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문제들을 다루었다. 장애인이라는 현실을 부정하고 외면하기보다는 직접 부딪치면서 자신의 열망을 실현해나가는 과정을 유쾌하게 그리고 있다. 그녀는 어떻게 화가가 되었나. 해릴린은 결함의 징표이자 수치심의 원천인 오른손을 그려 '자화상'이라는 이름을 붙여 첫 전시회에 출품한다. 전시회에서 '꼭 프리다 칼로의 자화상 같아요!'라는 칭찬을 들으며 뿔 듯이 기뻐한다. 그리고는 이제 오른손이 의지대로 움직이는 것을 따라주기로 한다. 새로운 화가의 탄생이다. 한편 해릴린은 여성 장애 인권 운동가로서 장애인들의 권익을 위해 싸우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다. 이 책은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되돌아보게 함과 동시에 장애인 스스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솔직하게 들려준다.

저자 소개

해릴린 루소(Harilyn Rouso) 장애인 인권 운동가이자 여성 운동가, 심리 치료사, 작가, 화가이며, 브랜디스 대학교와 하버드 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전공, 미국 경제기획국에서 근무하였다. '장애 여성과 소녀들을 위한 네트워킹 프로젝트'를 설립하였으며, 2003년 미국 여성사 프로젝트가 매년 3월 '여성사의 달'을 맞아 선정하는 열 명의 모범적인 여성 중 한 명으로 선정되었다. 장애 여성으로서의 첫 번째 수상자이다. 저서는 『이중차별 : 특수교육에서의 성 평등성 문제에 대하여』, 『장애인이고 여자인 내가 자랑스럽다』 등이 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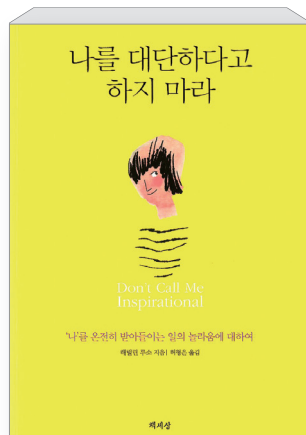
보통이 아닌 몸
로즈메리 갈런드 톰슨
2015



우리 균도 :
느리게 자라는 아이
이진섭
2015



보이는 소리
들리는 마음
노선영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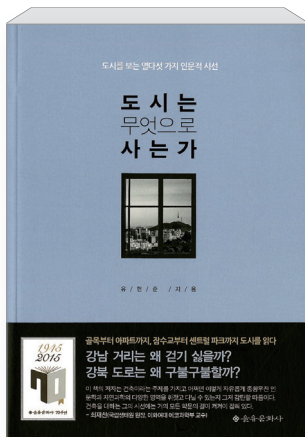


해릴린 루소 지음 | 허형은 옮김
책세상 | 2015

책 속 한 문장

“전에는 남의 도움이 필요하면서도 거부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어, 근데 지금은 필요한 도움을 정확히 요구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껴.”

■ 327쪽



유현준 지음
을유문화사 | 2015

사서의 추천 글

우리가 매일 걷고, 일하며, 살아가는 도시 공간은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산업화,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많은 건축물이 지어지고 사람들은 도시에서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도시는 점점 포화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이제 우리는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도시의 삶에 피로를 느낀다. 자연스레 질문을 던지게 된다.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도시인으로서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저자는 우리 주변을 둘러싼 도시와 건축이라는 주제에 대한 여러 질문에 답하며, 사람과 도시가 어떻게 서로 영향을 미치며 진화해 가는지 들려준다.

펜트하우스로 보는 권력관계

왜 홍대 앞이나 신사동 가로수 길은 걷고 싶고, 강남대로나 테헤란로는 그렇지 않을까? 궁금하지만 막연하게 느껴지는 질문에 대해 저자는 ‘이벤트 밀도’와 ‘공간의 속도’라는 과학적 개념을 들어 그 해답을 제시한다. 단위 거리당 상점 출입구 숫자가 많아서 보행자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거리, 공간 속에 움직이는 개체의 속도가 사람의 보행속도와 비슷한 거리일수록 사람들이 더 걷고 싶어한다는 것이다.

펜트하우스를 통해서도 공간과 권력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제러미 벤담이 설계한 감옥인 펜윅터콘의 감시탑과 같이 본인의 모습은 남들에게 보이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공간이 펜트하우스다. 그렇기 때문에 펜트하우스의 가격이 비싸더라도 부자들은 이 공간의 권력을 사려고 한다. 이러한 공간의 법칙은 사무실 내 자리배치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익숙한 공간을 새롭게

이 책은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동서양을 넘나들며 도시와 건축에 대해서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세계의 유명한 도시인 파리, 로마, 뉴욕의 형성과 변화과정에서부터, 왜 절은 들어가기 쉬운데 교회는 들어가기 어려운지, 카페와 모텔이 많이 생겨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등 익숙한 공간을 한층 더 새롭게 보도록 해주는 이야기들이 가득하다.

이러한 건축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바람직한 도시 공간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저자의 생각을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다. 단순히 용적률을 높이

고 멋진 디자인의 건축물을 짓기보다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 보이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도시는 진화하는 유기체

저자는 도시란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지만 자생적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진화해 온 유기체라는 점을 강조한다. 하지만 사람, 자연, 건축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선순환 해 가는 도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시와 건축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 모두가 다 건축가가 될 수는 없지만, 우리 모두는 일종의 건축주이다. 훌륭한 건축은 결국 훌륭한 건축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좋은 건축물,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의 시작은 바로 우리 주변의 건축물,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가지는 것이다.

저자 소개

유현준 홍익대학교 건축대학 교수 및 (주)유현준건축사사무소(HYUNJOON YOO ARCHITECTS) 대표 건축사. 하버드 대학교, MIT, 연세대학교에서 건축 공부를 했다. 하버드 대학교를 우등으로 졸업 후 세계적인 건축가 리처드 마이어 사무소에서 실무를 하였다. 2013 올해의 건축 BEST 7, 2013 김수근건축상 프리뷰상, CNN이 선정한 15 SEOUL'S ARCHITECTURAL WONDERS, 2010 건축문화공간대상 대통령상, 2009 젊은 건축가상 등을 수상했으며, 국제 현상 설계에서 다섯 차례 수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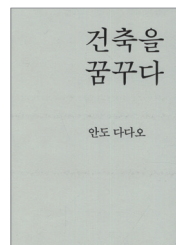
함께 읽으면 좋은 책



건축을 읽는 7가지 키워드
김혜정
2014



(구본준의) 마음을 품은 집
구본준
2013



건축을 꿈꾸다
안도 다다오
2012



크리스티안 루더 지음 |
이가영 옮김
다론 | 2015

사서의 추천 글

이 책은 저자가 1,000만 명이나 가입되어 있는 데이트사이트 ‘Ok큐피드’를 운영하면서 저장된 회원들의 빅데이터를 통해 남녀 관계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분석하고 예측하고 있다.

데이터 분석의 목표는 보편적 패턴을 발견하는 것이다. 저자는 남녀의 이상형, 만남과 이별의 패턴을 인종별, 연령별 수치와 그래프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남성이 선호하는 여성의 나이와 같은 사적인 주제에서부터 인종과 성별에 따라 자주 쓰는 표현, 시골에서 대도시로의 전 세계적 이주 현상까지 다양하게 살핀다. 마지막으로 개인에 초점을 맞추어 사이트에 사용된 단어, 이미지, 문화적 정체성 표현방식에 대해 작가 특유의 재치와 통찰을 섞어서 보여 주고 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데이터화되고 예측되는 빅데이터의 시대에 우리는 자신의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어갈지 생각해보자.

저자 소개

크리스티안 루더(Christian Rudder) 미국에서 손꼽히는 데이트사이트 Ok큐피드(OkCupid)의 공동 창립자이자 데이터 과학자. 하버드 대학 수학과를 졸업한 후 학습사이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일했다. NBC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했으며 《뉴욕 타임즈》, 《뉴욕커》를 비롯해 많은 언론에 연구결과를 실었다. 현재 뉴욕 브루클린에 살며 인기 블로그 ‘Ok트렌드(OkTrends)’를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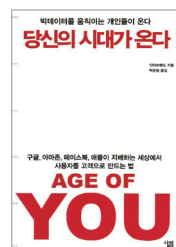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책 속 한 문장

“데이터 과학은 이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설명하는 수준에서 나아가 삶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깊이 있는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다.” ■312쪽



구글은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했는가
벤 웨이버
2015



당신의 시대가 온다
인터브랜드
2015



데이터는 답을 알고 있다
문석현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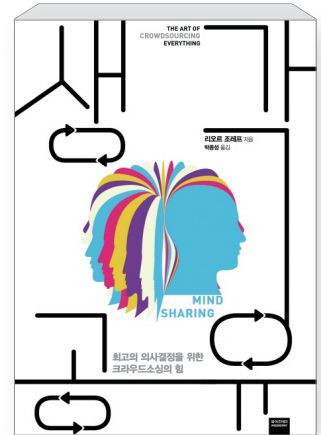
사서의 추천 글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속담이 있듯이 ‘우리’는 ‘나’보다 강하고 더 똑똑하다. 『생각공유』는 테크놀로지와 소셜 미디어를 활용해 집단지성에게 질문하여 어떻게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삶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꿈꾸는 것들을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는지 소개한다. 저자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소셜 네트워크를 이용해 집단의 지혜를 얻으려면 최소한 250명의 구성원은 확보해야 한다고 한다. 질문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와 함께 생각하고 요청하는 것으로 분명하고, 구체적이어야 효과적이다.

직접적인 사례로 저자가 ‘생각공유’의 힘을 통해 TED에서 강연하는 꿈을 이루어 낸 경험도 들려준다. 저자의 말처럼 꿈이 있고, 많은 친구로 이루어진 크라우드가 있고 팔로워가 있다면, 꿈을 발견하기 위해,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생각공유’를 시도해 보길 바란다.

저자 소개

리오르 조레프(Lior Zoref) 크라우드의 지혜를 연구하는 전문 컨설턴트이자 강연 전문가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소비자 및 온라인 서비스 마케팅 담당 부사장으로 14년 동안 일했다. 이후 다양한 연구 활동을 통해 크라우드소싱의 강력한 힘을 전파하고 이스라엘 마케팅협회와 여러 대학의 MBA 학생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마케팅 노하우를 가르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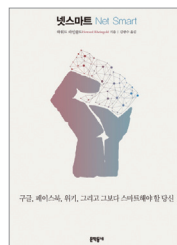


리오르 조레프 지음 | 박종성 옮김
와이즈베리 |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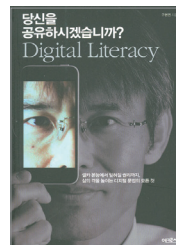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연결하는 인간
리드 호프먼, 벤 카스노카
2015



넷스마트
하워드 라인골드
2014



당신을 공유하시겠습니까?
구본빈
2014

책 속 한 문장

“사람들은 자신의 말이 청정되기를 원한다. 비즈니스에서도 그렇다. 고객과 직원들이 온라인에서 어떤 말을 하는지 특별히 주목하고 귀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크라우드의 지혜로부터 뭔가를 배우고 이를 존중해야 한다.”

■ 90쪽



클라이브 톰슨 지음 | 이경남 옮김
알키 | 2015

사서의 추천 글

인터넷 검색 기술이 보편화 되자 사람들은 기억을 상기시키기 위해 생각을 하기 보다는 모르는 것은 일단 검색부터 하는 습성이 생겨났다. 기억의 역할을 컴퓨터가 대행하고 있는 것이다. 니콜라스 카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서 디지털 기술이 인류의 사고능력을 잠식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책의 저자는 인터넷 시대가 우리의 생각을 더 스마트하게 한다고 말한다.

영국의 한 신문은 게임으로 할 수 있는 온라인 툴을 개발하여 17만 건의 문서를 독자들의 참여로 4일 만에 분석한다. 생물학자들이 10년 동안 풀지 못한 수수께끼를 온라인을 통한 아마추어들과 협업으로 3주 만에 해결하기도 한다. 저자는 인간이 기술을 잘 이용해 협업하면 범죄를 해결하고, 질병을 진단하고, 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스마트 기기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생각의 공개와 협업이 우리의 생각을 더 스마트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흥미로운 책이다.

저자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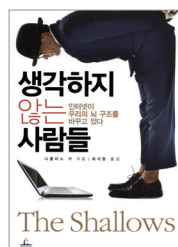
클라이브 톰슨(Clive Thompson) 캐나다 출신으로 기술 과학 분야의 저널리스트이다. 토론토 대학교에서 정치학을 전공하였고, 《뉴욕타임스매거진》 기고가, 《와이어드》,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과 그것의 사회적·문화적 영향력에 집중하며 이에 대한 연구와 집필을 이어가고 있다.

책 속 한 문장

“나중에 특정 정보에 다시 접근할 수 없다는 생각은 그 정보에 대한 기억을 향상시키는 반면, 정보가 외부에 저장된다는 사실을 알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기억을 향상시킨다.”

186쪽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니콜라스 카
2011



도서관, 그 소란스러운 역사
매튜 배틀스
2004



집단지성
피에르 레비
2002

사서의 추천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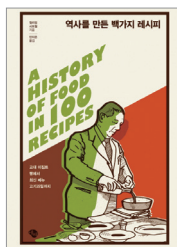
하루 중 가장 중요한 끼니인 아침식사는 언제부터 하기 시작했을까? 바로 그런 궁금증에 답하는 이 책은 아침식사를 역사, 문화, 사회적으로 탐구한다. 아침식사가 왜, 어떻게 탄생했으며, 전 세계적으로 가장 즐겨 먹는 아침 식사 메뉴가 어떻게 발전, 변화해 왔는지 설명한다. 전 세계인의 아침식사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요소인 종교가 아침식사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무역을 통해 아침식사 문화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기술과 편의성은 바쁜 현대인의 아침식사 시간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등을 알려준다.

대부분 미국과 영국의 아침식사에 비중을 두고 있지만 아시아, 중동, 유럽 등 세계 여러 나라 음식들까지 소개하고 있다. 미국 서부개척시대 황무지를 달리며 먹었던 아침식사, 하숙집이나 학교, 군대의 단체급식용 아침식사, 사형수, 우주인의 아침식사까지 아침식사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다. 거기 에다 현재 가장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는 아침식사인 콘플레이크의 발명에 관한 이야기, 드라이 시리얼을 전 세계인의 아침식사 메뉴로 등극시킨 켈로그사의 사례처럼 흥미로운 일화로 가득하다. 전 세계 사람들의 아침식사 변천과정을 알아보면서 아침식사의 미래가 어떻게 변화될지 매우 궁금해진다.

저자 소개

헤더 안트 앤더슨(Heather Arndt Anderson) 오레건 주의 포틀랜드에 거주하는 음식 전문 저술가이다. 『최고의 가정 요리 600선』이라는 요리책을 냈고 《더 파머 제너럴(The Farmer General)》과 《레메디 쿼터리(Remedy Quaterly)》 같은 잡지에 글을 쓰고 있다. 헤더가 운영하는 블로그 ‘부두 앤 소스(Voodoo & Sauce)’는 아침식사와 관련해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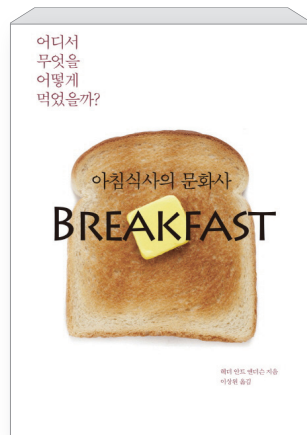
역사를 만든 백가지 레시피
윌리엄 시트웰
2016



음식의 별난 역사
이안 크로프톤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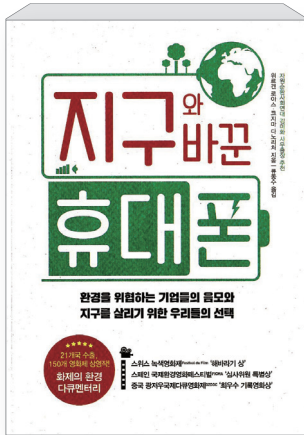
마크 쿨란스키의 더 레시피
마크 쿨란스키,
탈리아 쿨란스키
2015



헤더 안트 앤더슨 지음 |
이상원 옮김
니케북스 | 2016

책 속 한 문장

“요리는 대개 여성의 일이었고 어머니가 해 준 음식은 향수 어린 기억으로 오래 간직되기 때문이었다.” ■ 288쪽



위르겐 로이스,
코지마 다노리처 지음 |
류동수 옮김
애플북스 | 2015

사서의 추천 글

이 책은 최근 환경 파괴의 주범으로 떠오르고 있는 하이테크 쓰레기의 실태를 고발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 컴퓨터, 노트북, 프린터 등 수많은 전자제품이 폐기 될 때 바로 하이테크 쓰레기가 된다. 단순히 이런 쓰레기를 줄이자는 호소만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이테크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구매 행태와 제조업체의 전략에 있어서도 변화가 필요하고 아울러 쓰레기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기술혁신도 요구된다. 쓰레기 문제는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이기에 이에 대한 해결도 개인과 기업, 더 나아가 사회 전체적 차원에서 모색되어야 한다.

책의 부제는 ‘환경을 위협하는 기업들의 음모와 지구를 살리기 위한 우리들의 선택’이다. 전자 폐기물로 날로 오염돼 가는 지구 환경은 결국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재앙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경각심을 갖고 일독해볼 만하다.

저자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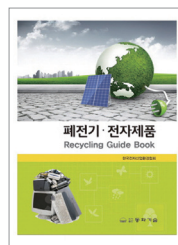
위르겐 로이스(Jürgen Reuβ) 대학에서 스칸디나비아학, 독어독문학, 철학을 공부했으며, 다수의 책을 번역하고 펴냈다. 현재는 프리랜서 저널리스트, 번역가이자 저술가로서 활동하고 있다.

코지마 다노리처(Cosima Dannoritzer) 영화제작자. 스페인 TVE 방송 등에서 일 했으며, 공동 저자인 위르겐 로이스와 함께 ‘계획된 노후화’ 현상의 역사를 〈쓰레기티미를 위한 구매〉란 다큐멘터를 통해 흥미진진하게 풀어나갔다. 현재는 폐전자제품의 불법적 거래에 대한 후속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책 속 한 문장

“물건에 대한 존중은 인간의 노동에 대한 존중과 제품 제조에 투입되는 원자재와 에너지의 원천인 자연에 대한 존중을 의미한다.” ■ 281쪽



폐전기·전자제품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
2014



관찰의 힘
안 칩체이스,
사이먼 슈타인하트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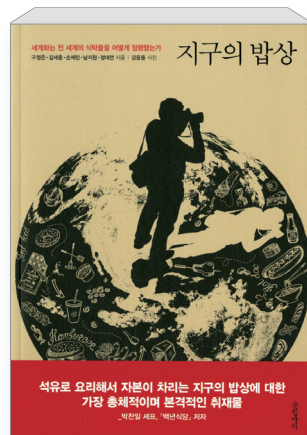
욕망하는냉장고
KBS<과학카페>냉장고
제작팀
2012

사서의 추천 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살면서 많은 먹거리를 접한다. 먹거리는 살아남기 위한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수단이다. 제목이 말해주듯 이 책은 경향신문 취재팀이 10개국을 탐사 취재하며 그 나라의 밥상을 들여다본 것이다. 세계화는 전 세계의 식탁을 어떻게 점령했는가를 직접 세계 곳곳의 밥상을 통해 소개한다. 글로벌화의 가장 생생한 단면과 함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찾기 위한 노력도 함께 다룬다. 인구의 94.5퍼센트가 비만이며 성인 대부분이 당노를 앓는 나우루, 로컬 푸드가 없는 두바이와 부국의 온실이 된 에티오피아, 통조림 음식만 먹는 미국의 식품사막 지역들, 굶는 사람이 백만 명인 영국의 가려진 현실, 원전 사고 지역 돕기 위해 후쿠시마산 채소를 구입하는 일본 주부들, 세계에서 유기농 식재료 비율이 가장 높은 쿠바까지 다양한 나라의 밥상 이야기가 담겨 있다. 전세계의 식탁은 점점 비슷해지는 듯하지만, 계급 간의 격차와 국가 간 격차도 뚜렷하다. 앞으로 먹거리는 점점 더 상업화되고 세계화될 것이다. 이에 맞서 안전한 먹거리를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도 늘어갈 것이다. 다음세대 인류는 어떤 식탁에 앉게 될까 고민하게 만드는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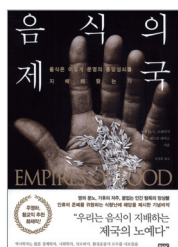
저자 소개

구정은, 김세훈, 남지원, 손제민, 정대연 경향신문 기획취재팀으로 2015년 2월부터 6개월간 발로 뛰며 취재한 10개국의 음식문화를 8~9월 두 달 동안 신문에 연재했던 <지구의 밥상> 시리즈를 엮음.



구정은 · 김세훈 · 남지원 · 손제민 · 정대연 지음
글항아리 | 2016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음식의 제국
에번 D. G. 프레이저,
앤드루 리마스
2012



미식 쇼쇼쇼
스티븐 폴
2015



풍성한 먹거리 비장한 식탁
에릭 밀스톤, 팀 랭
2013

책 속 한 문장

“정크푸드의 홍수, 바다 건너 어마어마한 거리를 옮겨 다니는 식재료들, 토착 먹거리의 붕괴, 비만과 당뇨병, 세계 식량 체제의 ‘미래’가 나우루(남태평양의 섬나라)라면 지구는 어떻게 될까.” **13쪽**



가타다 다미미 지음 | 오근영 옮김
이마 | 2015

사서의 추천 글

정신과 의사인 저자는 현대 사회에서 '성숙 거부'라는 우울증적 증상을 참을성과 저항력 부족, 책임전가, 의존증의 문제로 보고, 그 사례와 함께 치유책을 제시한다. 저자에 따르면, 성숙 거부는 '이런 나 자신이고 싶다'는 자기 애적 이미지와 현실의 자신과의 격차를 받아들이지 못하여 나타나는 사회적 병리 현상이다. 반면 어른스러움이란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과 불가능한 일을 객관적으로 구분하는 것,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에 눈을 맞추는 것이다. 곧 어른이 된다는 것은 과대평가하던 자신의 이미지를 상실해 가는 과정이다.

이 책에서 말하는 철부지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다.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은 충동을 느껴봤거나 남을 원망함으로써 괴로움에서 벗어나려 해 본 사람, 그리고 불안 속에서 아이를 키우고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저자는 성숙한 어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내한다.

저자 소개

가타다 다미미(片田珠美) 정신과 의사, 고배 신와 여자 대학 교수. 1961년 히로시마에서 태어났다. 오사가 의학부를 졸업하고 교토대 대학원 인간·환경학 연구과 박사과정 수료. 파리 제8대학에서 라캉과 정신분석을 연구하고 임상경험을 토대로 마음의 병이 가진 구조를 분석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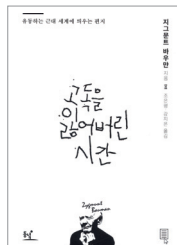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책 속 한 문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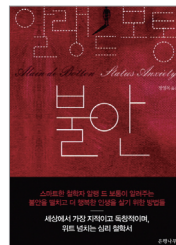
“실패는 고통을 동반하지만 동시에 자신감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 실패와 좌절을 극복하는 체험 자체가 삶에 있어서의 자신감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 233쪽



쓴맛이 사는 맛
채현구 구술, 정운현 기록
2015



고독을 잃어버린 시간
지그문트 바우만
2012



불안
알랭 드 보통
2012

사서의 추천 글

한 직장 동료가 “어휴, 피곤해, 커피나 한 잔 마셔야겠다.”고 말한다면, 이는 사회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데 만약 그 동료가 가방에서 흰 가루가 들어 있는 봉지를 꺼내 그것을 물에 섞어 마신다면 어떨까.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고 순한 편이긴 하지만 향정신성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카페인 은 엄연한 약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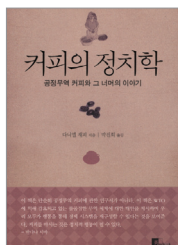
저자는 커피, 콜라, 에너지 드링크 같은 상품이 우리 몸에 카페인이라는 약물을 편리하게 주입하기 위한 도구인 ‘카페인 전달 장치’라고 말한다. 그리고 역사적 사실과 취재를 통해 카페인의 ‘비밀’을 파헤친다. 콜롬비아의 커피 농장과 중국의 카페인 공장을 방문하여 카페인 추출 과정을 추적하고, 운동 선수, 군인, 기업가의 사례를 통해 약물로서 카페인의 기능을 밝힌다.

‘카페인 권하는 사회’를 비판하는 저자는 건강을 위협하는 과도한 카페인 섭취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그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커피(또는 차나 음료) 한 잔의 두 얼굴을 보여줌으로써 카페인을 제대로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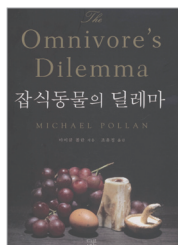
저자 소개

머리 카펜터(Murray Carpenter) 저널리스트 겸 작가, 콜로라도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했고, 몬태나 대학에서 환경과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뉴욕타임스》, 《와이어드》, 《내셔널 지오그래픽》, 《보스턴 글로브》 등 신문과 잡지에 환경과 생태, 식품 가공품에 대한 글을 기고하고 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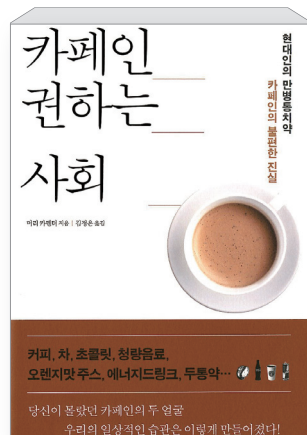
커피의 정치학
다니엘 재피
2010



잡식동물의 딜레마
마이클 폴란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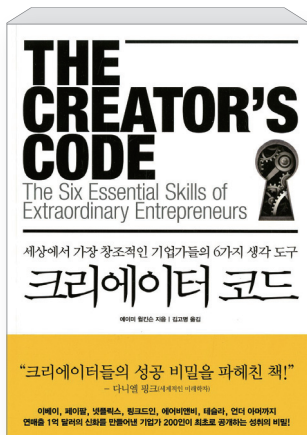
패스트푸드의 제국
에릭 슬로셔
2001



머리 카펜터 지음 | 김정은 옮김
중앙books | 2015

책 속 한 문장

“카페인은 현명하게 이용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의 어느 때에 얼마나 섭취할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마셔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수면과 관련된 많은 문제와 불안감과 초조함이 유발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234쪽



에이미 윌킨슨 지음 | 김고명 옮김
비즈니스북스 | 2015

사서의 추천 글

일상에서 성공의 기회를 찾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저자 에이미 윌킨슨은 크리에이터들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사고방식과 태도를 6가지로 정리하여 소개한다. 크리에이터(창조자)의 여섯 가지 생각 도구란 ‘빈틈을 찾는다’, ‘앞만 보고 질주한다’, ‘우다 루프로 비행한다’, ‘현명하게 실패한다’, ‘협력을 도모한다’, ‘선의를 베푼다’ 등이며 이에 대한 많은 사례와 인터뷰를 담고 있다.

이 중 ‘우다 루프’는 미공군 조종사 존 보이드가 고안한 방법으로 관찰하고, 방향을 잡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순환 과정을 신속하게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즉, 행동을 취하기 전에 문제를 살펴볼 시간을 확보하고,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다.

미래에 대한 꿈을 믿고 전력을 다하고자 하는 예비 크리에이터들이 읽어 볼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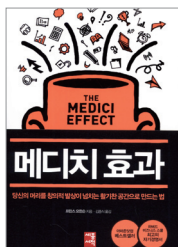
저자 소개

에이미 윌킨슨(Amy Wilkinson) 스탠퍼드대에서 정치학과 영어학을 전공하고, 동 대학 대학원에서 사회학 석사 학위와 MBA를 취득했다. 현대 스탠퍼드대 경영대학원에서 조직 행동과 기업가정신 등에 관한 강의를 하고 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책 속 한 문장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다면
지금 당장 해야 할 것은 바로
그냥 스쳐 지나갔던 주위의
많은 것들에 질문하는 것이다.” ■ 83쪽



메디치 효과
프랑스 요한슨
2015



어제처럼 일하지 마라
제레미 구체
2015



일론 머스크, 미래의 설계자
애슐리 반스
2015

사서의 추천 글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란 말처럼 그 무슨 일도 작은 시작에서 비롯된다. 이 책에서 EBS 프로듀서인 저자는 작은 용기와 대수롭지 않은 노력으로도 할 수 있는 사소한 실천을 통해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여러 사례를 들려준다. 저자는 실제로 한 정거장 일찍 내려 걷기 시작한 ‘15분 걷기’를 통해 여러 사건을 만나게 된다. 토크쇼의 전설인 래리 킹 앵커 역시 방송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 방송국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했다. 3주간 매일 같이 기웃거리다가 방송국 잡역부로 일하게 되었고, 2년이 됐을 때 부재중인 앵커를 대신해 방송을 진행할 수 있었다.

‘좋은 계획이 행동을 이끄는 게 아니라, 작은 행동이 좋은 계획을 이끈다’는 저자의 신념을 좇아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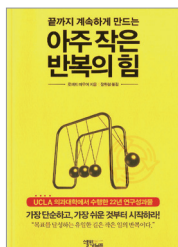
저자 소개

김민철 EBS 프로듀서. 2002년 EBS에 입사해 〈EBS 스페셜〉, 〈폴레랑스〉, 〈다큐프라임〉 등을 연출했다. 2008년 〈아이의 사생활〉로 ‘한국PD대상 TV 교양부문 작품상’을, 2013년 〈퍼펙트 베이비〉로 생화학분자 생물학회 ‘올해의 생명과학보도상’ 등을 수상했다. 2016년부터는 〈EBS 육아학교〉 애플리케이션 및 인터넷 라이브 방송 총괄 프로듀서로 일하고 있다. 저서로는 『아이의 자존감』(공저), 『일생의 일』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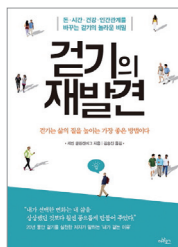


김민태 지음
위즈덤하우스 | 2016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아주 작은 반복의 힘
로버트 마우어
2016



걷기의 재발견
케빈 클린켄버그
2016



나를 바꾸는 연습
오히라 노부타카
2016

책 속 한 문장

“목표를 수월하게 달성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을 잘게 쪼개 작게 시작하는 것이다.” **99쪽**



김태홍 지음
파라독스 | 2015

사서의 추천 글

인생을 변화시키고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책은 소통을 잘하고 시간관리에 철저해 날마다 성장하며 메모의 달인이 되어 정보를 관리하고 마음 먹은 대로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될 디테일한 정보들을 소개하고 있다. 우리는 늘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만 막상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실행에 옮기지 못한다. 생각만으로는 변화도 없고 어떤 결과물도 얻을 수 없다.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결코 성공이나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없으므로 항상 낙관적인 태도와 긍정적 마인드로 꾸준히 노력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문제해결의 열쇠는 의지이고 열정이고 믿음이다. 어떤 문제에 해결할 수 있다는 의지를 가지고 뜨거운 열정으로 실행할 때 문제는 해결되고 성공이 뒤따른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나 자신의 가능성과 능력을 믿는 '자존감'이다. 자존감을 가지고 첫째, 타인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만들어 주는 대화법을 익히고, 둘째, 주어진 시간을 철저하게 관리하며, 셋째,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을 도와주고 새로운 기획력까지 생기게 하는 메모법을 익혀서, 넷째, 스스로의 자존감과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실행하며 노력할 때 자신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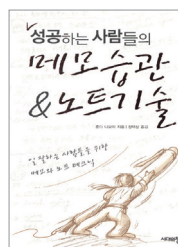
저자 소개

김태홍 한국 리더십 연구소와 한국 에니어그램 협의회를 창립하고 지금까지 20여 년을 이끌어오고 있다.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코칭계의 리더이자 멘토로 이 시대에 필요한 다양한 관점의 리더십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이제는 실행하라』, 『내 성격에 꼭 맞는 맞춤 공부법』, 역서로 『코칭의 핵심』, 『자기관리 성공노트』, 『생각의 힘』 등이 있다.

책 속 한 문장

“성공하고 싶은가?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요령과 편법, 그리고 비법을 찾아 헤매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노력하라.” ■ 216쪽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성공하는 사람들의)
메모습관 & 노트기술
훈다 나오야
2008



긍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
에노모토 히로아키
2013



좋은 습관이
큰 미래를 만든다
강규남, 유현우
2014

사서의 추천 글

이 책은 변화에 관한 이야기이면서 습관을 바꾸기 위한 매뉴얼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속의 갈등을 물리치고 내면에서 솟아나는 용기로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의지다. 그것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다. 성공하고 싶다면 열정으로 무장하고 그 열정에다 몰입의 태도를 장착해야 한다. 재능과 열정을 극대화시키고 일의 성과를 결정하는 건 집중력이다.

집중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은 첫째, 뚜렷한 목표의식이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구체적이고 확실한 것이 될 때까지 갈고 닦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것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둘째, 정리정돈이다. 주변 환경이 지저분하고 산만하면 효율성이 떨어진다.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나 아이젠하워는 일을 마치면 책상위에 종이 한 장 남기지 않았다고 한다. 정리가 바로 집중이며 집중이 바로 경쟁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 책과 함께 샘솟는 용기로 마음을 다잡고 실천하여 새로운 인생을 열어보자.

저자 소개

김이울 광고회사 제일기획에서 일하며 감각적이고 감동적인 카피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뒤흔치게 한 베테랑 카피라이터로 돌연 안정적인 직장을 버리고 가슴이 시키는 일을 찾아 나섰다. 현재 기업체 및 학교, 도서관 등에서 자기 긍정과 변화의 힘을 전하는 강연을 진행하면서, 작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펴낸 책으로 『가슴이 시키는 일』, 『끝까지 하는 힘』, 『익숙해지지 마라 행복이 멀어진다』, 『가끔 이유 없이 눈물이 날 때가 있다』, 『나는 인생의 고비마다 한 뼘씩 자란다』 등 다수가 있다.



김이울 지음
레몬북스 | 2015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약해지지 않는 마음
고코로야 진노스케
2015



토닥토닥 내 인생
고현우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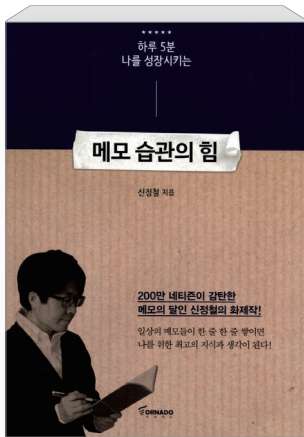


(기대를 현실로 바꾸는)
혼자 있는 시간의 힘
사이토 다카시
2015

책 속 한 문장

“참된 변화는 물질적인 변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생활 방식이나 신념 혹은 삶을 대하는 태도 등 기존의 습관으로부터 탈출하려는 의지와 내면의 용기로부터 시작된다.” ■ 11쪽

메모 습관의 힘



신정철 지음
Tornado(토네이도) | 2015

사서의 추천 글

적자생존, 적는 자(메모하는 자)가 살아남는다. ‘메모 습관의 힘’은 강력하다. 이 책에서 저자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메모하는 습관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서서히 변화시켜주는지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메모의 세계는 매우 다양하다. 노트에 메모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디지털 메모 도구 사용법에서부터 블로그나 페이스북 같은 소셜 미디어에 메모를 공유하는 방법까지 저자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알려준다.

저자의 경험에 따르면 책을 읽으면서 밑줄 친 부분을 노트에 옮겨 적고, 거기에 생각을 쓰기 시작하면서 책 읽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또한 글로 구체화시키는 과정을 통해 ‘나’를 알게 된다고 한다. 메모라는 작은 습관이 어떻게 삶에 극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 생생한 실례와 만나볼 수 있다.

저자 소개

신정철 서울대 응용화학부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LG전자 소재기술원에서 책임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현재 ‘마인드 와칭’이라는 블로그와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심리학, 마음공부, 소셜 미디어, 스마트 워킹에 관한 글을 쓰면서 삶의 지평을 넓히고자 하는 현재 진행형 관찰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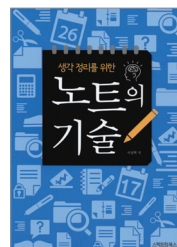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책 속 한 문장

“메모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생각을 구체화하고, 행동으로 옮기도록 도와준다. 삶을 성장시키는 루프를 만든다.” ■ 342쪽



기록형 인간
이찬영
2014



(생각 정리를 위한)
노트의 기술
이상희
2013



성공하는 사람들의
다이어리 활용법
니시무라 아키라
2013

사서의 추천 글

사람들은 누구나 다른 사람과의 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오래도록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 이 책은 조직생활이나 단체 생활하는 사람들이 오래도록 한결 같은 마음으로 서로의 장단점을 포용하고 이해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다채로운 관점에서 표현하고 있다.

오래도록 소통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첫째, 이해하는 마음으로 서로가 어진 마음을 가져야 한다. 둘째, 정의로운 마음으로 관계가 윤리적이며 도덕적이어야 한다. 셋째, 상생하는 마음으로 서로가 지혜를 겸비하고 있어야 한다. 넷째, 예절 바른 마음으로 예절을 잘 지키고 서로 간에 매너를 잘 지키면서 에티켓도 발휘해야 한다. 다섯째, 서로가 신뢰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관계의 처음이자 끝은 바로 믿음에 있다. 중요한 것은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잘못되면, 결국은 관계가 지속될 수 없다는 점이다.

오래도록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과 먼저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자신이 타인의 마음으로 들어가려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해야만 한다. 이 책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꼭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관계’와 ‘소통’을 주제로 우리에게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이경진 지음
책과나무 | 2015

저자 소개

이경진 경남 남해 태생으로 전남대학교육대학원 특수교육 분야를 전공했으며, 20년간 교편생활을 하다가 40대부터 기업 교육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맞춤형 교육 전문기관인 제이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으며, 셀프리더십, 이미지메이킹, 비즈니스매너, 조직활성화, 스피치, 프리젠테이션 스킬, 강사 양성과정 분야 강의를 주로 하고 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마음을 움직이는 대화법
김규현
2015



소통의 비책
이남훈
2010



마음을 얻는 기술
레일 라운즈
2009

책 속 한 문장

“사람의 마음을 가져오는 일, 그건 아낌없이 군말 없이 주는 ‘말’에서부터 시작될 수도 있다.” **67쪽**



정경자 지음
경향미디어 | 2015

사서의 추천 글

“정리수납에도 전문가가 있나?” 의아한 독자도 있겠지만 저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정리수납 전문가’라는 직업을 만들었고, 정리수납 컨설팅 전문업체도 세웠다. 더 나아가 평생교육원을 통해 현재까지 전국에 30,000명이 넘는 정리수납 전문가를 양성하여 경력 단절 여성의 일자리 창출 및 창업을 지원하였다. 비단 정리수납이 직업인에게만 필요한 기술은 아니다. 정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버림(버림의 자유), 채움(바르게 채움), 나눔(나눔의 행복)’의 습관은 공간을 넓게 활용하면서 생활을 더 편리하게 사는 아주 유용한 노하우이다.

우리는 누구나 정리 정돈이 잘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한편으론 버리지 못하는 습관 때문에 가정과 사무실 공간 까지도 필요하지 않은 물건으로 가득 채워놓고 생활의 불편함을 감수하며 살고 있다. 정리수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간, 공간, 원만한 대인관계를 고려하면 바쁘다는 핑계로 계속 미루기만 할 일이 아니다. 복잡하고 어려워 보일지 모르지만, 정리수납의 기본도 결국은 물건을 분류하고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을 가려내는 일에서 시작한다. 정리가 습관이 되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인생이 달라진다. 정리수납을 못한다고 지레 겁을 먹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용한 정보를 주는 책이다.

저자 소개

정경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정리수납 전문가라는 직업을 만들었으며, 한국정리수납협회 회장, 정리수납 컨설팅 전문 기업 (주)덤인을 설립하여 현재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정리수납 전문가 양성 및 정리수납 표준화와 기술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현재 전국에 30,000명이 넘는 정리수납 전문가를 양성하여 경력 단절 여성의 일자리 창출 및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책 속 한 문장

“정리수납은 계절이 바뀌거나 이사가 결정되면 특정한 날을 잡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한부분으로 습관처럼 매일매일 해야 하는 것이다.” **11쪽**



일 잘하는 사람의 정리습관
시노즈카 다카야
2013



정리정돈의 습관
고마츠 야스시
2012



부자가 되는 정리의 힘
윤선현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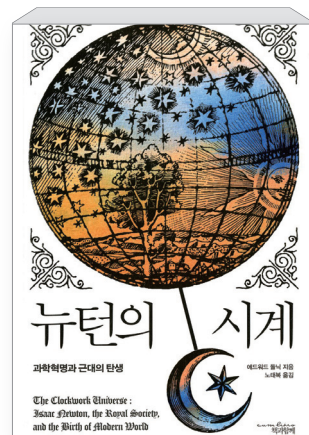
사서의 추천 글

질병과 죽음이 오물만큼이나 널려 있던 중세는 혼돈스러웠고, 당대의 천재들은 미신과 마법, 연금술과 신의 전능함이 혼재하는 세상의 자세한 원리가 궁금했다. 그 무렵 과학은 아직 철학의 연장이었으며 아주 어설픔고 과장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기존의 근본 없는 믿음을 증명할 방법이나 지식이 전무하여 일일이 시행착오를 거치는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망원경이 눈에 보이는 근거를 제시하고 관측 자료가 쌓이기 시작하면서부터 시대는 전환기를 맞는다.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이가 던진 화두에 케플러의 집념, 데카르트의 그래프 등이 차곡차곡 축적된 끝에 마침내 뉴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를 계산해낸다. 이 일련의 과정을 담은 이 책은 부제 그대로 ‘과학혁명과 근대의 탄생’을 다루고 있다. “무엇이든 가능한 시대”였던 중세의 모습, 당시 사람들의 사고 구조, 애써 겸손한 척하지만 자신의 빛나는 지성과 업적을 인정받고 싶어 초조해하던 가발 쓴 석학들의 고군분투, 그 중에서도 뉴턴의 빛에 가려진 비운의 맞수들... 곧 근대과학의 ‘유년시절’을 눈앞에 선할 정도로 생생하고도 유쾌하게 그려낸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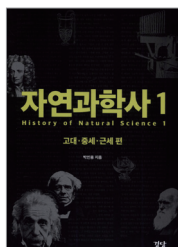
저자 소개

에드워드 돌닉(Edward Dolnick) 《보스턴 글로브》에서 과학 전문 기자로 활동했으며 지은 책으로 에드거상을 수상한 『사라진 명화들』을 비롯해 『러시』, 『위대한 미지의 세계로 내려가다』, 『위조범의 주문』, 『소파 위의 광기』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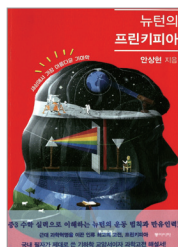


에드워드 돌닉 지음 | 노태복 옮김
책과함께 | 2016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자연과학사
박인용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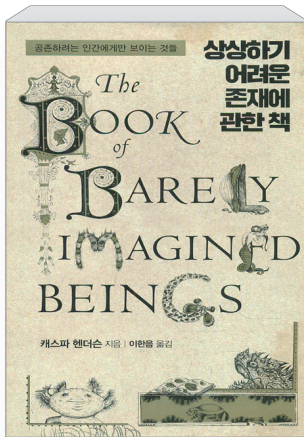
뉴턴의 프린키피아: 세상
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하학
안상현
2015



중세
움베르토 에코 기획
2015

책 속 한 문장

“뉴턴은 과학의 모든 분야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과학자였을 뿐 아니라, ...가장 행운아였다. 왜냐하면 찾아야 할 우주는 단 하나뿐이었는데, 이 우주를 뉴턴이 찾아냈기 때문이다.” ■ 355쪽



캐스파 헨더슨 지음 | 이한을 옮김
은행나무 | 2015

사서의 추천 글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영화 〈아바타〉에 보면 영혼의 나무에서 우드 스프라이트가 나와 날아다니는 장면이 있다. 이 책은 우드 스프라이트를 닮은 캄브리아기 생물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여러 생물들을 소개하는 과학 에세이 집이다.

저자는 각 생물의 특성을 소개할 때 인간과 지구의 역사, 인간 사회의 모습, 유사한 특성을 가진 다른 동물들을 엮어 풍부한 이야기를 전한다. 예를 들어 아홀로틀의 멸종과 아즈텍족 멸망의 역사를 관련지어 설명하고, 현생 다세포 생물 중 가장 오래된 항아리 해면을 소개하며 지구의 역사를 돌아보는 식이다. 일본원숭이의 생존방식에서 권력정치의 모습을 찾아내고, 가시갯가재 눈이 3차원을 볼 수 있는 특성을 설명하며 동물들의 눈이 갖는 특징도 함께 설명한다.

소통과 감정 측면에서 인간과 돌고래의 유사성을 강조하는 등 여러 생물 이야기를 읽다보면 인간과 자연의 긴밀한 관계를 저절로 깨닫게 된다. 더불어 멸종 위기에 처한 생물들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는 저자의 입장에 자연스레 함께하고 싶어진다.

저자 소개

캐스파 헨더슨(Caspar Henderson) BBC Radio4의 환경 프로그램 〈막대한 지구의 비용〉의 프로듀서이자 리포터로 활동하였으며, 〈파이낸셜 타임즈〉, 〈인디펜던트〉, 〈네이처〉 등에서 언론인이자 편집위원으로 일했다. ‘차이나다 이얼로그’에서 편집자문위원이자 객원 기자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 『우리의 연약한 지구』(공저), 『세계화를 논하다』(편저) 등이 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책 속 한 문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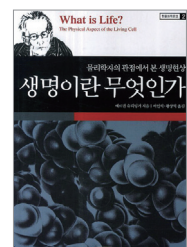
“바이러스는 우리를 탈중심화한다. 다른 존재들 사이의 상호작용 속에서 기원한 생물로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게 해준다.” ■ 197쪽



종의 기원
찰스 다윈
2014



원더박스
로먼 크르즈나릭
2013



생명이란 무엇인가
에르빈 슈뢰딩거
2011

사서의 추천 글

이 책은 “새가 된다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한다. 동물행동학자인 저자는 새에게도 시각, 청각 등 감각이 있다고 밝힌 후, 어떠한 과정을 통해 감각을 느끼는지 다양한 예를 들어 설명한다. 그 과정에서 새의 감각에 대한 많은 편견을 교정해준다.

새는 흔히 시각은 뛰어나지만 청각과 후각은 없는 것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저자에 따르면 새들도 오감을 느끼며, 감각이 둔할 것 같은 부리에도 촉각이 발달했다. 새도 사람처럼 맛봉오리를 통해 맛을 느끼지만 그 위치가 사람과 달리 부리 끝이나 턱이란 사실이 흥미롭다. 새에게도 감정이 있는지, 또 사람은 느끼지 못하는 자기장을 어떻게 느끼는지에 관한 분석도 눈여겨 볼만하다.

저자는 새들이 다양한 감각을 느끼고 살아가는 방식을 전하면서, 사람과 새의 감각이 완전히 같지도 다르지도 않다는 점을 강조한다. 때문에 사람의 감각과 새의 감각에 대한 연구는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본다. 새의 감각에 대한 이해가 넓어진다면, 사람과 자연에 대한 이해도 함께 깊어질 것이라는 게 저자의 생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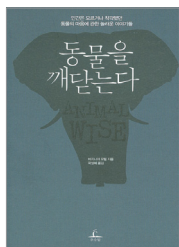
저자 소개

팀 버케드(Tim Birkhead) 1950년 영국에서 태어나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영국왕립학회 회원이자 현재 셰필드 대학교 동물학과 교수이다. 새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 세계를 누비며 연구를 진행했고, 『케임브리지 조류백과사전』, 『붉은 카나리아』, 『새의 지혜』 등을 집필했다.



팀 버케드 지음 | 노승영 옮김
에이도스 | 2015

함께 읽으면 좋은 책



동물을 깨닫는다
버지니아 모렐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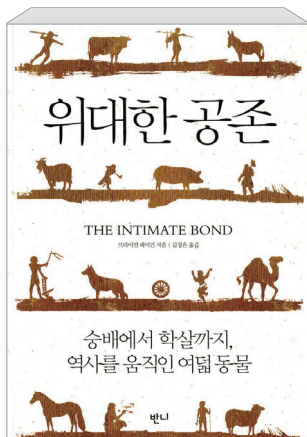
오감 프레임
로렌스 D. 로젠블룸
2011



까막딱따구리 숲
김성호 옮김
2011

책 속 한 문장

“우리의 감각계는 새가 어떻게 세상을 경험하는지 이해하는 유일한 출발점이며, 새가 우리에게 없는 감각이 있음을 깨닫는 순간, 또한 새와 사람이 공유하는 감각이 동일하다고 무턱대고 가정하지 않는 순간 우리 자신의 세상을 새롭게 이해하기 시작할 수 있다.” ■ 251쪽



브라이언 페이건 지음 |
김정은 옮김
반니 | 2016

사서의 추천 글

선사시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가축화된 동물들의 도움을 받아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동물들을 끊임없이 이용하고 환경을 파괴해 그들을 멸종 위기로 몰아가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동물을 가축화했을 때도 인간은 키우는 동물에 이름을 붙여주었고, 같은 공간에서 생활했으며, 동물과 인간의 관계는 상호보완적이었다. 인간은 왜 동물을 기르게 되었을까? 아마 가장 큰 이유는 ‘걸어 다니는 식량’이 필요했었을 것이다. 그중 두드러지는 동물이 소와 말이다. 소와 말은 농경과 물자 이동, 전쟁에 활용되었다. 나머지 가축화된 동물도 소유의 대상이자 신분을 상징하는 수단으로 살아있는 재산이 되었다.

이 책에서는 인간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지금도 인간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여덟 종의 동물이 인류 역사의 중요한 변화에 어떻게 연관되었는지를 살펴본다. 또한 동물과 인간이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았는지’를 따라가 보면서 그 관계가 일방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힌다.

이 책은 자연과 공존하는 것이 시급한 독자들에게 지금까지와는 다른 시선으로 역사와 인간 그리고 동물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저자 소개

브라이언 페이건(Brian Fagan) 고고학과 인류학을 전공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현장 연구와 동아프리카의 유적 발굴을 수행했으며, 고고학의 대중화를 위한 교양서 저술과 강연을 해오고 있다. 『기후, 문명의 지도를 바꾸다』, 『인류의 대항해』, 『고대 문명의 이해』 등의 책을 썼다.

책 속 한 문장

“놀라울 정도로 짧은 시간에 동물과 인간의 관계는 서로 주고받던 동반자 관계에서 한쪽이 우월한 일종의 주종 관계가 되었다. 인간은 주인이 되었고, 이에 따라 동물의 역할도 달라졌다.” **98쪽**

함께 읽으면 좋은 책



꽃을 읽다
스티븐 부커먼
2016



매혹하는 식물의 뇌
스테파노 만쿠소,
알렉산드라 비올라
2016



판다의 엄지
스티븐 제이 굴드
2016

사서의 추천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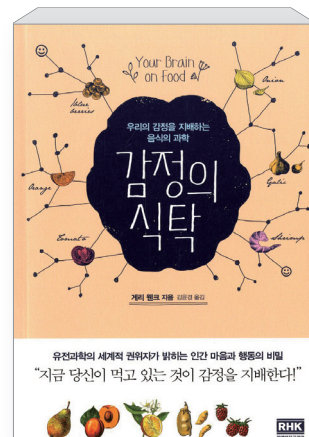
우리의 모든 행동에는 뇌가 관여한다. 뇌에서는 방대한 신경세포가 신경 전달물질이라는 특별한 화학물질을 방출해 정보를 주고받는다. 우리가 섭취하는 건 약물이든 음식물이든 모두 신경세포의 작용에 영향을 미친다.

이 책은 구체적으로 몇몇 신경전달물질 시스템과 화학물질들의 기본 역할을 살펴보고, 입으로 들어가는 다양한 물질이 신경전달물질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예를 들어 커피나 콜라를 마실 때 도취감과 행복감이 밀려오는 것은 카페인이 도파민 신경세포를 활성화 해주기 때문이다. 초콜릿에 포함돼 있는 화합물의 다수는 뇌에서 항정신성 효과를 일으킨다고 한다. 우리는 섭취하는 음식과 약물의 성분에 따라 몸 컨디션과 기분이 달라질 수 있음을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다. 이 물질들은 신경전달물질이나 영양소가 되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킨다. 한마디로 어떤 약물, 음식을 섭취하느냐에 따라 감정의 상태가 큰 폭으로 변한다고 할 수 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질들이 우리의 마음을 조절하는 것이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음식과 약물, 그리고 뇌라는 복잡하고 어려운 주제에 대한 최신의 지식을 간결하고 재미있게 전달하고 있다.

저자 소개

게리 웬크(Gary Wenk) 만성 뇌 염증과 알츠하이머병의 동물모델 연구, 뇌 기능에 미치는 약물 효과 연구에 관한 최고 권위자다. 알츠하이머병의 진행을 늦추고 일반적 · 병적 노화로부터 뇌를 보호하는 약물 연구에 주력하고 있다.



게리 웬크 지음 | 김윤경 옮김
RHK(알에이치코리아) | 2015

함께 읽으면 좋은 책



(하리하리의) 음식 과학
이은희
2015



뇌를 잘 깨우는 음식
이쿠타 사토시
2006



치매, 음식이 답이다
한설희, 아워흠
2014

책 속 한 문장

“뇌의 주요 목적은 우리가 살아남아 유전자를 후대에 전달하도록 돕는 것이며, 이 목적을 이루는 데 먹는 행위는 우리 뇌가 계획하고 통제하는 아주 중요하고 필수적인 행동이다.” ■ 58쪽

사서의 추천 글

근대 이후로 인간의 기대 수명이 두 배 가량 늘었음에도 노화와 장수에 대한 이슈는 여전히 우리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다. 그러나 “왜 늙는가?”에 대한 답변은 아직 명료하게 밝혀진 바가 없다. 이 책은 노화의 메커니즘을 탐구하기 위해 개체의 몸집, 서식 환경, 유전자 등의 요인에 다각도로 접근하여 그 실마리를 제공한다.

생물의 궁극적인 목적은 생존이며, 이를 위해 선택한 방법이 불멸의 육신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자손을 남기는 것이었다는 점을 놓치지 말자. 저자는 생명체란 어떤 식으로든 죽음이라는 위험 요인을 안고 있기에 사망률에 따라 적절한 번식 시기가 정해지며 이것이 수명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한해 살이풀인 양귀비와 4700살이 넘는 브리슬콘 소나무처럼 생물종 간에 삶의 속도 차이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노화가 이 일련의 일부 과정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저자는 피토의 역설과 삶의 속도 가설, 활성 산소 노화 이론 그리고 암과 텔로미어의 상관관계에 이르기까지 노화를 설명하고자 했던 시도들을 어렵지 않게 다루며, 자연선택에 의해 노화 또한 생존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화해왔다는 견해를 제시한다. 늙음에 대해 ‘왜?’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은 독자라면 필독해볼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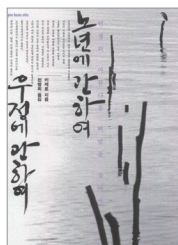
저자 소개

조너선 실버타운(Jonathan Silvertown) 생물학자이자 작가. 주로 진화생물학, 사회생물학 분야를 연구해왔으며, 현재 영국 에든버러 대학교 교수로 일하고 있다. 저서로 『씨앗의 자연사』, 『에텐의 악마: 식물의 다양성에 관한 패러독스』, 『99퍼센트 유인원: 진화의 비밀』 등이 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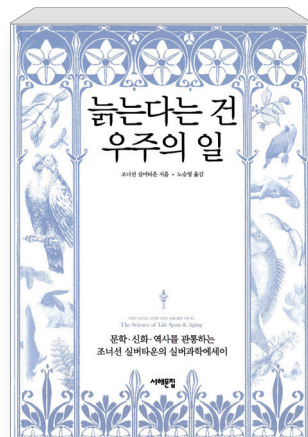
암
싯다르타 무케르지
2011



노년에 관하여
관하여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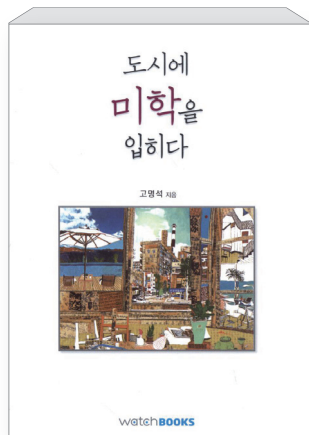
불멸의 꿈
류형돈
2016



조너선 실버타운 지음 |
노승영 옮김
서해문집 | 2016

책 속 한 문장

“뚜렷해진 것은 노화—즉, 나이에 따른 생물학적 기능의 점진적 저하—가 수명의 결정 요인 중 하나이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아니라는 것이다.” ■ 119쪽



고명석 지음
Watch Books | 2015

사서의 추천 글

사람이 태어나 젊은 시절을 보내고 늙고 병들어 죽는 것처럼, 도시 역시 생로병사를 겪는다. 도시를 바라보는 데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다. 이 책에서는 도시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아름다워야 한다는 의미에서의 도시미학과 도시정책에서 현안으로 대두한 도시재생을 다루고 있다.

저자는 각 도시가 재생에 성공한 비결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그동안 도시 재생이라 하면 새로 건물을 올리고 길을 넓히거나 신도시를 개발하는 일에 치중했다. 그러나 이제는 쇠락한 도심의 재발견, 주거공간의 재조명, 단절된 도시공동체의 재탄생 등 도시를 재발견하는 과정이 주목받고 있다. 이를 통해 도시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되살리려는 도시 재생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저자는 “도시재생은 도시 디자인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도시는 단순히 건축물들을 한데 모아 놓은 공간이 아니다. 도시는 삶의 공간이기 때문에 도시재생에도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사와 문화를 활용한 도시재생이 이뤄져야 하며, 경제재생형 도시재생, 노후주거지 맞춤형 도시재생 그리고 사람이 행복한 도시재생이 필요하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이 책에서는 도시미학에 대한 다양한 소개도 흥미로운 읽을거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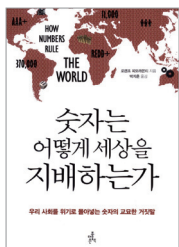
저자 소개

고명석 전문저술가, 전략컨설턴트, 도시미학이 관심 분야이다. 대학에서 문화예술과 미학 등을 강의하였다. 국회정책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에는 문화예술, 방송과 뉴미디어, 관광 등 분야의 법제와 정책개발을 하였다. 저서로는 『후마니타스를 말하다』, 『예술과 테크놀로지』 등이 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책 속 한 문장

“도시가 아름답기 위해서는 그 안에 살고 있는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져야 한다. 이러한 점이 진실한 의미에서의 도시재생이다.” ■ 164쪽



숫자는 어떻게 세상을 지배하는가
로렌조 피오라몬티
2015



시티 오브 뉴욕
최이규, 음성원
2015



에코빌리지,
지구공동체를 꿈꾸다
캐런 T. 리트핀
2015

사서의 추천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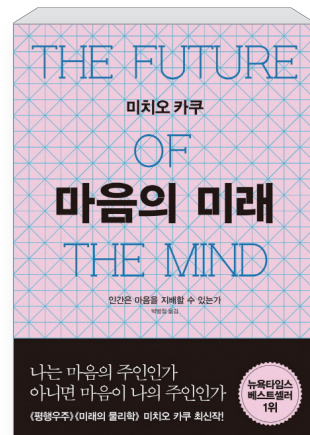
영화 <인셉션>에서 주인공 코프는 타인의 꿈속에 들어가고 생각을 조작할 수 있는 인물로 그려진다. 이런 코프의 능력이 사실 우리 마음의 미래라면 어떨까.

이론물리학자인 저자는 뇌과학 · 신경과학 분야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물리학 법칙에 기반하고 시제품이 존재하는’ 기술들을 분석한다. 두뇌스캔부터 텔레파시, 염력, 기억 저장, 외계인의 두뇌 같은 흥미로운 주제와 함께 생각만으로 소통하는 브레인넷의 구현, 기억의 조작 및 지능의 향상 가능성을 언급한다. 미래에는 꿈과 마음을 조종하는 등 의식 자체를 변형시키는 일도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 육체를 초월한 에너지 형태의 의식만으로 인간을 정의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예견이다.

마음의 미래상에 관해 낙관적인 저자이지만, 기술을 개발 · 사용하는 ‘지혜’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신체의 제약에서 의식이 자유로워질수록, ‘모든 것을 좌우하는 마음’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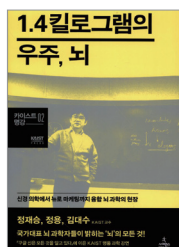
저자 소개

미치오 카쿠(加来道雄) 1947년에 태어난 일본계 미국인이다.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하고 US버클리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끈 이론 · 평행우주론의 창시자로, 현재 뉴욕시립대학교 물리학과 교수이다. 과학 전문 TV와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하며 과학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으며, 『평행 우주』, 『불가능은 없다』, 『미래의 물리학』 등을 집필했다.



미치오 카쿠 지음 | 박병철 옮김
김영사 |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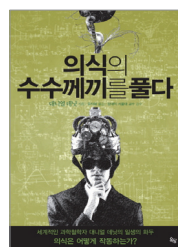
함께 읽으면 좋은 책



1.4킬로그램의 우주, 뇌
정윤, 정재승, 김대수
2014



통찰의 시대
에릭 캔델
2014



의식의 수수께끼를 풀다
대니얼 데닛
2013

책 속 한 문장

“2천여 년 전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다. “지혜는 자기 자신을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이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 머나먼 길을 가고 있는 중이다.” ■ 512쪽



롭 브룩스 지음 |
최재천·한창석 옮김
바다 | 2015

사서의 추천 글

현재의 우리 모습과 존재에 대해 ‘진화’가 절대적이며 모든 답을 제시해주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저자에 의하면 진화는 우리가 행동하고 살아가는 방식과 그 근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예컨대, 우리의 선조가 에너지와 영양분을 어떻게 처리하도록 진화했는지 그리고 농업·산업혁명 이후 우리가 에너지를 공급받는 환경이 얼마나 변화했는지 간의 상호관계를 파악한다면 최근 몇 세대 만에 급격히 부상한 비만 문제의 근원을 짚어볼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이 책은 진화생물학의 관점에서 왜 어떤 사회는 일부다처제를 택했으며, 또 어떤 사회는 남아 선호 사상으로 인해 성비 불균형을 일으키는지, 그리고 왜 세계적으로 출생률이 낮아지고 있는지 고찰한다. 또한 생물이 자신의 유전자를 더 강력하게 전승하기 위해 발달시킨 전략인 성선택과 복잡한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버무려진 결과로서 여러 사회 현상을 흥미롭게 설명한다.

책의 원제인 『섹스, 유전자, 그리고 로큰롤(Sex, Genes & Rock 'n' Roll)』에 걸맞게 저자는 성선택이 로큰롤이라는 음악 장르와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해서도 재기 있게 풀어나간다. 진화생물학자의 눈으로 세상을 통찰한 매력적인 책이다.

저자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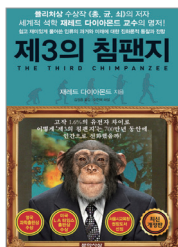
롭 브룩스(Rob Brooks) 성과 진화를 연구하는 호주의 진화생물학자이다. 2007년부터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즈대학교(UNSW) 교수로 재직 중이며, 대학 내 진화 및 생태연구센터 원장직도 겸임하고 있다. 동물의 성선택과 양성 갈등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자인 그는 노화, 경제적 불평등, 비만, 성비 치우침 등 현대 인류의 여러 모습을 진화생물학으로 설명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책 속 한 문장

“개체를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유전자는 단 몇 세대 만에 널리 퍼질 수 있고, 겨우 열 세대 전에 매력적이었던 형질이 오늘날에는 평범한 것이 될 수도 있다.”

■ 310쪽



제3의 침팬지
재레드 다이아몬드
2015



다윈의 식탁
장대익
2014



(사회생물학.)
인간의 본성을 말하다
최재천 외
2008

사서의 추천 글

인간의 미각은 굉장히 예민하고 섬세하다.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미각에 따라 짠맛, 단맛, 신맛, 쓴맛 그리고 지방의 맛까지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이 미각이 둔해지고 약해지면 그 맛을分辨하는 데 어려움이 생긴다. 단맛을 잘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당뇨, 짠맛을 잘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고혈압에 걸리기 쉽다. 그리고 살찐 사람은 마른 사람보다 단맛에 둔감한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 책은 미각과 건강의 연결고리를 분석하고, 둔감해진 미각을 되돌리기 위한 방법을 알려준다.

맛을 아는 것은 단순히 즐거움의 수단일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좋은 방법이다. 맛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감각기관뿐 아니라 뇌의 욕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미각이 갖는 인지 과정은 매우 정신적이고 경험적인 것이다.

저자는 미각을 강하게 자극하는 진한 맛의 편리함에 길들여지면서 우리의 미각이 둔해지고 있으며, 한편으로 너무 자극적인 맛을 쫓아가다 보면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말한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병을 키울 수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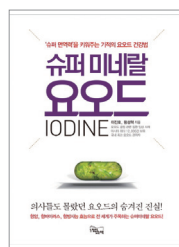
저자 소개

스즈키 류이치(鈴木隆一) 미각 연구가이다. 게이오대학과 공동 연구하여 미각을 수치화할 수 있는 미각센서를 개발했고, 미각과 음식의 맛 궁합을 연구하고 있다. 저서로는 『맛 박사가 추천하는 절대로 살찌지 않는 식사법』이 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소금중독 대한민국
김성권
2015



슈퍼미네랄 요오드
이진호, 황성혁
2015



의사들도 모르는
기적의 간 청소
안드레이스 모리츠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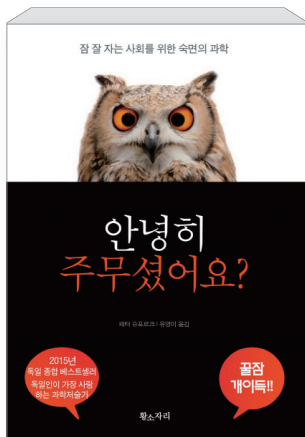


스즈키 류이치 지음 | 이서연 옮김
한문화 | 2015

책 속 한 문장

“입속에서 음식을 씹으면서 맛보는 것은 맛을 충분히 느끼고 즐기는 행위로 인간이 가장 열심히 발달시켜온 능력이다. 하지만 미각신경을 단련하기 위해서는 맛보는 일뿐 아니라 맛을 기억하고 음미하는 일도 중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맛은 단순한 맛이 아니라 향, 식감, 씹는 감촉 등 후각이나 촉각도 포함한 종합적인 감각이다.”

133쪽



페터 슈포르크 지음 | 유영미 옮김
황소자리 | 2016

사서의 추천 글

잠자는 것은 깨어있는 것만큼 삶에 중요하다. 잠은 신경계를 가진 동물만의 특성이며, 잠을 자는 동안 뇌는 새로운 호르몬과 화학적 전달자를 분비해 온 몸의 새로운 세포를 생성해낸다.

인간은 스스로의 의지로 잠들고 깨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모든 것은 우리 몸속에 있는 '생체리듬'이 좌우한다. 밝음과 어둠, 활동과 수면으로 이루어진 생체리듬은 자연이 설계한 생명체의 핵심요소다. 그러나 햇빛 약한 도시환경, 온갖 스마트기기, 과도한 조명 때문에 우리 몸의 생체시계가 서서히 둔해지고 있는 것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여기에 장거리출장, 야간근무 등 억지로 활동 시간대를 바꾸는 일 또한 가세한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현대인은 만성피로와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저자를 비롯한 수면과학자와 시간생물학자들이 보기에 현대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밤낮의 리듬이 본래의 기능을 잃고 흐트러진 것에 기인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 책은 다양한 이유로 숙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잘못된 수면습관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며, 우리 삶에서 잠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설득력 있게 들려준다.

저자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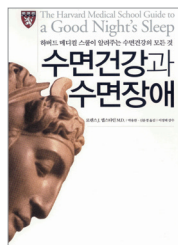
페터 슈포르크(Peter Spork) 저명한 신경생물학자이자 독일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과학저술가이다. 『인간은 유전자를 어떻게 조종할 수 있을까』, 『수면북』을 비롯해 그가 저술한 과학교양서들이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인기 저술가로 거듭났다. 현재 그의 책은 9개 언어로 번역되었다.

책 속 한 문장

“안 보른은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면역력이 좋아지려면 잠을 자야 한다’고 요약한다. 다른 많은 연구자들 역시 나이가 들면서 깊은 잠을 자는 시간이 적어지는 것이 노화와 학습능력 감퇴의 원인 중 하나라고 보고하고 있다.”

13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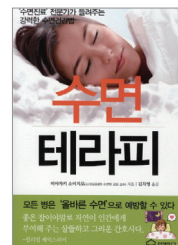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수면건강과 수면장애
로렌스 J. 엡스타인
2008



기적의 수면법
오타나 노리오,
가타히라 겐이치로
2015



수면 테라피
미야자키 쇼이치로
2013

사서의 추천 글

인류는 다른 많은 물품에 그랬던 것처럼,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다양한 가치를 술에 부여해왔다. 저자 로드 필립스는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랜 발명품인 술의 기원과 주조(酒造)과정, 술이 역사와 종교, 정치에서 행한 역할 등 세계를 떠도는 다양한 술이 가진 이야기와 문화에 대해 다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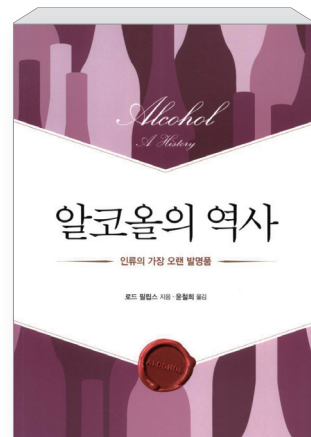
이 책은 술이 최초로 만들어진 시기와 초기 인간사회 때부터 있었던 발효주인 포도주와 맥주의 역사를 살펴본다. 포도주의 증류로 새롭게 나타난 알코올의 특징과 그로 인해 나타난 술의 상업화와 다양화를 설명하고, 치료약으로서 술이 어떻게 쓰였는지도 보여준다. 또 종교에서 술의 역할과 미친 영향, 금주령과 금주법을 통해 술이 일시적으로 추방당했던 역사를 살펴본다.

책에서는 유사 이래로 시간이 흐르는 동안 종교적·정치적·경제적·문화적 상황이 달라질 때마다 인류는 술을 처한 상황에 따라, 입장에 따라, 관점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고 평가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온갖 종류의 술이 인류의 역사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볼 수 있다.

역사 속에 펼쳐진 술의 이야기를 알게 된다면 술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짐도 달라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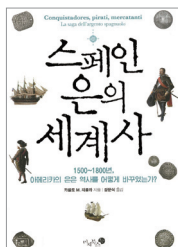
저자 소개

로드 필립스(Rod Phillips) 오클랜드의 레스토랑에서 '와인 스텐더드'로 일했다. 현재 《오타와 시티즌》에 기고하는 와인 칼럼니스트이자 『와인의 역사』, 『온타리오 와인 컨트리』, 『LCBO에서 가장 가치 높은 와인 500종』을 포함한 많은 책의 저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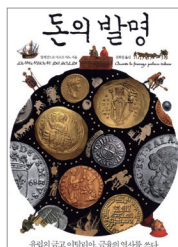


로드 필립스 지음 | 윤철희 옮김
연암서가 | 2015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스페인 은의 세계사
카를로 M. 치올라
2015



돈의 발명
알레산드로 마르초 마노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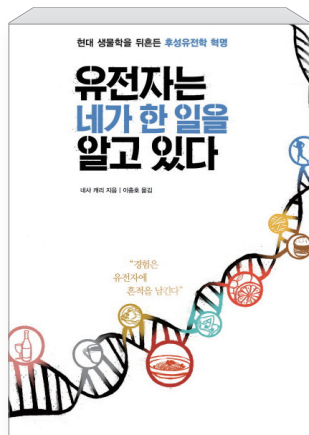


(이원복 교수의) 와인의 세계, 세계의 와인. 2
이원복
2008

책 속 한 문장

“수백 년, 수천 년에 걸쳐 많은 지역의 - 술을 인식하고 가치를 평가하고 소비한 방식들을 포함하는 - 술 문화를 조사할 때,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항상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점 하나가 술은 고도로 논란이 심한 물품이라는 것이다.” ■ 498쪽

유전자는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



네사 캐리 지음 | 이충호 옮김
해나무 | 2015

사서의 추천 글

기존의 유전학 이론만으로는 설명하기 부족한 생명의 진화과정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는 것이 ‘후성유전학’이다. ‘후성유전학’이란 유전자가 제공하는 암호들이 세포내에서 어떤 식으로 제어되고, 발현되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유전자 행동의 변화는 우리 환경, 먹는 음식, 노출된 오염물질 등으로 일어날 때가 많다. 후성유전학을 이야기할 때 가장 빈번하게 거론되는 사례가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는 일란성 쌍둥이다. 이들은 같은 유전자를 가졌음에도 자라면서 생물학적으로 서로 똑같은 형질을 갖지는 않는다. 이는 먹고, 마시고, 경험하는 모든 생활방식이 유전자에 흔적을 남기고, 유전자의 운명에 변화를 가져 오기 때문이다. 곧 후성유전체는 환경과 경험에 의해 변화할 수 있다!

이 책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인가. 바로 체질과 인성, 신진대사 등은 그저 주어지거나 물려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물론 생물학적 운명, 즉 육체와 정신을 주관하는 유전 프로그램은 분명히 있다. 그러나 그 운명에 영향을 끼치는 생활방식에 변화를 줌으로써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자손의 체질까지 건강하게 할 수 있다. 이 책은 후성유전학의 흥미로운 세계를 소개해주는 입문서로 읽어볼 만하다.

저자 소개

네사 캐리(Nessa Carey) 후성유전학자이다. 10여 년 넘게 생명공학과 제약 분야에서 일하면서, 하버드 의대학원, MD앤더슨암센터 등 다양한 후성유전학 분야 연구자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지은 책으로 『유전자는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 『정크』가 있다.

책 속 한 문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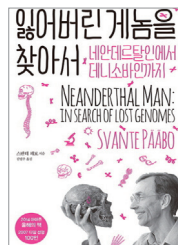
“세포들은 영양 공급 감소에도 불구하고 태아를 가능한 한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려고 대사 방식이 변하게 된다. 세포들은 영양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유전자 발현을 변화시키는데, 그러면 유전자에 일어난 후성유전적 변형 때문에 미래에 일어날 발현 패턴도 그렇게 고정된다.”

141쪽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상식 밖의 유전자
마크 헨더슨
2012



잃어버린 게놈을 찾아서
스반테 페보
2015



유전자, 당신이 결정한다
샤론 모알렘
2015

사서의 추천 글

음식은 그 자체에 문화가 담겨 있고, 그 유래나 만드는 방법에는 인간의 역사가 숨 쉬고 있다. 언어학자인 저자가 음식에 주목한 이유는 음식의 언어를 쫓다보면 역사의 흔적을 발견하고, 이 음식이 어떤 경로를 통해 누구에게 전파되어 그들의 문화에 스며들게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음식 언어에 대한 흥미로운 탐색 덕분에 케첩은 서양이 아닌 중국에서 기원했으며 원래는 토마토가 아닌 생선이 들어간다는가, 돼지(Pig)는 고기가 되면 왜 Pork가 되며, 밀가루(flour)와 꽃(flower)은 무슨 관계인지 등 다양한 사실을 접할 수 있다.

저자는 음식 외적인 것들, 메뉴판에 담긴 영업 전략과 과자포장지에 적힌 홍보문구 등도 분석거리로 삼는다. 흥미롭게도 맛집 리뷰에서 호평과 악평의 차이점을 분석하며 인간의 진화와 심리, 행동을 해독하는 실마리까지 얻는다. 한 문명이 발전하고 융화되는 것은 바로 음식과 직결되기에 그만큼 음식에는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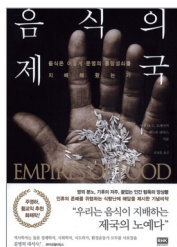
저자 소개

댄 주래프스키(Dan Jurafsky)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교양 강의 '음식의 언어'를 가르치는 스탠퍼드 대학의 언어학 교수이자 계량언어학 분야의 석학이다. 그는 1998년 과학과 공학 분야 교수에게 주어지는 권위 있는 상인 NSF 커리어상과 2002년 천재들의 상 맥아더펠로우십을 받았다.



댄 주래프스키 지음 | 김병화 옮김
어크로스 | 2015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음식의 제국
에번 D. G. 프레이저,
앤드루 리마스
2012



서울을 먹다
황교익, 정은숙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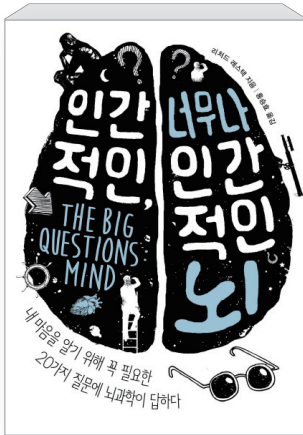


탐식의 시대
레이철 로든
2015

책 속 한 문장

“차이에 대한 존중, 공유되는 인간성에 대한 신뢰 등이 자비의 조리법에 들어가는 재료다. 그것이 음식의 언어가 주는 마지막 교훈이다.”

■ 347쪽



리처드 레스탁 지음 |
홍승호 옮김
Humanist(휴머니스트) | 2015

사서의 추천 글

오랫동안 철학자들이 전념해 온 마음에 대한 의문을 이제는 뇌과학이 묻기 시작했다. 마음은 무엇이고 어떻게 작동하는가? “마음에 꼭 들다.” “마음에 담아 두지 마라.” 등 ‘마음’은 일상 속에서 다양한 표현으로 사용된다. 마음이란 무엇일까? 두뇌는 과연 마음과 같은 것일까?

이 책은 마음에 관한 중요한 질문에 대해 신경과학적 발견을 근거로 답한다. 1부에서는 뇌가 외부의 세계를 어떻게 경험하고 받아들이는지를 살펴보고, 2부에서는 인간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는지에 관해 이야기한다. 3부에서는 인간만이 가진 능력이 무엇이고 인간의 뇌가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4부에서는 이 모든 것에 대해 생각하는 ‘나’는 무엇일까를 질문한다. 더불어, 잊고 싶은 생각은 오히려 더 그 생각에 더 빠져들게 만드니 다른 것에 관심을 돌리는 것이 좋다는 조언 등 뇌 과학을 근거로 마음을 읽어 내는 성과들과 만나게 한다.

저자는 뇌과학으로 두뇌가 하는 모든 일을 설명한다 하더라도 마음 현상을 온전히 설명하기란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다. 그럼에도 마음의 문제에 대해 고민해보고 자신만의 결론을 찾아보자는 제안은 귀기울여볼 만하다.

저자 소개

리처드 레스탁(Richard M. Restak) 신경과학자. 조지워싱턴 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 임상 교수로 재직 중이며 신경학과 정신건강의학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글쓰기를 비롯해 텔레비전과 라디오 출연 등 다양한 매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스마트하게 사고하라』, 『용서하기로 선택하기』, 『은퇴 없는 삶을 위한 전략』 등이 있다.

책 속 한 문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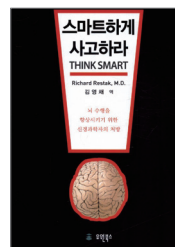
“뇌는 가소성을 근본적인 능력으로 지녀 일생동안 끊임 없이 변화하는 기관이다. 삶의 경험에 대응하는 뇌의 변화는 수십 년에서 며칠, 몇 시간, 심지어는 몇 초 동안에도 일어날 수 있다. 오늘 당신의 뇌는 어제와 오늘의 경험이 뇌에 미친 영향 때문에 어제 당신의 뇌와 다르다.”

4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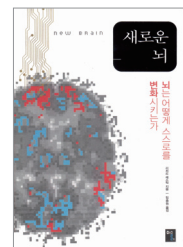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충동의 배후
데이비드 루이스
2015



스마트하게 사고하라
리처드 레스탁
2013



새로운 뇌
리처드 레스탁
2004

사서의 추천 글

동그란 바퀴 두 개로 이루어진 단순한 구조의 탈것, 바로 자전거다. 자전거가 특별한 것은 이 작고 소박한 기계가 그토록 많은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다양한 문화를 만들어왔다는 것이다.

자전거를 타고 5개 대륙, 50여 나라를 여행한 경력의 저자는 자신만을 위해 만들어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새 자전거를 원했다. 부품을 하나하나 조립하고, 프레임의 색상을 고르고 제작해나가는 모든 과정과 마침내 완성된 자전거에 오르기까지의 감동이 고스란히 전해진다. ‘꿈의 자전거’를 만들어가는 여정과 함께 자전거가 처음 페달, 기어 등의 제 모습을 갖추기까지 발달 과정, 보잘것없는 도구를 인류의 탈것으로 만든 선구자들, 명작들의 탄생과정 등 두 바퀴가 해낸 놀라운 일과 자전거를 사랑한 사람들의 감동적인 일화도 만나볼 수 있다.

인간의 끊임없는 호기심으로 만들어낸 자전거는 젊은이에게 속도감을, 여성에게 자유를, 서민들에게는 큰 즐거움과 실용성을 선물로 안겼다. 자전거에 얹힌 많은 이야기를 담은 ‘자전거 예찬’으로서 자전거의 두 바퀴가 가져다주는 단순한 즐거움과 행복을 한가득 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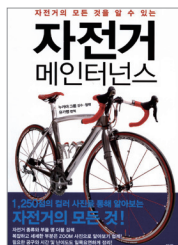
저자 소개

로버트 펜(Robert Penn) 20대 후반에 변호사 생활을 접고, 전 세계를 여행한 그는 자전거를 타고 5개 대륙, 50여 나라를 누볐다. 지금은 《파이낸셜타임스》, 《선데이타임스》등 여러 매체에서 저널리스트로 활동한다. 방송인으로도 유명한 그는 BBC 방송국에서 〈내 인생을 달리다 - 자전거 이야기〉라는 다큐멘터리를, 영국 우드랜즈 지역에 관한 6부작 시리즈 〈야생 숲 이야기〉를 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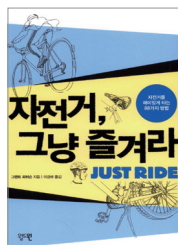
함께 읽으면 좋은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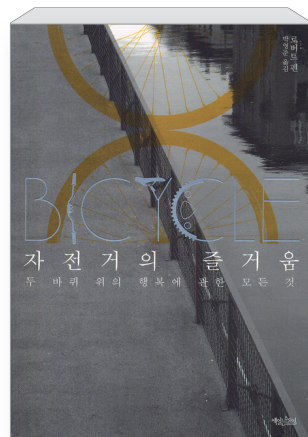
유혹하는 자전거
미하엘 엠바허
2012



자전거 메인テナンス
누키아 그램 감수 · 협력
2014



자전거, 그냥 즐겨라
그랜트 피터슨
2014



로버트 펜 지음 | 박영준 옮김
책 읽는 수요일 | 2015

책 속 한 문장

“자전거의 물리적 원리를 학문적으로 고찰했던 『바이시클링 사이언스』는 자전거가 한쪽으로 기울면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적절한 동작을 취해야 한다. 즉 발동작을 자전거가 기울는 방향으로 가속하면 여기서 생긴 가속도에 대한 반작용으로 인해 쏠림 현상에서 오는 불균형이 극복된다.” ■ 93쪽



데릭 청, 에릭 브랙 지음 |
홍성완 옮김
지식의 날개 | 2015

사서의 추천 글

이 책은 전자정복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이다. 인류가 전자의 힘을 어떻게 생활에 이용해 왔는가를 말한다. 전신(telegraph)에서부터 스마트폰에 이르기까지 수십 가지의 주요 발견과 발명을 다룬다. 상상이 현실이 되기까지 천재과학자들이 써 내려간 창조의 역사이다.

저자는 전자와 관련된 일련의 발명을 연대순으로 훑어보는데, 특히 여러 가지 발명 사이의 연결고리, 즉 하나의 발명이 어떻게 다음 발명으로 이어졌는지 인과관계에 중점을 둔다. 벨 연구소의 트랜지스터 발명에서부터 마이크로 칩과 PC, 그리고 실리콘밸리 붐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례들이 이를 잘 보여준다. 새로운 기술 기반 사업을 시작하려는 경영자나 사업가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이기도 하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현대사회를 형성해 온 지속적인 혁신들에 대한 지식과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있는 정보화 시대의 기술에 대한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익한 책이다.

저자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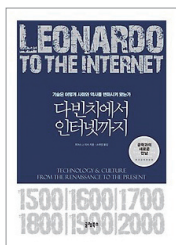
데릭 청(Derek Cheung) 미국 퍼듀 대학교에서 전기공학사 학위를,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같은 분야의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다. 대기업의 R&D 연구소로 시작해 하이테크 회사로 변신한 록웰 사이언티픽의 회장 겸 CEO로 현재 재직 중이다.

에릭 브랙(Eric Brach) 미국 캘리포니아 주 웨스트 로스앤젤레스 대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여러 잡지, 신문, 학술지 등에 글을 기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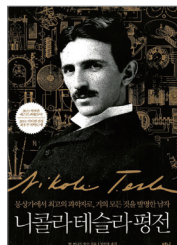
책 속 한 문장

“모든 전자기 현상의 근본적인 기원은 어떻게든 전자, 그리고 그것의 운동과 관련이 있다. 이 새로운 지식들은 결과적으로 반도체 기반의 고체 전자 산업을 탄생시켰으며, 현대에 와서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낳았다.” ■ 16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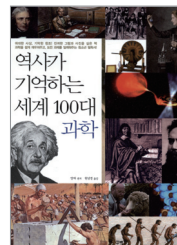
함께 읽으면 좋은 책



다빈치에서 인터넷까지
토마스 J. 미사
2015



니콜라 테슬라 평전
W. 버나드 쿨슨
2015



역사가 기억하는
세계 100대 과학
양희 편저
2010

사서의 추천 글

이 책은 극적인 통찰력을 경험하는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이 창조를 할 수 있고, 창조 행위가 마법에 가깝다는 창조성의 신화가 왜 잘못되었는지를 밝히는 책이다. 대신에 창조는 곧 노동이라고 말한다.

저자는 창조의 결과물은 평범하지 않지만, 그 과정은 평범하다고 한다. 창조자들은 의구심, 실패, 조롱, 거절에도 불구하고 인내한다. 새롭고 유용한 무엇인가를 만들 때까지 창조 작업에 거의 모든 시간을 쏟아 붓는다. 비법도, 지름길도, 단시간에 창조성을 획득하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왜 그것은 작동하지 않을까?’, ‘그것이 작동하게 만들려면 무엇을 바꿔야 할까?’라는 질문에서 창조 행동이 시작된다. 스티브 잡스가 남다른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천재적 재능도, 열정도 아니다. 세일즈 맨은 판매량과 고객 만족이 충족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스티브 잡스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왜?’라는 질문에 일생을 바쳤다.

훌륭하게 시작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훌륭한 모든 것은 ‘시작’에서 비롯된 결과다. 이 책은 시작하는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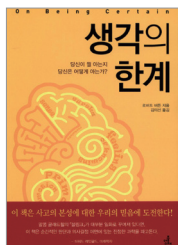
저자 소개

케빈 애슈턴(Kevin Ashton) 기술혁신가 겸 기업가. 런던 대학교 졸업 후 프록터 앤드 갬블(P&G)의 브랜드 매니저로 일하던 당시 RFID 네트워크 개발을 이끌었고, 처음으로 ‘사물 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이라는 용어를 창안했다. 한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의 IT 및 혁신기술 등을 주제로 한 정보기술 컨퍼런스에 기조연설자로 서고 있다.



케빈 애슈턴 지음 | 이은경 옮김
북라이프 |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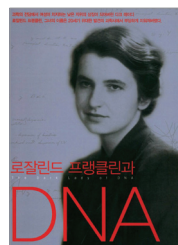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생각의 한계
로버트 버튼
2014



(심리학의 눈으로 본) 창조의 조건
테레사 M. 아마빌레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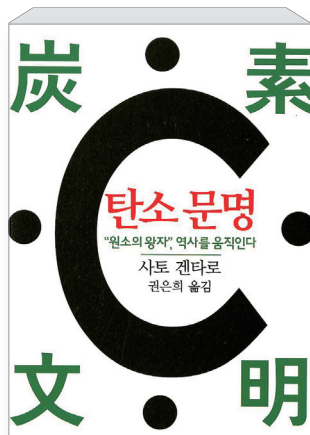


(로잘린드 프랭클린과) DNA
브렌다 매독스
2004

책 속 한 문장

“위대한 창조자들은 가장 훌륭한 전진이란 면밀히 조사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잘못과 오류를 발견하고, 도전하고 변화하기 위한 일보 후퇴일 때가 많다는 사실을 안다. 앞으로 나아가기만 해서는 미로에서 탈출할 수 없다. 때로는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뒤에 있기도 한다”

■ 151쪽



사토 겐타로 지음 | 권은희 옮김
까지 | 2015

사서의 추천 글

탄소로 이루어진 ‘탄소화합물’은 생명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DNA로부터 삶을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포도당에 이르기까지 일상생활 대부분의 사물 속에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인류는 ‘탄소화합물’을 다양하게 활용해왔다. 자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탄소화합물인 석유는 자동차와 선박의 시대를 열었으며, 합성섬유, 합성 플라스틱과 같은 생활품의 원자재가 되면서 인류가 가장 의존하는 에너지원이자 산업재료가 되었다. 게다가 카페인, 니코틴, 에탄올 같은 탄소화합물은 뇌에 작용하여 인류의 정신을 움직이고 문명사를 바꿔놓기도 했다. 이렇듯 문명의 역사에서 주역으로 활약해온 탄소가 각종 기후변화의 주범으로 지적되며 저탄소, 탈(脫)탄소라는 용어들과 함께 현대사회에서 멀리해야 할 원소가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탄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자원을 무분별하게 잘못 사용하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결국 탄소를 어떻게 이용하는가에 인류의 미래 또한 결정될 것이다. ‘탄소문명’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인류의 과거, 현재, 그리고 다가올 미래까지 만나보게 해주는 책이다.

저자 소개

사토 겐타로(佐藤健太郎) 도쿄 공업대학 대학원 이공학연구과 석사과정을 수료했으며, 의약품 회사 연구원, 도쿄 대학 대학원 이학계 연구과 홍보 담당 특임 조교수 등을 거쳐 현재는 과학 관련 저술가로 활동하고 있다. 2011년에는 화학 커뮤니케이션 상을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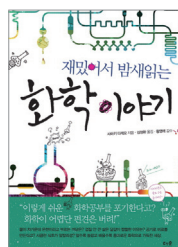
책 속 한 문장

“우리의 일상생활은 탄소화합물로 둘러싸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들 중에 탄소가 들어 있지 않은 것은 금속, 유리, 돌 정도이고, 그 외에 소재나 식료품의 많은 부분이 탄소 화합물이다.” ■ 15쪽

함께 읽으면 좋은 책



호모 케미쿠스
손병문, 강한기
2015



화학 이야기
사마키 다케오
2013



미술관에 간 화학자
전창림
2013

사서의 추천 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의 알코올 사랑은 지극하다. 1,000만년을 마셔왔고 1만년 동안은 직접 만들었으며 한 세기가 넘게 과학적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도 그 기능을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술’의 역사를 과학을 통해 만나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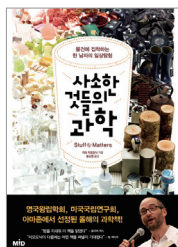
책의 제목 ‘프루프’는 알코올 함량을 나타내는 옛 용어로 20도짜리 소주는 40프루프로 표기된다. 저자가 젊은 시절 마신 한모금의 술을 계기로 시작되는 ‘프루프’는 효모에서 출발하여 알코올을 만드는 발효와 증류, 술의 향기와 맛, 음주 후에 일어나는 몸과 뇌의 변화, 숙취에 이르기까지 술의 전 생애를 과학적으로 분석한다. 발효와 증류 두 번에 걸친 기적을 통해 이루어진 양조는 “사회나 경제측면에서 혁명적인 사건이었고 호모사피엔스를 문명화된 인류로 만들었다.”

『프루프』는 기술 잡지 편집자이자 과학저술가인 아담 로저스가 쓴 책으로 2014년 미국의 여러 매체에서 올해의 과학도서로 주목 받았다. 생소한 화학, 생물학 용어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술을 둘러싼 과학사의 흥미로운 일화들, 생생한 대화가 돋보이는 현장취재, 미래의 대체 알코올의 전망과 도전까지 ‘술의 과학’을 통한 특별한 책읽기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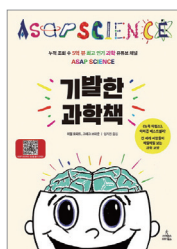
저자 소개

아담 로저스(Adam Rogers) 미국의 유명 IT, 기술 및 과학 잡지인 《와이어드》의 편집자로, 1994년부터 과학, 기술, 의학 등의 주제로 기고해 온 베테랑 과학 기자이다. 《와이어드》 2011년 6월호에 실은 ‘천사의 몫(ANGEL'S SHARE)’을 다룬 기사로 AAAS(미국과학진흥협회)의 과학 저널리즘 상을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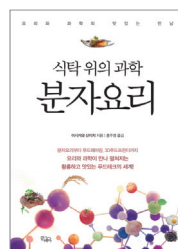
함께 읽으면 좋은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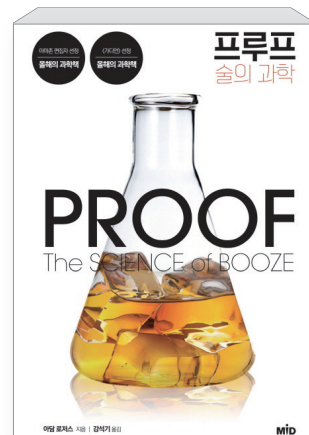
사소한 것들의 과학
마크 미오도닉
2016



기발한 과학책
미첼 모피트,
그레그 브라운
2016



(식탁 위의 과학) 분자요리
이시카와 신이치
2016



아담 로저스 지음 | 강석기 옮김
MID(엠아이디) | 2015

책 속 한 문장

“우리 인류는 술의 과학은 말할 것도 없고 과학을 알기 전에 이미 술을 만들고 있었다. 이제 우리는 좀 더 많이 알고 전체 과정을 좀 더 통제할 수 있다.” ■ 327쪽



이경남 지음
위닝북스 | 2015

사서의 추천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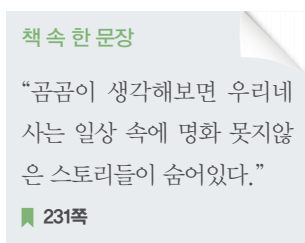
현대인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볼 시간조차 가지지 못한다. 하루하루 당연한 일상을 살아간다. 이 책은 화가와 그 화가의 명화에 관련된 다양한 일화를 소개하며 독자로 하여금 삶을 돌아보고 행복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게끔 한다. 저자는 꿈, 행복, 사랑, 희망, 감사 5가지 주제로 나누어 이에 대한 자신의 이야기를 명화에 대한 설명과 함께 들려준다. 명화를 통해 꿈을 키우고, 행복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사랑에 대해 정의를 내린다. 희망을 얻고, 감사하는 마음을 배우게 된다. 저자는 명화라는 매개체를 통해 우리의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어준다.

이 책은 명화감상이 어렵고,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명화란 마음으로 감상하는 것이라고 알려준다. 지치고 외로울 때 힘이 되어 줄 만한 이야기들이 많이 담겼다. 바쁘게 돌아가는 생활 속에서도 명화들과 함께하는 잠시의 여유를 가져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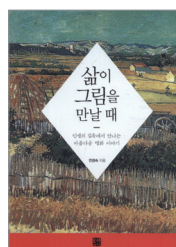
저자 소개

이경남 서양화가이자 일러그라피 디자이너. 저서로는 『버킷리스트 5: 삶이란 캠퍼스 위에 꿈을 그리다』 등이 있고, 수상경력으로는 아트저널 아티스트 '2011 올해의 작가상' 등이 있다. 또한 긍정심리강점 전문 강사, 청소년 진로 강의 및 컨설팅, 독서교육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예술을 매개로 삶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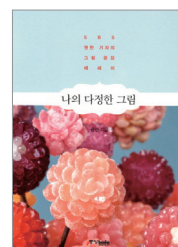
함께 읽으면 좋은 책



나를 위로하는 그림
우지현
2015



삶이 그림을 만날 때
안경숙
2013



나의 다정한 그림
권란
2013

사서의 추천 글

영화 <쇼생크 탈출>를 본 사람이라면, 주인공 앤디가 동료 수감자들을 위해 오페라를 방송하는 장면을 기억할 것이다. 아름다운 아리아가 울려 퍼지는 감옥의 정경은 이 영화의 명장면으로 꼽힌다.

『시네마 클래식』은 영화를 통해 편안하게 클래식 음악에 다가가게 하는 책이다. <귀여운 여인>에서 <설국열차>까지,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32편의 영화를 다룬다. 저자는 영화의 내용과 주제, 간략한 평을 들려준 뒤 영화에 사용된 클래식 앨범을 소개한다. 아울러 그 음악이 왜 그 장면에 쓰였는지 숨겨진 의미를 해설한다. 예로, <쇼생크 탈출>에서 앤디가 튜 부분은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중 <편지의 이중창>이다. 이는 부인과 하녀가 계락을 꾸며 백작을 혼내준다는 내용으로 뒤에 전개될 영화의 내용을 암시한다.

각 장에는 QR코드를 삽입해 스마트폰으로 해당 장면을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명장면을 타고 흐르는 클래식 음악은 의미를 알고 난 후 더 깊은 감동으로 다가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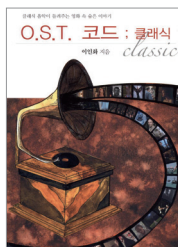
저자 소개

김성현 성악을 전공하고 평생 교사 생활을 했던 조부 덕분에 어려서부터 음악을 베풀었다. 조선일보 문화부 기자로 일하고 있다. 저서로 『클래식 수첩』, 『스마트 클래식 100』, 『365일 유럽 클래식 기행』 등이 있다. 블로그 '클래식 네버랜드'(blog.naver.com/classicandme)를 통해 책과 음악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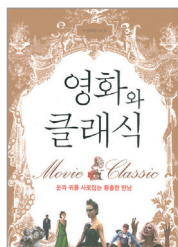


김성현 지음
아트북스 |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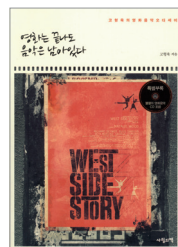
함께 읽으면 좋은 책



O.S.T. 코드; 클래식
이인하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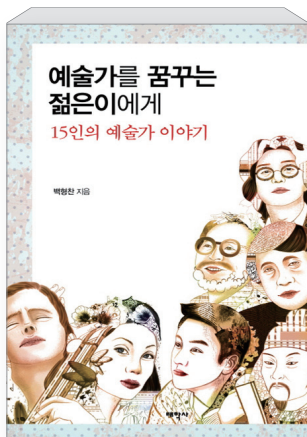
영화와 클래식
진회숙
2013



영화는 끝나도
음악은 남아있다
고형욱
2010

책 속 한 문장

“영화 결말의 묵직한 울림은 인생의 후반기와 음악의 후기작품을 서로 포개놓는 데서 빚어지는 화음과도 같은 것이다.” ■ 124쪽



백형찬 지음
태학사 | 2015

사서의 추천 글

위대한 예술가란 어떤 존재일까? 저자는 그들을 북방한계선의 혹독한 추위를 견디고 핀 발칸의 장미에 비유한다. 시련과 역경, 그리고 고난을 이겨내고 예술적 업적을 이룬 예술가들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향수의 재료가 되는 발칸의 장미와 같다는 것이다.

열다섯 예술가의 삶과 예술세계를 조명하면서 저자는 예술가가 지녀야 할 핵심 덕목 다섯 가지를 정하고, ‘열정’에는 강수진과 이사도라 던킨, 자클린 뒤 프레를, ‘용기’에는 나운규와 미야자키 하야오, 안도 다다오를, ‘성실’에는 박수근과 김영갑, 두보를, ‘휴머니티’에는 최인호와 정기용, 그리고 위화를 그 대표 예술가로 선정했다. 이들은 모두 제각각의 역경을 극복하고 위업을 이룬 드라마틱한 삶을 보여준다. 그들의 인생과 그 일화들 속에서 훌륭한 예술가가 되기 위한 용기와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책을 썼다는 저자의 말처럼 예술가 지망생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흥미를 가지고 읽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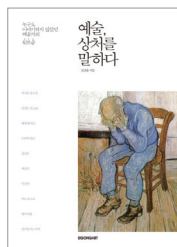
저자 소개

백형찬 현재 서울예술대학교 예술창작기초학부 교수이다. 대통령 자문 교육개혁위원회 실무위원, 대통령 자문 교육인적자원위원회 연구위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책임연구원, 청강문화산업대학교 교수를 역임했다. 그동안 지은 책으로는 『한국 예술의 큰 별 동량 유치진』, 『교육 이야기』, 『예술혼을 찾아서』, 『문화의 힘 교육의 힘』, 『글로벌 리더』, 『예술 예찬』 등이 있다. 계간지 《문학나무》를 통해 수필가로 등단했으며, 주요 일간지와 동인지에 칼럼과 에세이를 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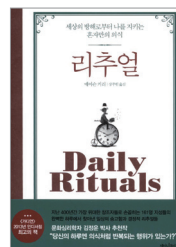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예술가의 지도
김미라
2014



예술, 상처를 말하다
심상웅
2011



리추얼
메이슨 커리
2014

책 속 한 문장

“예술가로 살아간다는 것은 멋진 일이지만, 예술가로 먹고 사는 것은 끔찍한 일이다.” ■ 268쪽

사서의 추천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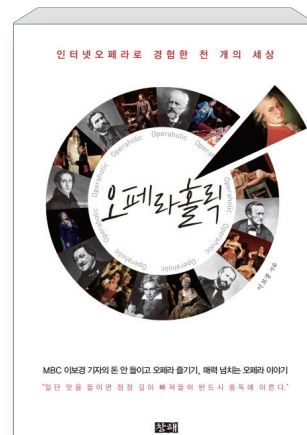
바쁜 일상으로 시간과 경제적 여유를 갖기 어려운 이 시대, 몸과 마음을 더 풍족하게 해줄 오페라의 세계를 인터넷을 통해 즐길 수 있게끔 소개한 책이다.

악보가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작품 <에우리디체>의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다양한 배경 지식을 곁들여 명품 오페라의 세계로 안내한다. 아름다운 목소리를 지키기 위해 거세한 카스트라토의 생애도 엿볼 수 있고, 최초의 낭만주의 작곡가이며 자유로움과 방종의 실천자 모차르트의 삶과 다채로운 오페라 작품들도 음미할 수 있다. 사랑이야기 <아모레와 카리타스>, 호색한 이야기 <돈 조반니> 등 저자가 극찬하고 있는 작품들의 매력을 비교한 내용도 흥미롭다.

오페라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거나 미처 즐길 여유가 없었던 사람들에게 '돈 안 들이고 오페라 즐기기'의 노하우를 한껏 전한다. 오페라의 산책길 같은 책이다.

저자 소개

이보경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졸업, 프랑스 소르본 대학에서 사회학 석사학위 취득, 1987년 문화방송에 기자로 입사, 현재 경인지사 부장으로 재직 중이며, 지은 책으로 『파리는 사랑한다, 행복할 자유를!』(간행물윤리위원회 우수저작물), 『남북영화 전성기』, 『문화방송 50년사』(공저)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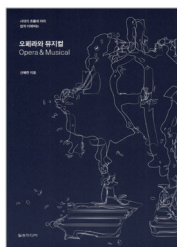


이보경 지음
창해 |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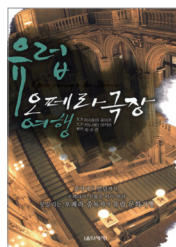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오페라 작곡가들의
생애와 작품
한수웅
2015



(시대의 흐름에 따라 쉽게
이해하는) 오페라와 뮤지컬
신혜연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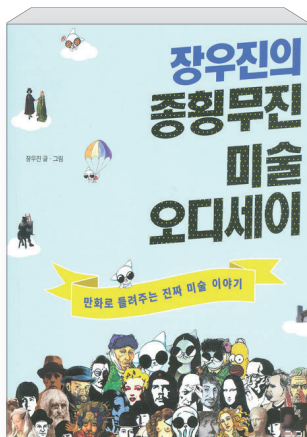


유럽 오페라극장 여행
이시토야 유이코
2014

책 속 한 문장

“지친 영혼을 위무하는 노래,
오페라를 통해 얻은 작은 행
복” ■ 238쪽

장우진의 종횡무진 미술 오디세이



장우진 글·그림
궁리 | 2015

사서의 추천 글

이 책은 만화로 읽는 미술이론 가이드이다. 미술이론을 전공한 저자는 학창 시절부터 미술과 만화에 대한 애정이 많았다고 한다. 이 책은 이런 이력을 살려 만화로 대중들이 미술이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집필되었다.

일반적인 미술서는 대표적 사조를 따라가며 작가와 작품을 소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책은 ‘과연 미술의 정의가 가능한가?’라는 물음에서 출발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수많은 담론을 종횡무진 펼쳐낸다. 미술의 구성 원리, 장르를 비롯해 시물라시옹, 미래의 미술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필요한 경우에는 기호학과 정신분석학 등 연관 학문도 끌어와 설명한다. 특히 만화, 사진, 글을 넘나드는 구성은 시각 예술인 미술이론의 이해를 수월하게 돕는다. 이를테면, ‘착시’ 효과를 재치 있는 삽화를 통해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재기발랄한 만화체로 재탄생한 명화를 감상할 수 있는 것도 또 하나의 즐거움이다. 만화라는 색다른 통로로 유쾌하게 미술이론에 다가갈 수 있다.

저자 소개

장우진 홍익대학교 예술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미술사학과 대학원을 수료했다. 자연스럽게 만화를 통해 대중들에게 쉽게 미술을 소개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지은 저서로는 『무하, 세기말의 보헤미안』, 『루브르박물관에 가자!』, 『사랑이 머무는 그림』이 있다.

책 속 한 문장

“가슴이 이야기하는 작은 귓속말이 들려오고 우리의 심장이 문을 두드릴 때 우리는 비로소 닫혀 있던 마음의 눈을 뜰 수 있다. 그리고 작품 앞에서 솔직히 대화를 나눌 수 있다.” ■ 6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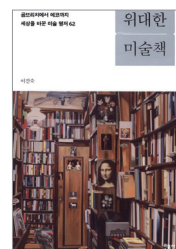
함께 읽으면 좋은 책



학교에서 배웠지만
잘 몰랐던 미술
이명옥
2013



지식의 미술관
이주현
2009



위대한 미술책
이진숙
2014

그들을 따라 유럽의 변경을 걸었다

역사·지리·075

사서의 추천 글

이 책은 공부, 생업, 가족의 일로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아테네와 민스크 등으로 거처를 옮긴 저자의 여행과 같은 생활을 따라 그 지역의 예술과 사상의 발자취를 되짚어보는 여행기이다.

러시아가 사랑하는 시인 푸시킨이 숨을 거둔 페테르부르크의 모이카 12번지, 도스토옙스키가 처절한 도박판을 벌인 독일 바덴바덴,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서도 진리를 추구하고자 했던 톨스토이의 흔적이 있는 러시아 야스나야 폴랴나, 고흐가 머물렀던 원색의 생동감을 지닌 남프랑스 아를, 고려인 화가 니콜라이 박이 그린 사마르칸트, 쇼팽의 유언에 따라 쇼팽의 심장이 묻혀 있는 폴란드 바르샤바 등 흥미로운 이야기가 차분하게 펼쳐진다. 이러한 에피소드들 외에도 리투아니아, 베를린 등에서 마주친 현지인들과의 대화와 그에 대한 저자의 짧지만 깊은 통찰을 통해 그 지역의 사회상을 엿볼 수 있다.

감성적인 사진을 통해 과거와 현재의 인물들이 일상을 보내던 장소와 지역의 정취를 현실감 있게 담아내고, 여러 예술가들의 에피소드, 작품 부분, 사회적 상황 등이 일기같이 친근하게 어우러져 있다. 독서 보폭을 넓게 하여 저자가 풀어내는 이야기와 함께 유럽의 변경을 걸어보아도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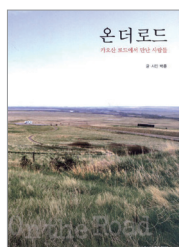


서정 지음
모모샤 | 2016

저자 소개

서정 서울에서 러시아어문학을, 모스크바에서 정치문화를 공부했다. 러시아 문학 강독 체험을 계기로 모스크바로 떠났다. 석사 학위를 받고 잠시 직장생활을 하기도 했지만 출산, 육아라는 인생의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면서 러시아의 사회문화적 체험에 대한 단상들을 글로 틈틈이 정리하기 시작해 잡지 등에 기고하기도 했다. 아테네, 민스크 등을 거쳐 현재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거주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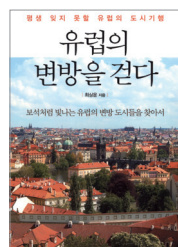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온 더 로드
박준
2015



더불어 숲
신영복
2015



유럽의 변방을 걷다
최상운
2012

책 속 한 문장

“나는 지난 여행에서 저 불안과 싸워가는 과거와 현재의 인물들을 만날 수 있었다... 여행은 내게 낯선 것 가운데 낯익은 아름다움을 확인하며 불안을 넘어서는 힘을 얻는 계기로 지각되기 시작했다.”

7쪽

단어 따라 어원 따라 세계 문화 산책



이재명, 정문훈 지음
미래의창 | 2016

사서의 추천 글

말은 유기체처럼 시대와 문화에 따라 성장, 변천, 소멸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같은 말이라도 그 상황과 문화권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이 책은 주변에서 들어봤고 귀에 익은 37개 단어의 어원을 소개하면서 세계 여러 나라의 언어와 역사, 그리고 문화의 차이가 무엇인지 이해하게 해주는 책이다.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과 전혀 다른 언어와 문화, 그리고 역사를 통해 우리의 삶의 의미를 다시 돌아보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준다. 모든 국가와 개개인은 고유한 문화와 습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서로 만나 다양한 문화를 만들어간다. 세계는 각기 다른 문화가 만나 어우러진 조화의 모자이크라는 생각이 든다. 다른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일 것이다. ‘오지’라는 단어 속에 숨겨진 호주 이야기, ‘몰레’와 초콜릿에 밥 비벼주는 수녀라는 낯선 조합이 자아내는 에피소드, 치명적 매력의 ‘옴프파탈’과 ‘팜프파탈’, 중남미 도시를 걷다 보게 되는 전깃줄에 걸린 신발 두 짝의 의미까지 단어에 숨어 있는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산책하듯 가벼운 발걸음으로 지금 당장 시작해보자.

저자 소개

이재명 전업작가로 직장문화와 우리나라 자생식물 분야에 관한 글을 쓰고 있으며, 저서로는 『직장생활 행복매뉴얼 생각레가토』, 『느긋하게 친해져도 괜찮아 산나물』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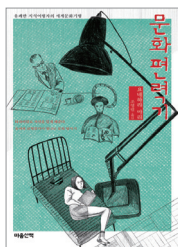
정문훈 다양한 해외활동과 여행경험을 바탕으로 세계문화와 역사에 관한 글을 쓰고 있다. 라틴어에 뿌리를 둔 유럽어, 세계 각국의 문화와 트렌드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언어문화 전문가’가 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책 속 한 문장

“같은 말도 부인의 말은 잔소리로 듣고 남의 말은 법문으로 듣는다.”는 말처럼 같은 말이라도 그 상황과 문화권에 따라 이렇게 달라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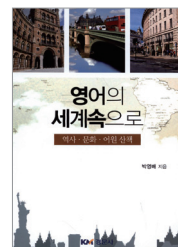
81쪽



문화편력기
요네하라 마리
2009



아침식사의 문화사
헤더 안트 앤더슨
2016



영어의 세계속으로
박영배
2013

바람이 전하는 인디언 이야기

역사·지리·077

사서의 추천 글

인디언 수우족의 신화와 전설로 내려오는 옛이야기를 담고 있다. 1부에서는 수우족의 용맹스런 전사들의 이야기다. 야생에서 사는 수우족 청년 앤틸로프의 영혼이 담긴 사랑이야기는 평화로움 그 자체다. 2부에서는 수우족의 고결한 여인들 이야기다. ‘자연에서 탄생한’ 검붉은 빛이 도는 인디언 위노나의 이야기는 인디언 여인들의 표본적인 삶을 보여준다. 그들은 남성의 용맹한 전사정신과 여성의 강인한 모성을 자연에서 배우며 부족의 혈통을 이어간다. ‘별이 모아둔 것을 우리가 자주 얻어먹으니 별의 근면함이 큰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야!’라는 말은 그들에게서 삶과 자연이 하나의 영혼으로 통하는 운명체임을 일깨워 준다.

그들과 달리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변화에 지쳐 있는 우리들에게 잠시나마 풍요와 평화로움을 맛보게 해주는 쉼터와 같은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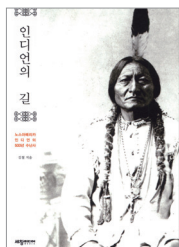
저자 소개

찰스 A. 이스트먼 1858년 겨울, 미국 미네소타의 한 들소 가족 티피에서 수우족 부부의 4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기독교로 개종한 아버지의 영향으로 서구식 교육을 받았고, 보스턴대학을 졸업한 후 의사로도 활동, 최초로 인디언의 관점에서 인디언 역사를 서술한 작가로서 이후 여러 인디언 작가들이 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되었다. 또 대통령의 자문가, 강연가, 인디언들이 백인사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데 힘을 쏟았다. 국내에 출판된 저서로는 『인디언의 영혼』, 『교회로 간 인디언』, 『인디언 숲으로 가다』, 『삶이란 바람소리일 뿐이다』 등이 있다.



찰스 A. 이스트먼 지음 |
김지은 옮김
책 읽는 귀족 |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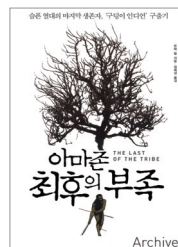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인디언의 길
김철
2015



백인 인디언 엔젤
프랑수아 플라스
2014



아마존 최후의 부족
몬테 릴
2012

책 속 한 문장

“대자연이 연주하는 결혼식 음악에 나무와, 시냇물과, 공중의 새들이 제각기 독특한 음색으로 훌륭하게 화음을 넣었다.” ■ 69쪽



정시문 자음
부키 | 2015

사서의 추천 글

2차 대전의 영웅, 대중을 사로잡은 웅변가, 헤밍웨이를 누른 노벨문학상 수상자, 영국 총리. 이는 모두 윈스턴 처칠에 대한 수식어다. 그는 어릴 적부터 역사 고전의 열렬한 탐독가였다. 처칠 못지않은 독서광, 정시문 저자는 45권의 방대한 역사 고전에 해설을 곁들여 브런치를 먹듯 가볍게 세계사 주요장면을 소개한다.

로마사의 으뜸이자 처칠의 역사 입문서였던 기변의 ‘로마제국 쇠망사’, 중국 역사서 사마천의 ‘사기’와 같은 고전들을 영어와 한자로 수록하며 역사에 담긴 교훈까지 전한다. 영광의 과거를 뒤로 한 채 몰락하는 로마 제국의 모습, 십자군과 과격 이슬람 테러단체 IS와의 관계 등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여러 모습을 엿볼 수 있다.

기억을 상실한 개인이 더 이상 자신을 규정할 수 없듯이, 역사를 모르는 집단 또한 스스로의 정체성을 알지 못한다. 반성하고 성찰하는 행위 없이는 현재의 나도 없는 것이다. 한국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쟁 속에서 우리 또한 과거를 어떻게 반성하고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을지, 먼저 ‘세계사 브런치’를 통해서 생각해봐도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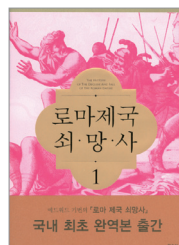
저자 소개

정시문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Carbondale에서 학업을 마친 뒤 공인 회계사 및 공인 법회계사 자격을 취득하여 미국에서 회계 감사, 경영 진단 분야에서 일했다. 간서치라 말할 정도로 책을 좋아한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장르의 책을 기획, 집필하고 좋은 책을 소개하고 번역하는 중이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책 속 한 문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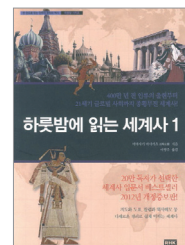
“이 문장에서 ‘역사는 처음에는 비극으로, 이어서 희극으로 되풀이된다.(History repeats first as tragedy, then as farce.)’라는 명언이 탄생했다.” ■ 467쪽



로마제국쇠망사 1-6.
에드워드 기번
2008-2010



세계민족의 역사
21세기연구회
2012



하룻밤에 읽는 세계사
미야자키 마사카츠
2011

세상을 바꾼 다섯가지 상품 이야기

역사·지리·079

사서의 추천 글

문명사를 다룬 기존 인문서가 대부분 번역서였던 데 반해서 이 책은 국내 저자가 아시아인의 시선으로 문명사를 풀어낸 책이다. 주제는 세계사를 뒤흔든 상품의 역사다.

저자는 다섯 가지 상품에 주목하는데, 인류 문명의 기본이 되고 재화의 개념으로 거래를 만든 소금, 고조선 경제사의 시작이자 고조선 개척과 개발의 일등 공신인 모피, 보어전쟁을 유발해 보어인의 대학살이라는 전대미문의 참상을 불러일으킨 보석, 대항해시대의 개막과 식민지 획득경쟁의 목적이 된 향신료, 약국에서 상처를 치료하는데 바르는 연고에서 국가적 존망을 위협하는 상품이 된 석유까지 다섯 가지다. 이 다섯 가지 상품의 역사를 통해서 문명의 발달과 유대인의 경제사, 그리고 한국사까지 폭넓게 설명한다. 인문학적인 통찰과 역사 지식을 함께 얻을 수 있는 책이다.

저자 소개

홍익희 한국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과를 졸업하고 1978년 KOTRA에 입사, 세계 곳곳의 무역관에서 일한 후 2010년 정년퇴직 후 현재는 배재대학교수로 유대인의 창의성, 서비스산업을 가르치고 있다. 저자는 32년간 수출전선에서 유대인을 접하며 그들의 장단점을 눈 여겨 보고 우리나라의 미래가 제조업보다는 유대인들이 주도하는 서비스산업에 있다고 보고 10년 전부터 유대인 경제사에 천착했다. 지은 저서로는 『유대인 경제사』, 『유대인 이야기』, 『세 종교 이야기』, 『달러 이야기』, 『환율전쟁 이야기』, 『월가 이야기』 등이 있다.



홍익희 지음
행성B앞새 | 2015

함께 읽으면 좋은 책



보석, 세상을 유혹하다
윤성원
2015



유대인 이야기
홍익희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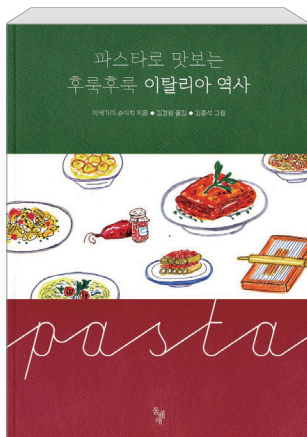


설탕, 세계를 바꾸다
마크 애론슨,
마리나 부드후스
2013

책 속 한 문장

“채굴도 어렵고 운반도 힘든 암염 대신 유대인들은 양질의 바다소금을 정제해 대량으로 들여와 한자동맹과의 전쟁에서 이긴 것이다. 소금이 경제권역 간의 주도권을 바꾸었다.” **51쪽**

파스타로 맛보는 후룩후룩 이탈리아 역사



이케가미 슌이치 지음 |
김경원 옮김 | 김중석 그림
돌베개 | 2015

사서의 추천 글

누가 묻더라도 이탈리아 하면 대표적으로 떠올리는 음식은 파스타일 것이다. 파스타는 어떻게 해서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음식이 된 것일까? 파스타는 이탈리아의 이상향을 보여주는 조반니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에도 등장한다. 중세 민중 사이에서 최고의 꿈의 음식이 파스타였다. 이탈리아의 대표적 가정식요리가 된 파스타는 지방마다 다른 밀, 물, 기후 때문에 다양화되었다. 게다가 조리기법, 모양, 향신료, 소스, 플레이팅의 차이도 다양한 종류의 파스타를 만들어낸다.

저자는 이탈리아의 역사를 단순히 나열하기보다는 파스타와 결들이는 재료를 가지고 유럽의 문명 교류사를 비롯하여 시대상까지 밝히고 있다.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저녁메뉴로 파스타를 떠올리게 될 맛있는 책이다.

저자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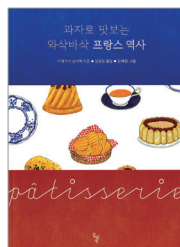
이케가미 슌이치(池上俊一) 유럽 중세사를 전공한 역사학자로, 현재 도쿄대 대학원 종합문화연구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음식이나 신체, 여성(마녀) 등 대중적이고 흥미로운 키워드를 통해 역사를 다양한 시각으로 연구 분석한다. 주요 저서로는 『마녀와 성녀』, 『동물 재판』, 『로마네스크 세계론』, 『놀이의 중세사』, 『세계의 식문화 15—이탈리아』 등이 있고, 프랑스 역사학자 자크 르 고프의 책을 다수 번역했다.

책 속 한 문장

“파스타는 고독을 인정하지 않는, 연대와 연결의 음식입니다. 파스타는 본래 가족 또는 친구들과 다 같이 둘러앉아 왁자지껄 먹는 음식입니다. 한 사람씩 따로 접시에 담아 먹는 것이 아니라, 큰 접시에 듬뿍 담아내어 서로 나누어 먹는 것이 어울리지요. 실로 부드러운 포용력을 지닌 음식입니다.”

■ 187쪽

함께 읽으면 좋은 책



과자로 맛보는 와식바식
프랑스 역사
이케가미 슌이치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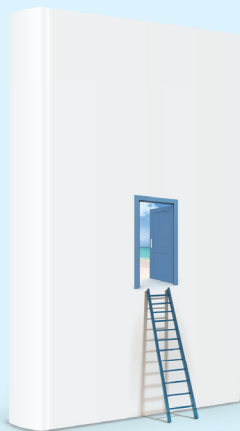
사랑한다면 이탈리아
최미선
2015



이탈리아 도시기행
정태남
2012

서평전문가 추천도서

20선



북 칼럼니스트, 《씨네21》 기자 이다혜

장르문화 전문지 《판타스틱》 기자로 일했고, 《씨네21》 기자로 일하며 북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소셜리스트 멤버이기도 하다. 지은 책으로는 『책 읽기 좋은 날』이 있으며, 옮긴 책으로는 『워너비 오드리』, 『누구나 알 권리가 있다』, 『기나긴 순간』 등이 있다.

서평가 이현우

서울대학교에서 노어노문학을 전공했으며 대학 안팎에서 러시아 문학과 세계 문학, 인문학을 강의하고 있다. 여러 매체에 서평과 칼럼을 연재하고 있으며 '로자의 저공비행'이라는 블로그도 운영 중이다. 저서로는 『로자의 인문학 서재』, 『책을 읽을 자유』, 『로자의 세계문학 다시 읽기』 등이 있다.

북 칼럼니스트 이하영

북 칼럼니스트이자 방송 작가. KBS와 MBC라디오 등에서 10여 년 이상 구성 작가로 활동했고, 현재 OBS '전기현의 씨네뮤직'의 작가이다. 클래식, 영화, 책에 관한 칼럼을 쓴다. 저서로는 『조제는 언제나 그 책을 읽었다』, 『글쓰기의 힘』(공저) 등이 있다.

북 칼럼니스트 장동석

월간 《빛과 소금》 기자와 서평지 《출판저널》 편집장으로 일했다. 지금은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사람을 만난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북 칼럼니스트 혹은 출판 평론가로 불린다. 여러 잡지에 글을 쓰고 방송에서 책을 소개하고 때로 강의를 하기도 한다. 지은 책으로 『살아 있는 도서관』이 있다.

9년 전의 기도

이다혜 추천도서



오노 마사쓰구 지음
무소의뿔 | 2016

추천 글

어린 아들을 데리고 해변가 고향 마을로 귀향한 여자가 있다. 서른 다섯의 여자는 오랜만에 고향을 마주하고, 간섭이 심한 어머니에 한숨짓고, 과거 많은 순간의 기억을 더듬는다.

좋은 기억만 안고 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때가 온다. 불행할 때 떠오르는 기억은 온통 칙칙한 것들뿐이거나, 밝고 화사한 것들조차 어딘지 끝이 좋지 않았다는 쓴웃음을 동반한다. 표제작인 『9년 전의 기도』는 기억을 더듬는다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한다는 것이 때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구원하는지 보여준다. 이 책으로 지난해 아쿠타가와상을 수상한 오노 마사쓰구는 일본 오이타 현 남부의 카마에 사이키 시에서 태어나 ‘그 땅에서 받은 것을 문학으로 옮겼다’. 그림처럼 눈앞에 떠오르도록 묘사된 문섬의 풍경이 코끝에 바다내음을 불러온다.

저자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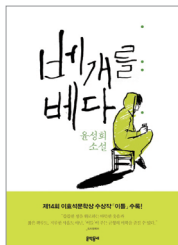
오노 마사쓰구(小野正嗣) 도쿄대학 교양학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언어정보과학 박사 과정을 중퇴했으며 파리 제8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릿쿄대학 문학부 문예사상전수 준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2001년 『물에 잠긴 묘지』로 제 12회 아사히 신인 문학상을 수상했고, 2002년 『변잡한 포구에 감싸인 배』로 제 15회 미시마 유키오 문학상을 수상했다. 2015년 『9년 전의 기도』로 제 152회 아쿠타가와 문학상을 수상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책 속 한 문장

“사나에의 가슴에는 아무런 슬픔도 없었다. 그것은 사나에의 등 뒤에 서 있었다. 돌아본들 햇살 아래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슬픔이 꿈틀대는 것을 느꼈다.”

■ 112쪽



배개를 베다
윤성희
2016



호텔 로열
사쿠라기 시노
2014



세상 끝 아케이드
오가와 요코
2015

이다혜 추천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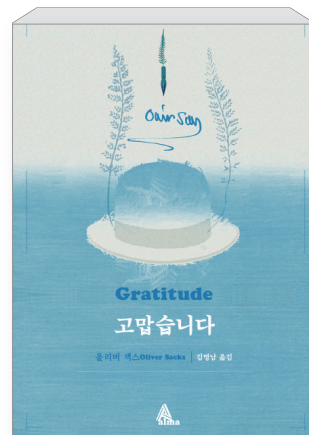
추천 글

2016년 8월이면 신경과 전문의 올리버 섉스가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된다. 신경과 전문의라니, 알 게 뭔가 싶을지 모르지만, 그가 쓴 환자들 이야기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 『뮤지코필리아』, 『나는 내 침대에서 내 다리를 주웠다』와 같은 책들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뇌의 이상으로 겪는 기기묘묘한 증상들, 쉽게 남에게 이해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인 환자들의 사연을 경청하고, 그들이 지금의 삶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올리버 섉스의 태도에서는 온기가 느껴진다.

그가 죽기 전 발표한 4편의 에세이를 묶은 『고맙습니다』는 나이듦, 죽음,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올리버 섉스의 차분하고 울림이 깊은 문장을 만날 수 있다. 수식어가 화려한 문장은 아니다. 과학자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은 때로 낯설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반짝이는 삶을 향한 애정은 누구라도 감동하게 한다. 나이듦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나이에 읽어 보기를 권한다.

저자 소개

올리버 섉스(Oliver Sacks) 1933년 영국 런던 출생으로 옥스퍼드대학 퀸스 칼리지에서 의학 학위를 받았고, 미국으로 건너가 샌프란시스코와 UCLA에서 레지던트 생활을 했다. 1965년 뉴욕으로 옮겨가 신경과 전문의로 일하기 시작했다. 그 후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과대학과 뉴욕대학을 거쳐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컬럼비아대학에서 신경정신과 임상 교수로 일했다. 2012년 록펠러대학이 탁월한 과학 저술가에게 수여하는 ‘루이스 토머스상’을 수상했고, 모교인 옥스퍼드대학을 비롯한 여러 대학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 2015년 향년 82세로 타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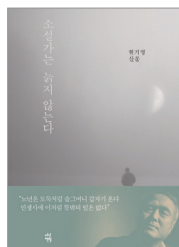


올리버 섉스 지음
alma(알마) |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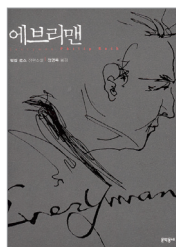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
올리버 섉스
2015



소셜기는 늙지 않는다
현기영
2016



에브리맨
필립 로스
2009

책 속 한 문장

“갑자기 초점과 시각이 명료해진 것을 느낀다. 꼭 필요하지는 않은 것에 내줄 시간이 이제 없다. 나 자신, 내 일, 친구들에게 집중해야 한다.”

■ 28쪽

너무 한낮의 연애

이다혜 추천도서

추천 글

단편집 『너무 한낮의 연애』에 수록된 표제작은 2016년에 젊은작가상 대상을, 『조중균의 대상』은 2015년에 젊은작가상을 수상했다. 김금희라는 이름이 낯선 독자에게는 그런 사실이 도움이 되리라. 실린 단편들은 허투루 읽을 것이 하나 없어서, 마치 고급 초콜릿 박스를 선물 받아 하나씩 무슨 맛인지 궁금해 하며 입에 넣을 때의 기분을 닮은 기분 좋은 흥분이 있었다.

한낮이 무더운 계절에 어쩐지 후텁지근하고 나른한 기분을 느끼게 하는 『너무 한낮의 연애』는 회사 인사이드으로 한직으로 밀려난 중년의 남자가 주인공이다. 그는 종로 패스트푸드점에 갔다가, 그곳에서 만나곤 했던 대학 후배이자 여자친구였던 양희를 떠올린다. 양희는 그에게 먼저 고백했다. 그 때까지 그녀를 여자로 보지 않던 그는 무심한 그녀에게 자기도 모르게 매이게 된다. 늘 한쪽으로 기울어있기 쉬운 연애감정이 시소놀이를 하는 과정에서, 중년 남성이 경험하는 악화일로의 건강상태며 회사에서의 눈치 보이는 나날 사이로 슬쩍슬쩍 떠오른다.

저자 소개

김금희 1979년 부산에서 태어나 인천에서 성장했다. 인하대 국문과를 졸업하고 2009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너의 도큐먼트」가 당선되어 등단했다. 「조중균의 세계」로 2015년 젊은작가상, 「너무 한낮의 연애」로 2016년 젊은작가상 대상을 수상했으며, 첫 소설집 『센티멘털도 하루 이틀』로 제33회 신동엽문학상을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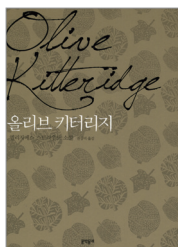


김금희 지음
문학동네 | 2016

책 속 한 문장

“양희라고 부르면 어디에선가 풀냄새가, 아주 늦은 밤에 자유로를 달려서 도착했던 문산의 어느 리가, 여름이 끝나가면서 유순해진 밤의 공기가, 어두워서 보이지 않지만 밭에서 무언가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던 것이 떠올랐다.” ■ 14쪽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올리브 키터리지
엘리자베스 스트라우트
2010



채굴장으로
이노우에 아레노
2009



디어 라이프
앨리스 먼로
2013

아, 보람 따위 됐으니 야근수당이나 주세요

이다혜 추천도서

추천 글

“업무시간 외에 당연하다는 듯 회의 일정을 잡는다.” 『아, 보람 따위 됐으니 야근수당이나 주세요』에 등장하는 22살 직장인의 사연이다. 놀랄 정도로 제목이 내용을 잘 드러내는 이 책은, 고생한 만큼 성장한다는 회사 선배들의 ‘따뜻한’ 충고를 온몸으로 거부하라고 조언한다. 말은 쉽지만 어디 할 수 있겠느냐고? 이 책은 ‘모범적인 직장생활’에 대한 통념을 거부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보람을 얻고 회사와 같이 성장한다는 자세로는 한계가 일찍 드러난다. 일과 관련해 정말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 일을 통해 자아실현하는 법 보다는 ‘유급휴가를 받는 조건’이나 ‘야근수당을 청구하는 방법’ 그리고 나아가 노동법에서 나를 위해 보장해주는 기본적인 권리가 무엇인가.

시종일관 유머를 잃지 않는 이 책에서 강조하는 일 관련 노하우 몇 가지만 말하면 이렇다. 괴로우면 언제든 도망쳐도 된다. ‘경영자 마인드’로 일해봤자 좋은 건 사장뿐이다. 그러니 젊은 세대의 직장관을 알 수 있게 도와주는 책이기도 한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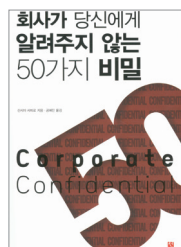
저자 소개

히노 에이타로(日野 瑛太郎) 1985년에 태어나 도쿄 대학 공학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공학계 연구과에서 수학하면서 웹서비스를 개발하여 회사를 설립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망해 결국 싫어했던 취직을 하고 말았다. 경영자와 회사원 양쪽의 입장을 다 경험하면서 현대 노동 현실의 모순을 깨닫고 ‘탈사축(脫社畜) 블로그(DENNOU-KURAGE, HATENABLOG.COM)’를 개설했다. 블로그는 한 달에 50만 건에 달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유명해졌고, 지금도 그는 블로그를 통해 노동 환경에 대한 의견을 계속 발신하고 있다.



히노 에이타로 지음 | 이소담 옮김
오우아 | 2016

함께 읽으면 좋은 책



(회사가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50가지 비밀
신시아 샤피로
2007



(루나 파크) 사춘기 직장인
홍인혜
2008



회사의 언어
김남인
2016

책 속 한 문장

“중요한 사실은 ‘남들과 똑같이’ 되는 것이 아닌 ‘자신에게 가장 어울리게’ 행동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의 가치관을 좀더 소중히 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대충 ‘남들에게 맞추는’ 일에만 에너지를 쓰면서 내키지 않는 인생을 살다가 끝나게 된다.” ■ 165쪽

이다혜 추천도서

추천 글

에리크 발뢰는 덴마크의 시사저널리스트이며 『일곱 번째 아이』는 그의 데뷔작이고 큰 성공을 거두었다. 저널리스트로서의 치밀함만큼이나 이 소설에 영향을 끼친 그의 삶은, 그가 어린 시절 2년을 고아원에서 보내야 했다는 사실이다. 에리크를 임신한 뒤 남자에게 버림받은 그의 어머니가 우울증에 걸렸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30년 가까이 기자로 일한 경력을 살려,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소설을 쓴 것이다.

오를라는 덴마크 국무부 장관의 비서실장이다. 그에게 익명의 편지가 도착한다. 편지와 함께 어떤 이의 입양 기관 서류가 동봉되어있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일곱 아이들의 사진이 있다. 오를라가 편지를 받은 시각, 신문기자 토싱과 닐스 역시 같은 내용의 편지를 받은 참이다. 그들은 특종을 노리고 사진 속 고아원을 찾는다. 케네디 대통령 암살사건, 9.11 테러를 비롯해 국제정세를 좌우한 큰 사건들이 흘러가는 동안 과거의 아이들에 관련된 진실들이 흘러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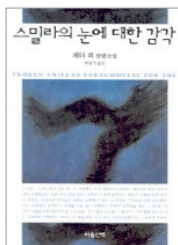
저자 소개

에리크 발뢰(Erik Valeur) 1955년 덴마크 출생으로 기자이자 작가, 미디어 평론가이다. 1970년대 후반 《베를링스케 티텐데》에서 기자 경력을 쌓은 그는 1985년 월간 매거진 《프레스》를 설립하기도 하였으며 이후 덴마크 공영방송(DR)으로 옮겨 뉴스 및 시사, 정치 분야의 미디어 평론가로 자리매김해 덴마크에서 영향력 있는 미디어 상인 카울링상과 크뤼거상을 수상했다. 데뷔작 『일곱 번째 아이』로 뛰어난 스칸디나비아 추리작가들이 받은 ‘유리열쇠상’을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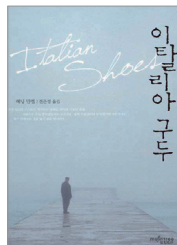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책 속 한 문장

“직관과 공감 능력에 관한 한 오를라 베른첸은 대부분의 여자애들 못지 않았지만, 기이하게도 오를라의 여성적인 면에는 누구나 예상할 법한 성격이 없었다. 부드러움, 동정심, 온화함.” ■179쪽



스밀라의 눈에 대한 감각
페터 회
2005



이탈리아 구두
헤닝 만켈
2010



여자를 증오했던 남자들, 1-2
스티그 라르손
2011

이하영 추천도서

추천 글

일단 이야기가 ‘알타’라는 휴가지에서 시작한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이곳에 온 중년의 남자의 눈에 개를 데리고 다니는 젊은 부인이 들어오면서 사건은 시작된다. 닳고 닳은 중년 남자가 할 법한 상투적인 생각과 행동이 이어진다. 하지만 그곳에서 일어난 감정은 그리 뻔하지가 않았다.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야 두 사람은 자신들이 사랑에 빠졌다는 걸 알게 된다.

셰익스피어 이후 가장 유명한 극작가였고 600편이 넘는 단편을 쏟아낸 안톤 체호프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이 소설은 화려하지도 극적이지도 않지만 자꾸만 곱씹어 들여다보고 싶은 매력을 품고 있다. 사랑이 어떻게 오는지, 사랑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일상을 어떻게 흔드는지를 체호프는 영화처럼 음악처럼 풍경화처럼 포착해낸다. 글쓰기의 비법으로 “달이 빛난다고 말해주지 말고, 깨진 유리조각에 반짝이는 한줄기 빛을 보여주라”고 했던 체호프의 말을 고스란히 실감할 수 있는 소설이다. 올해도 휴가는 턱없이 짧고 별 볼 일 없었지 모르지만 이 짧은 소설을 경험하고 나면, 이 여류의 휴가가 다르게 기억될 게 분명하다.

저자 소개

안톤 체호프(АНТОН ПАВЛОВИЧ ЧЕХОВ) 러시아의 대문호. 셰익스피어와 함께 가장 위대한 극작가로 꼽히며, 모파상, 오 헨리와 함께 세계 3대 단편작가로 불린다. 모스크바대학교 의학부에 다닐 때부터 잡지에 글을 써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으며 이십대 중반에 이미 소설과 희곡으로 크게 이름을 알렸다. 평생 결핵으로 고생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작품을 발표했으며 1904년 4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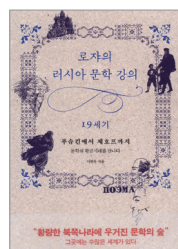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예술수업
오종우
2015



안톤 체호프처럼 글쓰기
안톤 체호프
2014



로자의 러시아 문학 강의
이현우
2014



안톤 체호프 지음 | 이현우 옮김
문학동네 | 2016

책 속 한 문장

“두 사람은 오랫동안 머리를 맞대고 상의했다. 사람들을 속여가며 숨어서 만날 수 밖에 없고, 서로 다른 도시에 살면서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 참을 수 없는 숙박에서 어떻게 하면 해방될 수 있을까?” “어떻게, 어떻게?” 자신의 머리를 감싸쥐며 그는 물었다. “어떻게?” ■ 57쪽

이하영 추천도서

추천 글

일단 제목에 이끌린다. 『혼자 있는 시간의 힘』이라는 책이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지만 뭔가 다른 차원의 고독에 이끌리는 사람이라면 이 책을 선택하면 좋겠다. 고독을 이론으로 파고들어 분석하고 그 철학의 틀로 우리 삶의 다른 가능성을 모색하는 이 낯선 시도를 관전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 라캉이나 알랭 바디우를 이해하지 못해도 그들이 사용하는 말들, 주체와 공백과 유령과 환멸과 애도와 멜랑콜리 같은 낯선 단어들도 자꾸 사귀면 익숙해져 내 개념의 사전에 자리를 잡게 된다.

내지 편집이 시원시원하고, 텍스트 분량이 많지 않아서 문장마다 곹씹어도 한 권을 읽는데 시간이 그리 많이 걸리지도 않는다. 고독한 시간의 당위를 이해한다면 혼자 남겨지는 시간이 두렵지도 낯설지도 않을 것이다. 우리는 고독과 좀 더 친해져야 하고 세상이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사실에 초연해지는 연습이 필요하다.

저자 소개

백상현 철학자, 정신분석학자. 프랑스 발랑스의 ‘에콜 데 보자르’ 졸업 후 파리8대학에서 예술학을 전공, 라캉의 정신분석 연구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고려대 등에서 정신분석과 미학을 강의했으며, 한국프로이트라캉칼리지FLC 상임교수로 활동했다. 현재 숭실대학교, 말과 활 아카데미 등에서 강의하며 임상분석가를 대상으로 여러 형식의 강의를 시도하고 있다. 저서로 『라캉 미술관의 유령들』, 『고독의 매뉴얼』이 있으며 라캉의 『세미나 7』에 대한 해설서를 집필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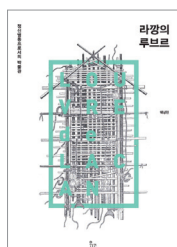
백상현 지음
SFP | 2015

책 속 한 문장

“고독의 절차는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을 의미할 것이다. 자신의 주어진 조건들에 대한 사랑이 아닌, 알려지지 않은 가능성에 대한 사랑의 절차. 그것은 어떻게 나르시시즘적 자아의 한계가 역설적으로 돌파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절차이다.”

124쪽

함께 읽으면 좋은 책



라캉의 루브르
백상현
2016



실연의 박물관
아라리오뮤지엄
2016



애도예찬
왕은철
2012

이하영 추천도서

추천 글

나혜석은 1896년에 태어나 조선 최초의 서양화가로 일제강점기 시대에 롤러코스터 같은 삶을 살았다. 서양의 예술과 정신에 눈을 뜬 여성이 조선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예술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험난한 길이었는지를 이 소설은 생생하게 보여준다. 그 생생함은 2016년의 오늘에도 다름이 없기에 더욱 아프게 다가온다.

나혜석의 죽음을 그녀의 조카뻘인 윤초이와 독고완이 추적하고, 그들이 남긴 기록을 손녀 독고진이 재구성하는 액자식 구성 속에서 나혜석의 불꽃 같았던 삶이 4대의 서사를 품으며 겹겹이 풍성한 울림을 만들어낸다. 현실의 젊은 작가가 100년 전의 선배 예술가를 이해하려 고두한 흔적이 흠뻑 배어나 있다. 나혜석을 드러내기 위해 거론된 실존인물들의 등장도 이 소설을 읽는 재미다. 이광수, 최은희, 최린, 김복진 등 근대적 인물들의 숨결이 가깝게 다가오면서 우리나라 근대문학과 예술에 대한 호기심을 다시 불러일으킨다.

저자 소개

박정윤 1971년 강원도 강릉에서 태어났다. 서울예술대학교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했다. 2001년 《강원일보》 신춘문예에 「바다의 벽」이, 2005년 《작가세계》 신인상에 「길은 생선 내장처럼 구불거린다」가 당선되었다. 2012년 장편소설 『프린세스 바리』로 제2회 혼불문학상을 수상했다. 그 외 창작집 『목공소녀』와 경장편소설 『연애독본』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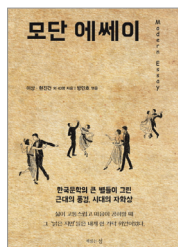


박정윤 지음
푸른역사 | 2016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자기만의 방
버지니아 울프
2006



모단 에세이
이상 호
2016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
오스카 와일드
2010

책 속 한 문장

“저는 길거리에서 찢겨 죽는 한이 있어도 틀린 길을 가지 않았습시다. 조선의 여성들 마저도 저를 외면하고 거울 앞에서 정신을 치장하며 웃고 있을 때, 억세고 즐기만 나는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걸었습니다. 제 삶은 실패했지만 정신은 실패하지 않았고, 저는 실천했습니다. 네, 삶은 실패했지만 정신은 실패하지 않았습시다.” **408쪽**

이하영 추천도서



이서희 지음
한겨레 출판 | 2016

책 속 한 문장

“유혹은 새로운 세계를 보여 주고 그곳으로의 문을 여는 초대행위이다. 그러나 당신을 구원하거나 그 세계에 영원토록 머물게 하겠다는 약속은 아니다. 유혹에서 사랑을 선불처럼 요구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유혹은 관계의 적정 지점을 함께 찾아가는 일이다. 삶의 좌표가 변하듯 관계의 좌표도 움직인다. 때로는 느리게, 짐작할 수 없는 방향으로 말이다. 변화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유혹은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자리를 찾게 해준다.”

■ 40쪽

추천 글

페이스북에 자신의 경험을 고백하듯 써내려간 글이 이내 책으로 출판되더니 곧바로 일간 신문 지면에 글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유혹’을 주제로 한 에세이를 장기간 연재했고 끝나자마자 책이 되어 나왔다. 자신의 이야기로 SNS와 신문, 책까지 다양한 매체들을 단숨에 매혹시킨 작가답다. 행간마다 매혹이 흘러넘치고 페이지마다 사랑에 대한 아름다운 통찰이 수놓였다.

사람이 한 사람을 만나고 사랑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 피하고 싶은 과제처럼 되어버린 팍팍한 시대, 그녀의 글은 마법의 물약이 되어 마른 가슴을 적셔 치유해준다. 촉촉함을 머금은 따뜻한 목소리로 알려주는 유혹의 기술들은 뜨겁지만 반듯하다. 무례함 없이 열정을 표현하는 법을 안다면, 서로 다치지 않고 이별하는 법을 안다면 우리는 사랑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누릴 수 있지 않을까. 만남에서 이별까지 사랑의 모든 순간 겪게 되는 감정의 파동을 섬세하게 이야기하면서 사랑이 소멸한 후의 쓸쓸함까지도 사랑하게 만드는 놀라운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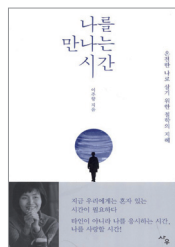
저자 소개

이서희 서울대 법대를 마치고 프랑스로 건너가 파리3대학 영화과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2013년 『관능적인 삶』이라는 책을 냈고, 현재 미국 할리우드에 거주하며 신문과 잡지에 칼럼을 쓰고 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버지니아 울프와 밤을 새다
이화경
2011



나를 만나는 시간
이주향
2015



올 어바웃 러브
벨 훅스
2012

이하영 추천도서

추천 글

‘진짜 책들은 헌책방에 있다’고 말하는 헌책방 주인 윤성근의 에세이집이다. 어려서부터 걸신들린 듯이 책을 읽어온 독서이력에 여러 권의 책을 써낸 관록이 겹쳐 무르익은 글맛을 느끼게 해준다. 그의 글을 읽고 있으면 사람만 나이를 먹는 게 아니라 책들도 세상에 나오는 순간부터 나이를 먹으며 세상 풍파를 겪는다는 걸 느끼게 된다. 오래 살아남은 책들이 진짜 책이고, 그것들은 헌책방에 있다. 그곳에서 또 새로운 주인과의 모험을 기다리고 있을 헌책들을 만나러, 달려가고 싶게 만드는 책이다.

한 권의 책이 품은 서사를 따라 들어가다 보면 세상의 작고 사소하고 오래된 것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된다. 새롭게 반짝이는 것에 빼앗긴 시선을 잠시 거두고, 오래되고 낡았지만 소중한 것들의 목록을 챙겨보면 멀리 떠나지 않아도 충분한 여행, 알찬 휴가가 되지 않을까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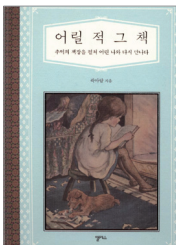
저자 소개

윤성근 은평구 소재의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을 운영하면서 책과 관련한 전방위 활동을 펼치고 있다. 어릴 적부터 종로서적과 헌책방을 순례하며 엄청난 독서량을 쌓아온 그는 IT회사에 다니며 오토바이를 수집했던 남다른 이력의 소유자이기도 하다. 잘나가던 직장을 그만두고 책으로 인생의 방향을 돌린 건 서른 살 무렵이었다고 한다.



윤성근 지음
모요사 | 2016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어릴 적 그 책
곽아람
2013



다시 동화를 읽는다면
고민정 외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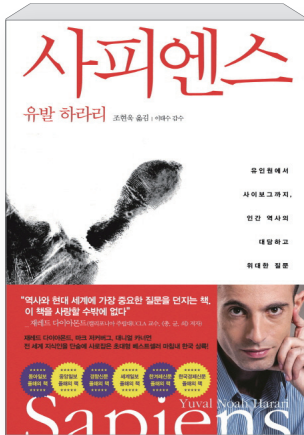


시의 미소
허연
2016

책 속 한 문장

“어릴 때부터 책에게 많은 도움을 받으며 살았다. 책은 말없이 나를 지원해준 ‘키다리 아저씨’다. 엉뚱한 짓을 해도 다 받아주던 ‘아낌없이 주는 나무’다.” ■ 57쪽

이현우 추천도서



유발 하라리 지음 | 조현욱 옮김
김영사 | 2015

책 속 한 문장

“우리 조상들이 자연과 더불어 조화롭게 살았다는 급진적 환경보호운동가의 말은 믿지 마라. 산업혁명 훨씬 이전부터 호모 사피엔스는 모든 생물들을 아울러 가장 많은 동물과 식물을 멸종으로 몰아놓은 기록을 보유하고 있었다. 우리는 생물학의 연대기에서 단연코 가장 치명적인 종이라는 불명예를 갖고 있다.” ■ 117쪽

추천 글

『사피엔스』는 이스라엘의 한 역사학 교수를 세계적인 저술가로 탄생시킨 화제의 책이다. 제목 그대로 ‘사피엔스’, 곧 현생 인류의 역사라는 방대한 주제를 유려한 문체로 숨쉬 있게 요리한다. 호모 사피엔스 종이 발전하여 문화를 만들고 역사를 개척해온 장구한 이야기를 저자는 세 가지 매듭을 지어서 들려준다. 인간을 진로를 바꾸어놓은 세 가지 매듭, 혹은 세 가지 혁명은 바로 약 7만 년 전의 인지혁명, 약 12,000년 전의 농업혁명, 약 500년 전의 과학혁명이다. 신석기 농업혁명과 17세기 과학혁명은 우리에게도 친숙하며 그 의의에 대해서 별다른 이견이 없겠다. 하지만 태곳적 인지혁명은 어떻게 가능했고 또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책의 초점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저자는 결정적인 일곱 가지 촉매제로 불, 땃담화, 농업, 신화, 돈, 모순, 과학을 지목한다. 인간은 불을 지배함으로써 다른 동물들을 능가할 수 있었고 땃담화(언어)를 통해 사회를 형성하게 되었으며 이후에 농업혁명을 통해 인구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켰다. 농업은 정착생활을 가능하게 했고 이는 부의 증가와 함께 불평등과 사회적 모순을 낳았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유발 하라리의 대담한 서사는 수만 년에 걸친 사피엔스의 진화와 역사에 대한 파노라마적인 시야를 갖게 해준다. 모름지기 사피엔스의 일원이라면 놓치기 아까운 책이고, 놓칠 수도 없는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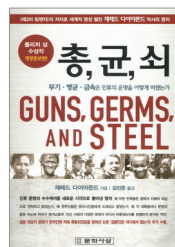
저자 소개

유발 하라리(Yuval Noah Harari) 이스라엘 하이파에서 태어나, 2002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중세 전쟁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전공은 중세 역사와 전쟁 역사로, 역사와 생물학의 관계, 역사에 정의는 존재하는지, 역사가 전개됨에 따라 사람들은 과거에 비해 더 행복해졌는지 등 거시적인 안목으로 역사를 보는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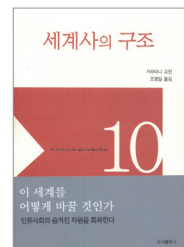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인류의 기원
이상희, 윤신영
2015



총, 균, 쇠
재러드 다이아몬드
2005



세계사의 구조
가라타니 교진
2012

이현우 추천도서

추천 글

『세컨드 핸드 타임』은 2015년 노벨문학상 수상자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의 최근작이다. ‘목소리 소설’로 불리기도 하지만 알렉시예비치의 책들은 소설(픽션)이라기보다는 논픽션으로 분류된다. 이야기를 지어낸 것이 아니라 인터뷰를 통해 만난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다만 편집한 것이기 때문이다. 놀라운 것은 그 결과물이 동시대의 어떤 문학작품도 보여주지 못한 압도적 진실과 감동을 전달해준다는 점이다. 이 책에서도 알렉시예비치는 1991년부터 2012년까지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다수의 평범한 러시아인들을 만나서 그들의 과거와 현재의 삶에 대한 증언을 청취하고 이를 재구성했다. 스탈린 시대에서부터 푸틴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무엇을 기억하고 있으며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1917년 러시아혁명 이후에 건설된 소비에트 러시아는 분명 인민에게 권력을 돌려주고 새로운 문명을 구축하려는 최초의 시도였지만 결과는 아름답지 않았다. 그렇다고 사회주의 몰락 이후, 자본주의 러시아의 삶이 과연 얼마나 더 나아졌는가도 의문이다. 러시아의 대중 사이에서는 소련에 대한 동경까지 나타나고 있다. 바야흐로 세컨드 핸드 시대, ‘중고품 시대’의 도래다. 포스트소비에트 시대 러시아에 대한 가장 생생한 증언과 기록으로서 『세컨드 핸드 타임』은 기념비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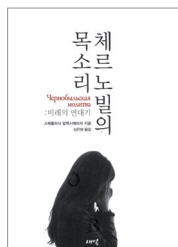
저자 소개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Светлана Александровна Алексиевич)
1948년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났다. 민스크에 있는 벨라루스 국립 대학교 언론학과를 졸업하고 여러 지역 신문사와 문학예술잡지 《네만》기자로 일했다. 그 후 제2차 세계대전, 소련-아프간 전쟁, 소련 붕괴, 체르노빌 사고 등 극적인 사건을 겪은 목격자들과의 인터뷰를 기술했다. 작품활동 초기부터 ‘목소리의 소설’이라는 자신만의 문학장르를 개척했다. 2015 노벨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
2015



체르노빌의 목소리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
2011



좁은 러시아
이대식
2016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 지음 |
김하은 옮김
이야기가있는집 | 2016

책 속 한 문장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아 수다를 떨거나 책 읽기를 좋아해요. 러시아인의 가장 대표적인 직업은 독자이자 관객인 셈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러시아인은 근거 없이 자기네 민족을 특별하고 유일하다고 인식하고 있어요. 사실 석유와 가스를 배면 특별한 것도 없는데 말이에요.”

■ 23쪽

이현우 추천도서

추천 글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의 원제는 ‘우연의 법칙’이다. ‘우연’이란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건을 가리킨다. ‘그럴 리가!’라거나 ‘말도 안 돼!’ 같은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사건들이다. 예컨대 미국 뉴저지 주에 사는 한 여성은 로또 복권에 두 번이나 당첨되어 벼락부자가 되었고, 서머포드 소령이란 인물은 벼락을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이나 맞았다. 일어날 확률이 모두 지극히 낮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럼에도 이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 결코 드물지 않게 일어난다. 영국의 수학자인 저자는 이러한 사건들의 배후에 엄밀한 통계학적 법칙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자 한다. 그는 다섯 가지 우연의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종교나 미신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와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필연성의 법칙’에 따르면 아무리 개연성이 낮더라도 무슨 일인가는 반드시 일어난다. ‘아주 큰 수의 법칙’은 기회의 개수가 아주 많으면 아주 이례적인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 ‘선택의 법칙’은 사후 선택을 통해서 확률을 마음대로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뜻하고, ‘확률 지렛대의 법칙’은 조건의 미세한 변화를 통해 확률을 비약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는 걸 말한다. ‘충분함의 법칙’은 충분히 유사한 사건은 동일한 사건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법칙이다. 저자의 공언대로 이 우연의 법칙을 이해하게 되면 미스터리한 많은 일이 이해가능한 일로 변신한다. 독서의 이유로 충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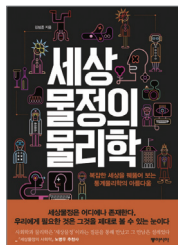
저자 소개

데이비드 핸드(David Hand) 옥스퍼드 대학교를 졸업했으며 세계적인 명문 공립 대학인 런던 임페리얼 칼리지 수학과 명예교수 겸 선임연구원이다. 2002년에는 통계학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인 가이 메달을 받았고, 2003년에 영국 학사원의 연구원으로 선출되었다. 2008년부터 왕립통계학회 회장을 지냈으며 그동안의 연구 업적으로 2013년 대영 제국 훈장을 받았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책 속 한 문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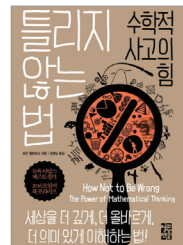
“발생 확률이 지극히 작은, 즉 극도로 개연성이 낮은 사건들도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의외의 사건이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해주는 일련의 법칙들을 나는 ‘우연의 법칙’이라고 부른다.” ■ 10쪽



세상물정의 물리학
김범준
2015



수학의 수학
김민형, 김태경
2016



틀리지 않는 법
조던 엘렌버그
2016

이현우 추천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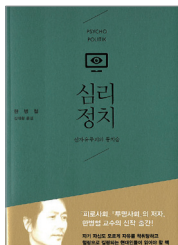
추천 글

『아름다움의 구원』은 재독(在獨) 철학자 한병철 교수의 최신작이다. 대표작 『피로사회』가 독일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이후에는 우리에게 친숙한 저자가 되었다. 『아름다움의 구원』만 하더라도 전작들인 『투명사회』, 『심리정치』, 『에로스의 종말』 등을 읽은 독자들에게는 익숙한 시각과 주장이 펼쳐진다. 다만 제목대로 초점이 ‘아름다움’에 맞춰지면서 아름다움과 미학에 대한 저자의 성찰이 좀더 풍부하게 담겼다. 전작들에서 한병철은 현재의 자본주의 사회를 자기착취가 만연한 성과사회로 명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비판해왔다. 모든 타자와 부정성을 제거하고 긍정성과 자기 동일성만 앞세우려는 현단계 자본주의의 속성은 미의 영역에서도 확인된다. 소위 ‘매끄러움’의 미학이다. 미국의 현대미술가 제프 쿤스의 대표작 ‘풍선 개’ 등을 지목하면서 저자는 이러한 매끄러움이 오늘날 미의 지배적 현상이 되었다고 말한다. 매끄러움은 모든 부정성에서 벗어난 긍정성의 유토피아다. 아름다움에서 부정성이 제거된다면 그것은 단지 나에게 만족을 주는 향락의 대상으로만 축소된다. 털을 제거한 몸이나 스마트폰의 터치스크린 같은 매끄러운 표면 등이 대표적 사례다. 저자는 이러한 긍정성의 아름다움에 반대하여 아름다움이 본래적 부정성, ‘부정성의 미학’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작들과 마찬가지로 짧은 분량이지만 오늘날의 소비주의 미학에 맞서 미의 진정성을 다시 생각해보도록 독려하는 진중한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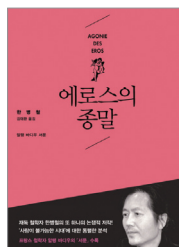
저자 소개

한병철 고려대학교에서 금속공학을 전공한 뒤 독일로 건너가 철학, 독일 문학, 가톨릭 신학을 공부했다. 1994년 하이데거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2000년에는 스위스 바젤 대학에서 데리다에 관한 논문으로 교수 자격을 취득했다. 독일과 스위스의 여러 대학에서 강의했으며, 독일 카를스루에 조형예술대학 교수를 거쳐 현재 베를린 예술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심리정치
한병철
2015



에로스의 종말
한병철
2015



독일 미학 전통
카이 함머마이스터
2013

책 속 한 문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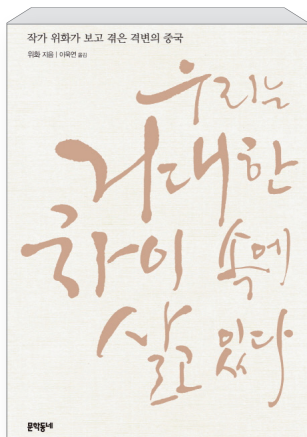
“미는 만족의 대상으로, ‘종아요’의 대상으로, 임의적이고 편안한 것으로 매끄럽게 다듬어진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 우리는 미의 위기를 맞고 있다.” ■116쪽



한병철 지음
문학과지성사 | 2016

우리는 거대한 차이 속에 살고 있다

이현우 추천도서



위화 지음 | 이육연 옮김
문학동네 | 2016

추천 글

『우리는 거대한 차이 속에 살고 있다』는 『허삼관 매혈기』, 『인생』 등의 소설로 우리에게도 친숙한 중국 작가 위화의 산문집이다. 작가의 산문집이란 보통 힘 빼고 쓴 글들을 모아놓기 십상이지만 위화의 전작 〈사람의 목소리는 빛보다 멀리 간다〉는 그의 산문집에 그 이상의 기대를 갖게 한다. 바로 그 속편 격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작가 위화가 보고 겪은 격변의 중국’이라는 책의 부제대로 ‘위화의 중국 리포트’로 읽을 수 있다.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이후 지난 한 세대 동안 중국 경제는 비약적인 고도성장을 이룩했고, 미국과 함께 G2 시대를 열었다. 하지만 경제발전이 균등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지역 편차와 사회생활의 불균등은 중국사회의 그늘이다. 일례로, 90년대 말에 중국 CCTV에서 중국 각지의 아이들에게 어린이날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무엇인지 물어보았다. 베이징의 한 사내아이는 터무니없게도 진짜 보잉 비행기를 받고 싶다고 했고, 시베이 지방의 여자아이는 흰 운동화를 갖고 싶다고 했다. 같은 또래의 아이지만 두 아이의 꿈은 너무 달랐고 그 사이의 거리는 아득하다. 위화가 말하는 거대한 차이의 세계다. 이 거대한 차이는 중국에만 존재하는 건 아니다. 실상 전지구적 자본주의 세계가 이런 거대한 차이의 세계가 아닌가. 작가 위화를 좋아하는 독자뿐 아니라 오늘의 중국을 알고 싶어 하는 독자들도 필독해볼만하다.

저자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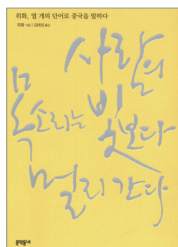
위화(余华) 1960년 중국 저장성(浙江省)의 항저우(杭州)에서 태어났다. 아버지가 마련해준 도서관대출증을 이용해 매일 책을 읽으며 소년 시절을 보냈다. 1983년 단편소설 ‘첫 번째 기숙사(第一宿舍)’를 발표하면서 소설가로 나섰다. ‘중국 제3세대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로 부상했다. 1998년 이탈리아의 그린차네 카보우르 문학상, 2002년 중국 작가 최초로 제임스 조이스 기금을 받았고, 2004년 미국 반스 앤 노블의 신인작가상과 프랑스 문학예술 훈장을 수상했다.

책 속 한 문장

“꿈은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 서부터 원래 지니고 있는 재산이고, 모든 사람의 마지막 희망이기도 하다. 모든 것을 잃어도 꿈만 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꿈조차 균형을 잃었다.”

■ 1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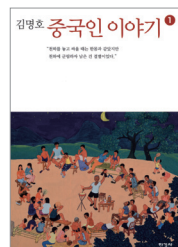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사람의 목소리가
빛보다 멀리 간다
위화
2012



도올의 중국일기. 1-5
김용욱
2015



중국인 이야기. 1-5
김명호
2012

장동석 추천도서

추천 글

『개와 늑대의 시간』은 1982년 4월 경남 의령에서 벌어진, 카빈 소총과 수류탄으로 무장한 순경이 하룻밤에 56명의 무고한 마을 주민을 살해한 실화가 바탕인 소설이다. 저자는 총을 쏜 순경이 아니라 총구 앞에 선 마을 주민들의 동선과 마음을 중심으로 작품을 엮어 간다.

하룻밤 사이 일어나는 집단 사살을 다룬 소설임에도 작품은 한결같이 유쾌하다. 병기인 카빈 소총이 태어난 배경을 설명하는 첫 장은 잘못 인쇄된 것 같은 유쾌한 착각을 불러일으키지만 이는 훗날 카빈 소총이 궁벽한 마을 주민을 죽음으로 몰아간 사건으로 귀결된다. 저자는 아마도 세상 모든 일에 우연이란 없으며, 그것으로 인해 사람들은 아픔과 직면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듯하다. 아울러 누군가의 아들이었을 순경에게도 어떤 사연이 있을 거라 애둘러 말한다.

제목 ‘개와 늑대의 시간’은 인디언들이 사용하던 표현으로 어스름 저녁 언덕 너머로 다가오는 실루엣이 내가 기르던 개인지, 나를 해치러 오는 늑대인지 분간할 수 없는 시간을 말한다. 그런 점에서 세상 모든 것은 선과 악, 긍정과 부정의 양면적 습성을 지니고 있다. 나를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 혹은 어떤 체제가 실은 나를 해하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렇다고 절망할 이유는 없다. 여전히 모든 사람은 하나의 우주이며, 그곳에 저마다의 이야기와 사연을 담고 살아가기 때문이다.

저자 소개

김경욱 1993년 작가세계 신인상에 중편 『아웃사이더』가 당선되며 등단했다. 소설집 『바그다드 카페에는 커피가 없다』, 『베티를 만나러 가다』, 『누가 커트 코베인을 죽였는가』 등과 장편소설 『아크로폴리스』, 『모리슨 호텔』, 『황금 사과』, 『천년의 왕국』, 『동화처럼』, 『야구란 무엇인가』 등이 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케빈에 대하여
라이오넬 슈라이버
2012



종의 기원
정유정
2016



붉은 소파
조영주
2016



김경욱 지음
문학과지성사 | 2016

책 속 한 문장

“고동배는 아직도 우주의 중심, 황도의 축이었다. 모든 별이 고동배를, 고동배의 오른손을 중심으로 돌았다. 그러는 한 별들이 길 잃을 일은 없으리라. 고동배의 오른손은 영원히 옳을 것이기에.”

■ 327쪽

장동석 추천도서

추천 글

광고만큼 현대인의 시각을 사로잡는 것도 없다. 요즘은 광고인지 눈치 채지 못할 정도로 광고는 첨단으로 발전하고 있다. 현대인의 하루는 광고를 보는 것으로 시작해 광고로 보고 마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광고를 처음 접했던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그 궁금증을 해결해 줄 책이 『모던 씨크 명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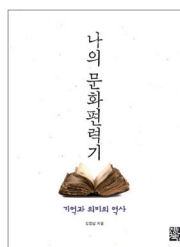
『모던 씨크 명랑』은 1920년부터 1940년까지 20여 년간 발행된 신문의 광고에 담겼던 근대 조선인의 삶과 사회상을 분석한 책이다. 일단 광고의 대상이 된 상품부터 고전적이다. 축음기, 화학조미료, 자동차, 샴푸부터 성병약은 물론 콘돔, 누드 사진집도 있다. 이 상품들에 숨겨진 근대 조선인들의 욕망을 저자는 은근하게 혹은 은밀하게 풀어낸다. 상품 광고만 실렸던 건 아니다. 1920년대 신문 1면에 종종 도마인 기생을 수배하는 광고가 실렸는데, 광고문에는 기생의 나이와 키는 물론 위쪽 앞니에 금니를 했다는 내용까지 상세하게 실려 있다. 책의 제목은 “모던하고 씨크한 웨이트레스”에서 따왔다. “첨단적 사비스”라는 노골적 광고문구로 웨이트레스 30명의 단체 사진까지 넣은 경성의 한 유흥주점의 광고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절과는 달라도 한참 다르다.

이 책은 광고를 통해 당대의 욕망은 물론 한 사회가 어떻게 돌아갔는지 알 수 있는 유쾌한 보고서다. 과장을 조금 보태면, 1920~1940년대를 새로운 관점에서 정리한 역사서라고도 할 수 있다.

저자 소개

김명환 현재 《조선일보》 사료연구실장으로 재직하며 ‘김명환의 시간여행’을 연재하고 있다. 『대박 뒤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서울의 밤문화』 등을 여러 사람과 함께 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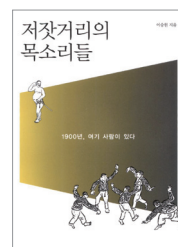
함께 읽으면 좋은 책



나의 문화편력기
김명환
2015



조선에 온 서양 물건들
김명환
2015



저잣거리의 목소리들
이승원
2014



김명환 지음
문학동네 | 2016

책 속 한 문장

“오늘의 일부 TV 흡쇼핑 등에서도 순수 고객인지 의심스러운 출연자가 나와 ‘이 제품, 써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라며 바람을 잡는다. 이처럼 ‘연출된 사용소감’을 이용하는 마케팅 기법은 1920년대 광고에서 시작된 셈이다.” ■ 289쪽

장동석 추천도서

추천 글

바느질에 온 삶을 바친 엄마 수덕은 그 안으로 침잠하며 고립과 절제의 길을 걷고자 했다. 큰 딸 금택은 자신이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에 더더욱 엄마의 세상으로 들어가기에 원했다. 친딸인 동생 화순은 별다른 노력도 없이 엄마의 바느질 솜씨를 흉내 낼 수 있었다. 금택에게 화순은 엄마의 세상으로 들어가려는 자신을 막는 걸림돌이었다. 반면 화순은 떠나고 싶었다. 한 땀 한 땀 정확한 누비 바느질 속에서만 삶의 의미를 찾는 엄마도, 그런 엄마를 닮으려고 애쓰는 언니의 세상도 탐탁지 않았다.

김숨의 『바느질하는 여자』는 세 여자의 서로에 대한 연민이, 그 연민이 낳은 오해와 질투가 번갈아 작동하며 변주해내는 삶의 덧없음을 치밀한 문장으로 보여주는 작품이다. 세상 모든 일과 현상을 바느질하는 일로 치환해서 보여주는 김숨의 문장과 상상력은 가히 압권이라 해도 좋을 만큼 훌륭하다. 어찌면 바느질하는 여자, 엄마 수덕의 삶은 우리네 엄마들의 질고 많은 삶에 대한 은유일 지도 모른다. 금택의 삶은 그런 엄마를 닮고자 했으나 끝내 가닿을 수 없는 오늘 우리 자신일 수도 있다. 화순은 어떻게든 지긋지긋한 부모들의 삶의 관습을 끊으려는, 역시 오늘 우리 자신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바느질하는 여자』는 오늘 우리 시대에 대한 가장 충실한 은유이자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소설 한 권에 많은 일을 해낸 작가 김숨에 대한 기대와 주목이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지 궁금하다.



김숨 지음
문학과지성사 | 2016

저자 소개

김숨 1997년 《대전일보》 신춘문예에 「느림에 대하여」가, 1998년 문학동네 신인상에 「중세의 시간」이 각각 당선되며 등단했다. 소설집 『투견』, 『침대』, 장편소설 『백치들』, 『철』, 『나의 아름다운 죄인들』, 『물』, 『노란 개를 버리러』, 『여인들과 진화하는 적들』 등이 있다. ‘작업’ 동인이며 대산문학상, 현대문학상, 허균문학상, 이상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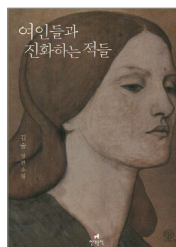
함께 읽으면 좋은 책



국수
김숨
2014



L의 운동화
김숨
2016



여인들과 진화하는 적들
김숨
2013

책 속 한 문장

“처음 바늘을 잡은 사람이나 수십 년 바늘을 잡은 사람이나 꼬박 천 땀을 떠 놓아야 하지. ...천 땀 중 숨겨나 묻히는 땀이 있어서도 안 되고, 뛰는 땀이 있어서도 안 되고, 엷나가는 땀이 있어서도 안 되지. 어떻게 보면 가장 공평한 바느질이 누비 바느질이 지.” ■ 606쪽



알렉상드르 졸리앙, 마티유 리카르,
크리스토프 앙드레 지음 |

송태미 옮김
윌리시즈 | 2016

추천 글

『상처받지 않는 삶』의 세 작가는 각각 독특한 이력을 지녔다. 철학자이자 작가인 알렉상드르 졸리앙은 뱃줄이 목에 감겨 질식사 직전에 기적적으로 살아났는데, 이때 후유증으로 뇌성마미 장애를 갖게 되었다. 승려이자 작가인 마티유 리카르는 세포 유전학을 공부한 전도유망한 과학도였지만 홀연 히말라야로 떠나 승려가 되었다. 셋 중 평범하다면 평범한 크리스토프 앙드레는 정신과 의사로 심리 치료 분야에 최초로 명상법을 도입한 사람 중 하나다.

정신과 의사인 크리스토프는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마세요”라는 말로 현대인들의 성공에 대한 강박을 내려놓을 것을 권한다. 마티유 스님은 “행복해지는 길에서 등을 돌린 채 행복을 갈망하고, 고통을 향해 정신없이 달려가면서 고통을 두려워”한다고 말하며 삶을 목적을 어디에 둘지를 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철학자 알렉상드르는 “나중”이라는 독재자”를 내 삶에서 몰아낼 것을 권한다. 사실 세상 살다보면 상처받지 않는 삶이란 없으니 인생이 고해(苦海)라는 말도 있는 것 아니겠는가. 중요한 것은 고해같은 인생을 대하는 방식이다. 상처를 감내하며 살 수도 있고, 그것을 극복하며 행복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 선택은 지금, 여기서 해야 한다. 물론 모든 이들의 삶이 값진 인생이며, 그것을 자양분 삼아 인류를 삶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만큼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저자 소개

알렉상드르 졸리앙(Alexandre Jollien) 철학자이자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나를 강하게 한다』는 밀리언셀러로 유명한 작가이다.

마티유 리카르(Mathieu Ricard) 세포 유전학을 공부한 후 인도, 부탄, 네팔 등지에서 명상 수행자이자 승려로 생활하고 있다.

크리스토프 앙드레(Christophe Andre) 정신과 의사이자 『나라서 참 다행이다』 같은 베스트셀러를 써낸 작가이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책 속 한 문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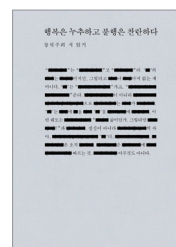
“혼자서는 힘든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것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친구와 가족의 존재는 무척 큰 힘이 됩니다.” ■ 250쪽



미움받을 용기 1-2
기시미 이치로,
고가 후미타케
2014



인생, 강하고 슬픈 그래서
아름다운
변상욱
2016



행복은 누추하고 불행은
찬란하다
장석주
2016

장동석 추천도서

추천 글

자신의 명의로 된 ‘집’은 없어도 ‘자동차’만큼은 한두 대 없는 집이 없으니, 자동차는 요즘 사람들에게 또 다른 얼굴이다. 외제차가 늘어나는 것도, 경차보다 덩치 큰 차들이 도로에 즐비한 것도 이런 이유다. 『자동차, 시대의 풍경이 되다』는 현대인의 얼굴이 된 자동차의 역사를 통해 한국 사회의 변화를 조명한 책이다.

자동차를 처음 본 조선시대 사람들은 놀라움과 두려움을 “굴러다니는 쇠망아지”라는 말로 표현했다. 한국이 생산한 첫 자동차는 1956년 한국전쟁 당시 버려진 자동차의 엔진과 부속 등에 길을 드림통을 망치로 두드려 만든 ‘시발(始發)’이다. 그래서인지 자동차 디자인이 전공인 저자는 시발을 일러 “필요가 만들어낸 일상의 디자인”이라고 강조한다. 모든 것이 부족하던 시절, 그것을 타하기보다 “기지와 노력으로 어려움을 이겨낸 경험”이 오늘 대한민국 자동차의 힘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저자는 자동차가 등장과 함께 사람들의 시공간을 압축하며 현대인들의 삶에 다양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동수단의 하나에서 신분과 경제적 부를 상징하는 소유물로서 현대인들의 생활을 다양한 방식으로 디자인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자동차는 기능성도 중요하지만 권력이나 부 등을 상징하는 복합적 사물로서 현대인들의 삶을 제어한다.

『자동차, 시대의 풍경이 되다』는 자동차 역사 100년을 조명함으로써 우리 삶에 깃든 자동차의 영향력을 세밀하게 분석하는 책이다. 휴가지로 떠나기 전에 자동차의 역사를 한번 훑어보는 것도 색다른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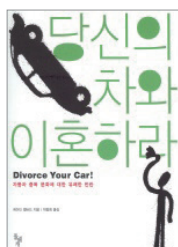
저자 소개

이문석 자동차 회사 컬러디자이너로 일했다. 우리 디자인의 참모습을 탐색하는 작업에 몰두하고 있으며, 『신유목민의 디자인』, 『서울 디자인 15풍경』 등의 책의 공저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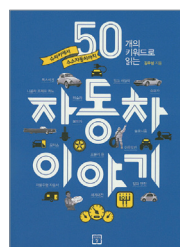
함께 읽으면 좋은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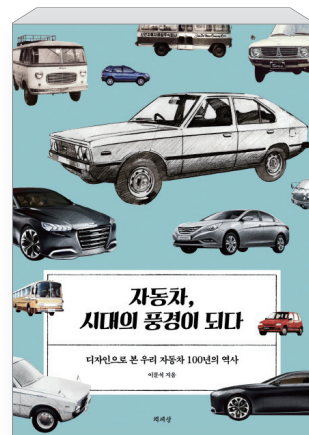
자동차와 민주주의
강준만
2012



당신의 차와 이혼하라
케이티 앨버드
2004



50개의 키워드로 읽는
자동차 이야기
김우성
2015



이문석 지음
책세상 | 2016

책 속 한 문장

“진정한 멋은 뚜렷한 자기 확신에서 비롯된다. 확신이 있을 때 철학이라 말할 수 있고, 그 확신이 외적인 형식을 갖추었을 때 스타일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내면이 꼭 차서 넘칠 때 비로소 고유한 스타일이라는 멋스러움이 풍겨 나온다.” ■10쪽

국립중앙도서관 사서추천도서 80선

연번	분야	서명	저자명	발행처	발행년
1	문학	(금요일에 읽는) 가족의 시	김태훈	arte(아르테)	2016
2		검은 수련	미셸 뷔시	달콤한책	2015
3		국경의 도서관	황경신	태일소담	2015
4		글쓰는 여자의 공간	타니아 솔리	이봄	2016
5		꿈꾸는 시인	나태주	푸른길	2015
6		남은 생의 첫날	바르지니 그리말디	열림원	2015
7		말순씨는 나를 남편으로 착각한다	최정원	베프북스	2015
8		문학은 노래다	제갈인철	북바이북	2015
9		삶은 어떻게 예술이 되는가	김형수	아시아	2015
10		세계문학여행	김한식	실천문학사	2015
11		아자젤	아이작 아시모프	열린책들	2015
12		악의	정해연	황금가지	2015
13		연적	김호연	나무옆의자	2015
14		이케아 옷장에 갇힌 인도 고행자의 신기한 여행	로맹 뤼에르톨라	밝은세상	2015
15		입 안에 고인 침묵	최윤정	바람의 아이들	2015
16		작가의 창	마테오 페리콜리	마음산책	2016
17		젯빛음모	존 그리삼	문학수첩	2015
18		책벌레와 메모광	정민	문학동네	2015
19	철학	관계를 회복하는 용기	박대령	소울메이트	2015
20		마음의 감기	루이제 레더만	율리시즈	2015
21		생각의 융합	김경집	더숲	2015
22		심리학으로 읽는 그리스 신화	김상준	보아스	2016
23		언제까지나 내성적으로 살겠다	에비스 요시카즈	bs(브레인 스토어)	2015
24		이끌지 말고 따르게 하라	김경일	진성북스	2015
25		(딸에게 필요한) 일곱명의 심리학 친구	이정현	센추리원	2015

연번	분야	서명	저자명	발행처	발행년
26	사회·경제	철학 주식회사	샤를 페탱	이숲	2015
27		편견	아그네스 헬러	이론과 실천	2015
28		행복을 인터뷰하다	김진세	샘터	2015
29		가족	심수화	효민대애편	2015
30		과소유 증후군	제임스 월먼	문학사상	2015
31		(위대하고 짜질한) 경제학의 슈퍼스타들	브누아 시마	Humanist(휴머니스트)	2016
32		나를 대단하다고 하지 마라	해럴린 루소	책세상	2015
33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유현준	을유문화사	2015
34		빅데이터 인간을 해석하다	크리스티안 루더	다른	2015
35		생각공유	리오르 조레프	와이즈베리	2015
36		생각은 죽지 않는다	클라이브 톰슨	알키	2015
37		아침식사의 문화사	헤더 안트 앤더슨	니케북스	2016
38		지구와 바꾼 휴대폰	위르겐 로이스, 코지마 다노리처	애플북스	2015
39		지구의 밥상	구정은, 김세훈, 남지원, 손제민, 정대연	글항아리	2016
40		철부지 사회	가타다 다마미	이마	2015
41		카페인 권하는 사회	머리 카펜터	중앙books	2015
42		크리에이터 코드	에이미 월킨슨	비즈니스북스	2015
43	자기계발	나는 고작 한번 해봤을 뿐이다	김민태	위즈덤하우스	2016
44		디테일이 강해야 산다	김태홍	파라북스	2015
45		마음에 지지 않는 용기	김이울	레몬북스	2015
46		(하루 5분 나를 성장시키는) 메모 습관의 힘	신정철	Tornado(토네이도)	2015
47		오래가는 소통	이경진	책과나무	2015
48		정리 습관의 힘	정경자	경향미디어	2015
49	자연과학	뉴턴의 시계	에드워드 돌닉	책과함께	2016
50		상상하기 어려운 존재에 관한 책	캐스파 헨더슨	은행나무	2015
51		새의 감각	팀 버케드	에이도스	2016
52		위대한 공존	브라이언 페이건	반니	2015

연번	분야	서명	저자명	발행처	발행년
53	기술과학	감정의 식탁	게리 웬크	RHK(알에이치코리아)	2015
54		기적을 일으키는 베개의 힘	야마다 슈오리	평단	2015
55		늙는다는 건 우주의 일	조너선 실버타운	서해문집	2016
56		도시에 미학을 입히다	고명석	비즈니스워치	2015
57		마음의 미래	미치오 카쿠	김영사	2015
58		매일 매일의 진화생물학	롭 브룩스	바다출판사	2015
59		미각력	스즈키 류이치	한문화	2015
60		안녕히 주무셨어요?	페터 슈포르크	황소자리	2016
61		알코올의 역사	로드 필립스	연암서가	2015
62		유전자는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	네사 캐리	해나무	2015
63		음식의 언어	댄 주래프스키	여크로스	2015
64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뇌	리처드 레스택	Humanist(휴머니스트)	2015
65		자전거의 즐거움	로버트 펜	책읽는수요일	2015
66		전자정복	데릭 청, 에릭 브랙	지식의 날개	2015
67		창조의 탄생	케빈 애슈턴	북라이프	2015
68		탄소 문명	사토 겐타로	까치	2015
69		프루프	아담 로저스	MID(엠아이디)	2016
70	예술	3분 명화에세이	이경남	위닝북스	2015
71		시네마 클래식	김성현	아트북스	2015
72		예술가를 꿈꾸는 젊은이에게	백형찬	태학사	2015
73		오페라 홀릭	이보경	창해	2015
74		장우진의 종횡무진 미술 오디세이	장우진	궁리	2015
75	역사·지리	그들을 따라 유럽의 변경을 걸었다	서정	모요사	2016
76		단어 따라 어원 따라 세계 문화 산책	이재명, 정문훈	미래의창	2016
77		바람이 전하는 인디언 이야기	찰스 A. 이스트먼	책읽는 귀족	2016
78		세계사 브런치	정시몬	부키	2015
79		세상을 바꾼 다섯 가지 상품 이야기	홍익희	행성B읽새	2015
80		파스타로 맛보는 후룩후룩 이탈리아 역사	이케가미 슌이치	돌베개	2015

서평전문가 추천도서 20선

연번	분야	서명	저자명	발행처	발행년	추천자명
1	문학	9년 전의 기도	오노 마사쓰구	무소의뿔	2016	이다혜
2	기술과학	고맙습니다	올리버 색스	알마	2016	
3	문학	너무 한낮의 연애	김금희	문학동네	2016	
4	사회경제	아, 보람 따위 됐으니 야근수당이나 주세요	히노 에이타로	오우아	2016	
5	문학	일곱 번째 아이	에리크 발뢰	현대문학	2016	
6	문학	개를 데리고 다니는 여인	안톤 체호프	문학동네	2016	이하영
7	철학	고독의 매뉴얼	백상현	위고	2015	
8	문학	나혜석, 운명의 캉캉	박정운	푸른역사	2016	
9	문학	유혹의 학교	이서희	한겨레출판사	2016	
10	문헌정보학	탐서의 즐거움	윤성근	모요사	2016	
11	역사	사피엔스	유발 하라리	김영사	2015	이현우
12	문학	세컨드 핸드 타임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	이야기가있는집	2016	
13	자연과학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데이비드 핸드	더퀘스트	2016	
14	철학	아름다움의 구원	한병철	문학과지성사	2016	
15	문학	우리는 거대한 차이 속에 살고 있다	위화	문학동네	2016	
16	문학	개와 늑대의 시간	김경욱	문학과지성사	2016	장동석
17	역사	모던 씨크 명랑	김명환	문학동네	2016	
18	문학	바느질하는 여자	김숨	문학과지성사	2016	
19	철학	상처받지 않는 삶	알렉상드르 졸리앙, 마티유 리카르, 크리스토프 앙드레	울리시즈	2016	
20	기술과학	자동차, 시대의 풍경이 되다	이문석	책세상	2016	

서명 찾아보기

1	
3분 명화에세이	082
9년 전의 기도	094

ㄱ	
가족	039
(금요일에 읽는) 가족의 시	010
감정의 식탁	065
(위대하고 찌질한) 경제학의 슈퍼스타들	042
개를 데리고 다니는 여인	099
개와 늑대의 시간	109
검은 수련	011
고독의 매뉴얼	100
고맙습니다	095
과소유 증후군	040
관계를 회복하는 용기	028
국경의 도서관	012
그들을 따라 유럽의 변경을 걸었다	087
글쓰는 여자의 공간	013
기적을 일으키는 베개의 힘	066
꿈꾸는 시인	014

ㄴ	
나는 고작 한번 해봤을 뿐이다	055
나를 대단하다고 하지 마라	043
나해석, 운명의 캉캉	101
남은 생의 첫날	015
너무 한낮의 연애	096
뉴턴의 시계	061
늙는다는 건 우주의 일	067

ㄷ	
단어 따라 어원 따라 세계 문화 산책	088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044
도시에 미학을 입히다	068
디테일이 강해야 산다	056

ㄹ	
마음에 지지 않는 용기	057
마음의 감기	030
마음의 미래	069
말순씨는 나를 남편으로 착각한다	016
매일 매일의 진화생물학	070
(하루 5분 나를 성장시키는) 메모 습관의 힘	058
모던 씨크 명랑	110
문학은 노래다	017
미각력	071

ㅁ	
바느질하는 여자	111
바람이 전하는 인디언 이야기	089
빅데이터 인간을 해석하다	046

ㅂ	
사피엔스	104
삶은 어떻게 예술이 되는가	018
상상하기 어려운 존재에 관한 책	062
상처받지 않는 삶	112
새의 감각	063
생각공유	047
생각은 죽지 않는다	048
생각의 융합	031
세계문학여행	019

세계사 브런치	090	● ㅈ			
세상을 바꾼 다섯 가지 상품 이야기	091		자동차, 시대의 풍경이 되다	113	
세컨드 핸드 타임	105		자전거의 즐거움	077	
시네마 클래식	083		작가의 창	025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106		장우진의 종횡무진 미술 오디세이	086	
심리학으로 읽는 그리스 신화	032		젯빛음모	026	
● ○			전자정복	078	
아, 보람 따위 됐으니 야근수당이나 주세요	097		정리 습관의 힘	060	
아름다움의 구원	107		지구와 바꾼 휴대폰	050	
아자젤	020		지구의 밥상	051	
아침식사의 문화사	049	● ㅊ			
악의	021		창조의 탄생	079	
안녕히 주무셨어요?	072		책벌레와 메모광	027	
알코올의 역사	073		철부지 사회	052	
언제까지나 내성적으로 살겠다	033		철학 주식회사	036	
연적	022	● ㅋ			
예술가를 꿈꾸는 젊은이에게	084		카페인 권하는 사회	053	
오래가는 소통	059		크리에이터 코드	054	
오페라 홀릭	085		탄소 문명	080	
우리는 거대한 차이 속에 살고 있다	108		탐서의 즐거움	103	
위대한 공존	064	● ㅌ			
유전자는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	074		파스타로 맛보는 후룩후룩 이탈리아 역사	082	
유혹의 학교	102		편견	037	
음식의 언어	075		프루프	081	
이끌지 말고 따르게 하라	034	● ㅎ			
이케아 옷장에 갇힌 인도 고행자의 신기한 여행	023		행복을 인터뷰하다	038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뇌	076				
(딸에게 필요한) 일곱명의 심리학 친구	035				
일곱 번째 아이	098				
입 안에 고인 침묵	024				

저자명 찾아보기

● ㄱ		● ㄴ			● ㅁ
가타다 다마미	052	나태주	014	미셸 뷔시	011
게리 웬크	065	남지원	051	미치오 카쿠	069
고명석	068	네사 캐리	074	● ㅂ	
구정은	051			바르지니 그리말디	015
김경욱	109	● ㄷ		박대령	028
김경일	034	댄 주래프스키	075	박정윤	101
김경집	031	데릭 청	078	백상현	100
김금희	096	데이비드 핸드	106	백형찬	084
김명환	110			브누아 시마	042
김민태	055	● ㄹ		브라이언 페이지	064
김상준	032	로드 필립스	073	● ㅅ	
김성현	083	로맹 뤼에르톨라	023	사토 겐타로	080
김세훈	051	로버트 펜	077	샤를 페탱	036
김숨	111	롭 브룩스	070	서정	087
김이울	057	루이제 레더만	030	손제민	051
김진세	038	리오르 조레프	047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	105
김태훈	010	리처드 레스택	076	스즈키 류이치	071
김태흥	056			신정철	058
김한식	019	● ㄹ		심수화	039
김형수	018	마테오 페리콜리	025		
김호연	022	마티유 리카르	112		
		머리 카펜터	053		

○		이서희	102	●	ㅋ		
아그네스 헬러	037	이재명	088		캐스파 헨더슨	062	
아담 로저스	081	이정현	035		케빈 애슈턴	079	
아이작 아시모프	020	이케가미 슌이치	092		코지마 다노리처	050	
안톤 체호프	099				크리스토프 앙드레	112	
알렉상드르 졸리앙	112	●	ㅈ		크리스티안 루더	046	
아마다 슈오리	066	장우진	086		클라이브 톰슨	048	
에드워드 돌닉	061	정경자	060				
에르크 발뢰	098	정대연	051	●	ㅌ		
에릭 블랙	078	정문훈	088		타니아 솔리	013	
에비스 요시카즈	033	정민	027		팀 버케드	063	
에이미 월킨슨	054	정시몬	090				
오노 마사쓰구	094	정해연	021	●	ㅠ		
올리버 색스	095	제갈인철	017		페터 슈포르크	072	
위르겐 로이스	050	제임스 월먼	040				
위화	108	조너선 실버타운	067	●	ㅎ		
유발 하라리	104	존 그리샴	026		한병철	107	
유현준	044				해릴린 루소	043	
윤성근	103	●	ㅊ		헤더 안트 앤더슨	049	
이경남	082	찰스 A. 이스트먼	089		홍익희	091	
이경진	059	최윤정	024		황경신	012	
이문석	113	최정원	016		히노 에이타로	097	
이보경	085						

2016 휴가철에
읽기 좋은 책
100선

펴낸 날 2016년 7월 8일

펴낸 이 임원선

펴낸 곳 국립중앙도서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우) 06579

전화 (02)590-0649 / 팩시밀리 (02)590-0607

홈페이지 <http://www.nl.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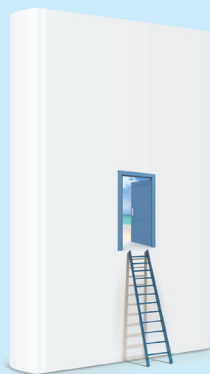
편집·디자인 칼리그램

© 국립중앙도서관, 2016

ISBN 979-11-5687-276-4

ISBN 978-89-7383-654-3(세트)

2016
휴가철에
읽기 좋은 책
100선



비매품



ISBN 979-11-5687-276-4
ISBN 978-89-7383-654-3 (세트)